

KDMT1200573134

269, 2
219.

개혁주의 부활론에 기초한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와
그를 통한 무슬림 복음화 전략

A STRATEGY OF EVANGELIZING MUSLIM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OF THE BIBLICAL ADAM AND THE KORANIC ADAM
IN LIGHT OF THE RESURRECTION DOCTRINE OF REFORMATIONAL
THEOLOGY

亞細亞聯合神學大學校 大學院

宣教學科 宣教專攻

정 형 남

개혁주의 부활론에 기초한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와
그를 통한 무슬림 복음화 전략

A STRATEGY OF EVANGELIZING MUSLIM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OF THE BIBLICAL ADAM AND THE KORANIC ADAM
IN LIGHT OF THE RESURRECTION DOCTRINE OF REFORMATIONAL
THEOLOGY

指導 이동주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 년 5 월 16일

亞細亞聯合神學大學校 大學院

宣教學科 宣教專攻

정형남의 神學碩士學位(Th.M) 論文을 認准함

主 審 이 동 주

副 審 정 홍 호

亞細亞聯合神學大學校 大學院

2005年 6 月 日

감사의 글

제 논문을 귀히 지도하여 주신 이동주 교수님과 부심 정홍호 교수님과 여러 심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주 교수님은 저의 사역지인 요르단 주재 이라크인 교회를 방문하고 난후(2000년 겨울), 저에게 ACTS에서의 교수 사역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며 기도하여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0년 2학기부터 ACTS 중동연구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되어 학부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였고, Th.M. 과정도 밟게 되어 이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본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ACTS에 부름을 받게 된 것은 ACTS 중동선교연구원(대학원) 이사회를 조직하여 기도와 물질로 섬겨 왔던 필라델피아의 김만우 목사님과 워싱턴의 이원상 목사님, 그리고 한철하 명예총장님과 림택권 총장님이 한 자리에 모여 결정하여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김만우 목사님은 저의 첫 선교지 바레인에서부터 시작하여(1989) 지금까지 줄곧 저의 선교사역과 교수 사역을 위하여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한 명예 총장님은 저의 특별히 저의 논문을 꼼꼼히 읽고 지도하여 주셨습니다. 귀한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파송교회인 천안장로교회(담임 이정호 목사)와 여러 협력 교회들, 그리고 중동선교회(이사장 두상달 장로)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의 양가 부모님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감사 드리고 싶습니다.

목 차

I. 서론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 역사 및 방법 -----	5
C. 연구의 내용 -----	7

II. 개혁주의의 부활론 ----- 10

A. 요한복음 5:19-30의 두 가지 부활 -----	12
1. 영적 부활 -----	13
2. 육체적 부활 -----	18
B. 요한계시록 20:5-6의 첫째 부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21
1. 육체적 부활이라는 견해 -----	22
a. 역사적 전천년설 -----	23
b.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	26
2. 영적 부활이라는 견해 -----	31
a. 후천년설 -----	32
b. 무천년설 -----	34
1) 천 년의 의미 -----	35
2)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	36
3)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	49
4)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	51
C.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첫 열매와 둘째 열매들 -----	61

III. 성경과 코란의 아담 비교 연구	66
A. 하나님의 아담 창조	67
1. 코란의 아담과 성경의 아담의 공통점	67
2. 코란의 아담과 성경의 아담의 차이점	74
B. 아담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유혹	114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114
2. 코란의 아담과 성경의 아담의 차이점	114
C.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죽게 된 아담	127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128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128
D.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살리심	140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141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142
E. 아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함	152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152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153
F. 아담의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160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	160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	161
G. 아담의 아들들 -----	172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	173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	173
IV. 무슬림 복음화 전략 -----	184
A. 코란의 최후 심판의 날과 부활의 날 -----	185
1. 알라의 심판 날 -----	185
2. 모든 인류의 부활의 날 -----	187
B. “전도폭발”의 두 가지 질문 -----	187
1. 첫 번째 질문 -----	188
2. 두 번째 질문 -----	191
C. 성경의 최후 심판 날과 부활의 날 -----	192
1. 요한복음 5:24-29 증거 -----	192
2. 요한 계시록 20:11-15의 증거 -----	196
V. 결론 -----	204
참고목록 -----	210

I. 서론

A. 연구 목적

세계 여러 족속들 가운데 13억 무슬림들로 구성된 이슬람권이 있다.¹ 세계 인구가 약 62억 중 13억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대략 다섯 명 중의 한 명이 무슬림인 셈이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권은 흔히들 “복음의 불모지”, “척박한 땅”, “메마른 땅”, “현실적으로 복음 전도가 불가능한 곳”, “선교사를 보낼 필요가 없는 곳” 등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슬람권도 잘 일구어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옥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 무슬림 배경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을 보통 MBB(Muslim Background Believer)라고 하는데, MBB들의 수가 결코 작지 않다. 그들 대부분이 이슬람 연맹에 가입된 57개 국가²의 국민들이다 보니 숨겨진 상태

1 ‘이슬람’이라는 말은 본래 아랍어로 ‘순종’, ‘복종’의 뜻을 갖고 있고, ‘무슬림’이라는 말은 ‘순종하는 자’, ‘복종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슬람’은 ‘기독교’나 ‘Christianity’에 병행되고, ‘무슬림’은 ‘그리스도인’ 또는 ‘Christian’에 병행되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다.

2 이슬람권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혈통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결코 아니다. 이슬람교도들이 됨으로 종교적인 면에서 그들도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다. 이슬람 국가는 2004년 현재 총 58개국이다. 58개국에 속하지 않

에 살고 있다.³ 감사하게도, 최근에 이슬람권이 한국교회의 선교지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⁴

는 나라들 가운데에도 무슬림들의 수가 적지 않다. 그들 모두를 합하여 약 13억이라고 한다. 58개 국가를 크게 두 개의 언어권으로 구별하여 보면, 23개의 아랍어권과 35개의 비아랍어권이다. 아랍어권 23개 이슬람 국가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카타르(카타르) 2) 레바논 3) 리비아, 4) 모로코, 5) 모리타니아, 6) 바흐레인(바레인), 7) 사우디아라비아, 8) 소말리아, 9) 수단, 10) 시리아, 11) 아랍 에미리트, 12) 알제리, 13) 예멘, 14) 오만, 15) 요르단, 16) 이집트, 17) 이라크, 18) 지부티(Djibouti), 19) 쿠웨이트, 20) 튀니지아, 21) 팔레스타인, 22) 코모로(Comoro), 23) 에리트리아. 23)의 에리트리아를 제외한, 22개국을 아랍연맹(아랍 국가들로 구성된 연합기구, 1944년 창설)이라 한다. 이슬람 연맹이 남예멘과 북예멘이 통일이 되기 전에 각각 가입되었다가 통일이 됨에 따라, 잠시 동안 연맹 가입국이 총 21개국으로 줄었다가, 22)의 코모로가 가입됨에 따라, 다시 22개국이 되었다.

그리고 비아랍어권 35개 아랍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1) 가봉, 2) 감비아, 3) 기니아, 4) 기니아 비사우, 5) 나이제리아, 6) 니제르, 7) 말디브, 8) 말레이시아, 9) 말라위, 10) 말리, 11) 모잠비크, 12) 방글라데쉬, 13) 베닌, 14) 부르나이, 15) 세네갈, 16) 세라리온, 17) 아이보리코스트, 18) 아프카니스탄, 19) 알바니아, 20) 이디오피아, 21) 우간다, 22) 이란, 23) 인도네시아, 24) 차드, 25) 카메룬, 26) 터키, 27) 탄자니아, 28) 토코, 29) 파키스탄, 위 29개국 중에서 7개국[9) 말라위, 11) 모잠비크, 17) 아이보리코스트, 19) 알바니아, 20) 이디오피아, 27) 탄자니아]을 제외한 22개국과 23개의 아랍국가들이 합하여져 45개 국가들이 이슬람국가 정상회의 기구(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를 창설하였다(A.D. 1971년). 그리고 소련 연방의 붕괴로 중앙아시아의 6국이 이슬람 국가들로 독립하였다. 30) 아제르바이잔, 31) 우즈베키스탄, 32) 카자흐스탄, 33) 키르기스탄, 34) 타지그스탄, 35) 투르크메니스탄.

3 요르단의 MBB 총각과 처녀가 만나 결혼하였다. 둘 다 아주 신실하고 헌신된 사역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 그들도 부모처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MBB들인가? CBB(기독교 가정에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이겠는가? 답은 MBB이다. 그 이유는 무슬림 배경이라고 할 때, 그 배경은 부모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가문을 두고 일컫는 말이기 때문이다. 요르단의 그 MBB 부부는 그들의 자녀만큼은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을 갖도록 많은 노력을 하던 중, 국가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몇 차례에 걸쳐 투옥되었다. 안타깝게도, 결국 그들은 그 자녀들의 종교적 신분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 자녀들의 호적과 신분증의 종교란에 무슬림이라고 기재된다. 만일에, 그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니게 된다면, 코란과 이슬람을 배워야 한다. 이슬람 법(샤리아)을 따르는 대부분의 이슬람국가들은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를 개종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국가에서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MBB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들은 국가법으로 볼 때, 그들은 여전히 무슬림들이다.

4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For Missions) 원장 문상철 박사에 따르면, 한

성경과 코란⁵을 체계적으로 비교 연구하여 본 무슬림들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각각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무슬림들은 거의 없다. 아담에 대한 성경의 기사는 창세기 1-3장에서 자세히 소개되고 있으며, 그리고 성경 여러 구절들이 아담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아담에 대한 코란의 기사는 코란 총 114개장 가운데 12개장들(2, 4, 5, 7, 15, 17, 18, 19, 20, 36, 38, 39장)에 나와 있고,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대한 기사가 제 5장에 나와 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아담은 6대 선지자 중의 하나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⁶ 필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 무슬림 23명을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

국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총 수가 2002년 12월 말 기준으로 볼 때, 1만 422명이다. 그 중에서 이슬람권 선교사들이 14.5%(1,510명)에 달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이 1,663명인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244명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터키도 461명 가운데 한국인이 202명이며, 말레이시아도 324명 가운데, 한국인이 90명, 키르키즈탄은 150명 가운데 84명, 파키스탄은 579명 가운데 69명이다.: www.krim.org.

5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은 영어 Koran을 음역한 것이다. 최근에 한국어로는 ‘꾸란’이라는 표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정수일은 ‘꾸란’이라는 한글 표기도 원음에 가깝지 않다고 지적하며, ‘꾸르안’이라는 표기를 제안하였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꾸르안’보다 ‘꾸르아안’이라는 표기가 원음에 보다 더 가깝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코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6 이슬람의 6대 선지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무함마드이다. 그리고 코란에 등장하는 이슬람의 선지자들은 아담을 비롯하여 25명으로 다음과 같다. 1) 아담, 2) 이드리스(성경의 에녹일 가능성이 높다), 3) 노아, 4) 후드, 5) 살레, 6) 아브라함, 7) 롯, 8) 이스마엘, 9) 이삭, 10) 야곱, 11) 요셉, 12) 율, 13) 즐키펴, 14) 슈아이브, 15) 요나, 16) 모세, 17) 아론, 18) 엘리야, 19) 엘리사, 20) 다윗, 21) 솔로몬, 22) 자카리아, 23) 요한, 24) 예수, 25) 무함마드.

그리고 선지자들에 대한 신앙은 이른바 이슬람 6((信) 중의 네 번째 항목이다. 이슬람의 6 신(信)이라 함은 1) 알라(Allah) 2) 알라의 천사들 3) 알라의 책들(①모세 오경(토라) ②다윗의 시편(자부르) ③예수의 복음서(인질) ④무함마드의 코란) 4) 알라의 선지자들(사도들) 5) 알라의 심판 날 6) 알라의 운명지어춤(Qadar)이다. 1)-5)까지는 코란 4:136에 근거한다. “믿는 자들이여, 알라와 그의 선지자에게 계신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최후의 날을 부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리라”(코

를 인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들 중의 대부분이 그 질문에 큰 관심을 갖고 답을 알고 싶어 하였다.⁷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이슈는 무슬림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주제임이 틀림이 없다.

필자는 본 논문을 이슬람권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선교사들과 MBB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다. 그들이 본 논문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이슬람권이라는 밭을 복음의 옥토로 일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는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에 관심이 있는 무슬림들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을 준비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본 논문을 접하는 가운데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이 각각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차이점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가 코란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 인용하였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⁸ 그리하여 그들은 인류의 조상은 코란의 아담이 아니라 성경의 아담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코란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경의 아담의 후손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로 발견하게

란4:136) 그리고 6)은 코란 전체 속에 흐르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7 그 수련회는 서울외국인선교회(담임목사: 유해근)는 새문안교회 수양관에서 2002년 구정 기간에 2박 3일 동안에 걸쳐 개최되었고, 필자는 이란인 모임을 위한 강사로 부름을 받았다.

8 이슬람은 성경과 코란이 서로 상충하는 원인은 지금의 성경의 사본들이 사탄의 역사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이 왜곡되었다는 믿음은 무슬림 공동체에 널리 퍼져있는 사실이다: 쇼캣 모우캐리.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이슬람연구소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92 참조.

를 인도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들 중의 대부분이 그 질문에 큰 관심을 갖고 답을 알고 싶어 하였다.⁷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이슈는 무슬림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주제임이 틀림이 없다.

필자는 본 논문을 이슬람권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거나 앞으로 사역하고자 하는 선교사들과 MBB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였다. 그들이 본 논문의 의중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이슬람권이라는 밭을 복음의 옥토로 일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필자는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에 관심이 있는 무슬림들을 염두에 두고 본 논문을 준비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본 논문을 접하는 가운데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이 각각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차이점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가 코란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 인용하였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⁸ 그리하여 그들은 인류의 조상은 코란의 아담이 아니라 성경의 아담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코란의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성경의 아담의 후손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들이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로 발견하게

란4:136) 그리고 6)은 코란 전체 속에 흐르는 내용을 근거로 한다.

7 그 수련회는 서울외국인선교회(담임목사: 유해근)는 새문안교회 수양관에서 2002년 구정 기간에 2박 3일 동안에 걸쳐 개최되었고, 필자는 이란인 모임을 위한 강사로 부름을 받았다.

8 이슬람은 성경과 코란이 서로 상충하는 원인은 지금의 성경의 사본들이 사탄의 역사로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이 왜곡되었다는 믿음은 무슬림 공동체에 널리 퍼져있는 사실이다: 쇼캣 모우캐리.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이슬람연구소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92 참조.

되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이 그들 모두에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B. 연구 역사 및 방법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슬람 측에서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⁹ 아담에 대한 코란의 증거가 성경의 증거 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하다. 예컨대, 코란에는 하와라는 아담의 아내에 대한 이름마저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그들의 이름, 즉 가인과 아벨도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무슬림은 성경의 도움을 받아 하와, 가인, 아벨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 측에서는 코란의 아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동안 무슬림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비교 연구를 통한 무슬림 복음화 전략은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성경의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

9 이슬람 신학자들이 코란의 아담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구절들을 주석할 때마다 성경의 아담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 특별히 지아드, 무함마드 아흐마드의 『성경과 대비해서 읽는 코란』의 경우에는 아담을 비롯한 이슬람의 선지자들을 다루면서 성경을 크게 의존하였다: 지아드, 무함마드 아흐마드. 『성경과 대비해서 읽는 코란』. 김화숙, 박기봉 역. (서울: 비봉출판사, 2001) 참조.

의 후손들 역시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로마서 5:12-14, 6:23등).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 즉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고 증거하고 있다(요한복음 5:17 등).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의 알라는 아담과 그 후손을 다시 살리는 일, 즉 부활의 역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코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죽음과 부활 문제이다.

필자는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죽음과 부활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개혁주의 부활론을 기초로 하였다. 개혁주의 부활론이 아담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성경과 코란의 차이점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개혁주의는 사람의 죽음을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라는 두 가지 국면에서 본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사람의 부활도 영적 부활과 육체적 부활이라는 두 가지 국면에서 본다.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코란의 아담에게는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이 없고, 오직 육체적 죽음과 부활만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아담에게는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이 있다.

코란은 성경과 달리 아담과 그 후손들의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에 대하여 전혀 증거하고 있지 않다. 그렇지만 코란은 아담과 그 후손들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과 같이 잘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코란은 성경처럼 그 육체적 부활이 이른바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진다고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과 코란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최후 심판 날, 곧 인류의 육체적 부활의 날을 접촉점으로 하여 무슬림 복음화 전략을 다루게 될 것이다. 우

리는 그 전략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가 개발한 전도폭발의 두 가지 질문을 활용할 것이다. 그리고 개혁주의 부활론을 다루면서 강해하였던 요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C. 연구 내용

본 논문 “개혁주의 부활론의 관점에서 대조하여 본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은 모두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I 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목적, 연구 역사 및 방법을 대략적으로 다룬다.

II 장에서는 개혁주의의 부활론을 다룬다. 개혁주의 부활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먼저 성경 본문 두 개를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하나는 요한복음 5:19-30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20장이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이른바 천년왕국과 관련하여 세 가지 주장을 다루게 될 것이다. 첫째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주장하는 전천년설이고, 둘째는 천년왕국이 완성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후천년설이다. 셋째는 개혁주의의 기초가 되는 무천년설이다. 필자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을 비판하는 가운데 무천년설을 주장한다. 개혁주의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의 기간이 곧 천년이며, 그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상징하며,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둘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로 이해한다(계시록 20:1-15). 그리고 필자는 이른바 “부활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둘째 부활, 즉 육체적 부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가운데 개혁주의 부활론에 대한 이해를 더욱 북돋울 것이다.

III장에서는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을 비교한다. 코란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아담의 죽음과 그 후손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의 뱀은 아담을 죽이기 위하여 유혹하였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먹게 되어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살리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성경의 아담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일곱 개의 소제목을 잡아 보았다: A. 하나님의 아담 창조, B. 아담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유혹, C.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죽게 된 아담, D.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살리심, E. 아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함, F. 아담의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G. 아담의 아들들.

IV장에서는 무슬림 복음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전략은 II장 개혁주의 부활론과 III장 성경과 코란의 비교 연구를 기초로 한 것이다.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개발한 “전도폭발”의 두 가지 질문과 이슬람 여섯 가지 신앙 중 다섯 번째 항목인 “알라의 최후 심판 날과 인류의 부활의 날”을 활용한다. 첫 번째 질문에서 전도자는 피전도자의 죽게 된 날을 오늘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하고 난 다음, 피전도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지 질문한다. 그런데 이슬람권에서는 그 가정을 “알라의 최후 심판 날과 인류의 부활의 날”이 오늘이라고 가정하여 질문한다. 모든 무슬

림은 “알라의 최후 심판 날과 인류의 부활의 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루에 17회 이상씩 하게 되어 있다. 코란의 “알라의 심판 날과 인류의 부활의 날”은 성경의 “하나님의 최후 심판 날과 인류의 부활의 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최후 심판 날과 인류 부활의 날을 다루는데 있어서, II 장 개혁주의 부활론에서 다루었던 요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20:11-15을 적용하게 될 것이다.

V장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함으로 결론을 맺는다.

II. 개혁주의 부활론

사람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이분설’이 되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면 ‘삼분설’이 된다. 성경이 이분법적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삼분법적 관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성경이 인간에 대하여 이분법적 혹은 삼분법적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全人的)인 관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한 마디로, 사람에 대한 개혁주의적 이해는 전인적(全人的)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몸”, “영혼”, “내적 사람”, “외적 사람”, “육체”, “마음”, “생각”, “영” 등은 각각 전(全)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다만 이러한 용어들은 전(全) 인간을 여러 관점에서 바라본 언어들이라는 것이다.¹⁰

개혁주의는 인간을 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영적 죽음”과 “영적인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개혁주의는 육체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가운데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영적 죽음”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뜻한다. 그리고 “영적 부활”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이 그 관계가 형성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

10 고든 J. 스파크만, 『개혁주의 신학』, 류호준, 심재승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292.

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지상 생애 중 영적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최후 심판 날에 육체적 부활까지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영적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가 심판 날 또 한번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일컫는다(요한복음 5:24-26). 그러나 지상 생애 중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최후 심판 날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여 멸망하게 된다(요한복음 5:27-29). 그 심판의 부활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다(계시록 20:11-15).

개혁주의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첫째 부활(계시록 20:5,6)을 영적 부활로 이해한다. 그리고 둘째 부활이 곧 육체적 부활이라고 이해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자들은 곧 영적으로 다시 산 자들이 되었다는 뜻에서 영적인 부활,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 고든 J. 스파이크만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집에는 앞문 옆문 그리고 뒷문 등 많은 출입구가 있고, 각각의 문은 많은 방으로 인도한다고 하였다.¹¹ 지금 우리는 개혁주의 부활론이라는 방에 들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다.

개혁주의 부활론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의 본문들이 아주 많다. 대표적인 본문들을 열거하자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5장, 요한일 3서,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6 장, 고린도 전서 15장, 에베소서 2장, 골로새서 2, 3 장 등이다. 우리는 그 본문들 중에서 요한복음 5장, 요한계시록 20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부활론에 기초한 사람의 죽음과 부활의 주제를 다루어 볼 것이다.

11 Ibid. 315

A. 요한복음 5:19-30의 두 가지 부활

요한복음 5:19-30은 예수께서 두 가지 사건 통해서 계시하셨던 진리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역할을 한다.¹² 첫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를 살리신 사건이다(요한복음 4:43-54).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38년 된 병자로 누워있는 자를 치료하여 일으키신 사건이다(요한복음 5:1-18). 특별히 예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시는 가운데, 유대인들로부터 안식일을 범한 일로 거센 항의를 받게 된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 한다”고 답하셨다(요한복음 5:17).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줄곧 일하신 바가 무엇인가? 그 일은 곧 거의 죽게 된 신하를 살리는 일과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움으로 상징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나 38년 된 환자로 대표되는 아담의 후손들을 살려 내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 점에 대하여 예수님의 증거를 직접 들어 보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요한복음 5:21)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심 같이¹³,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12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서울: 규장문화사, 1999), 129.

13 성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일을 줄곧 하고 계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살리는 일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셨는가? 우리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어 죽게 된 직후부터 시작하셨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 살리심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영적인 부활, 또는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재적 생명이다.¹⁴ 그 점에 대하여 24-25절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둘째는 육체적인 부활, 또는 육체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미래적인 생명이다. 그 점에 대하여 26-29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1. 영적 부활

영적 부활이라는 말은 영적 죽음을 전제한 가운데 사용된 용어이다. 사람이 태어난 후 육체적으로 여전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영적 죽음의 상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생명력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¹⁵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이라는 용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요한복음 5:24 말씀을 살펴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한복음 5:24).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살려 낸 자가 바로 아담이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III.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14 유상섭, 131.

15 George R Beasley-Murray. *Genesis*, W .B. 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8. 76-77.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5:24상).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그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20장등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게 될 심판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를 믿어 영생 얻은 사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요한복음 5:24b)라고 다시 설명하신다. 물론 여기에 언급된 사망은 육체적 사망이 아니라 영적 사망이다. 이 영적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 사는 상태로 회복된 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생명은 중생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가진 모습이다. 이제 요한복음 5:25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한복음 5:25)

예수께서는 영생 얻기 전, 즉 영적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사람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셨다.¹⁷ 존 칼빈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곧 영적 죽음의 뿌리가 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16 Ibid. 131.

17 ‘살아나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제수신’은 ‘자오’의 미래시제로 일반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삶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마태복음 9:18; 사도행전 9:41; 계시록 20:4).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원한 멸망의 위협 아래 놓여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이들은 텅 빈 헛소리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사람의 영혼에 생명의 잔재가 어느 정도 남아 있음을 쾌히 인정한다. 명철과 판단과 의지 그리고 기타 모든 지각은 생명의 여러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중에 하늘의 생명을 갈구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한, 모든 인간을 온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해도 놀라울 것이 없다.¹⁸

그렇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여기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요한복음 5:21) 생명을 수여하는 음성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¹⁹ 이 시대에 죽은 자들에게 중생을 통한 생명을 수여하는 분은 성령이다. 이때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살아나는 자들을 생명을 얻은 자들, 또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고 일컫는다. 물론, 영생이란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재적 생명이다.²⁰ 헨드릭슨은 요한복음 5:25의 영적 부활이 곧 요한계시록 20:5-6의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요한복음 5장은 첫째 부활의 앞 단계, 즉 거듭난 자의 지상에서 삶을, 요한계시록 20장은 첫째 부활의 뒤 단계, 즉 거듭난 자의 천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했다.²¹

18 존 칼빈, 『요한복음 I』, 칼빈성경주석편찬위원회 역 (서울: 성서교재간행사), 185.

19 Ibid. 132.

20 Ibid. 132.

성경에서 거듭난 자의 삶을 영적인 부활의 개념으로 증거하고 있는 사례는 무수하게 많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벌써 죽고 난 후 사일이 지난 나사로의 누이에게 주셨던 말씀도 한번 생각하여 볼 수가 있겠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언뜻 보면,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와 관련하여 육체적인 부활을 말씀하신 것 같다. 그러나 그 말씀은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영적 죽음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서의 믿음이 곧 육체적인 부활을 가져올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을 ‘생명’보다 먼저 언급하신 것은 의도적인 배열로서 생명이 부활의 결과이기 때문인 듯 하다.²² 결국 예수의 말씀은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서 믿음이 아니라면 육체적인 부활을 가져올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이 된다. 우리는 요한일서 3:14, 즉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 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요한일서 3:14)라는 말씀에서도 영적 죽음개념과 영적 부활 개념이 사용되고 있음을 엿 볼 수가 있겠다.

사도 바울도 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영적 죽음 개념과 영적 부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로마서 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얻었다는 말씀, 곧 부활하였다는 말씀을 반복하며 선포하고 있다. 그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 즉 영적인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

21 윌리엄 핸드릭슨, 『요한복음(상)』, 문창수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3), 268.

22 유상섭, 254.

고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 2:4-5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증거했다. 특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에베소서 2:5a)라는 말씀을 곧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에베소서 2:5b)라는 뜻이라고 덧붙여 설명하기도 하였다.

개혁주의 신학자 게할더스 보스는 에베소서 2:4-5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신자들의 영적 부활”이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도 하였다.²³ 어떤 교회 목회자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라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에베소서 2:4-5를 기초로 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라고 기도하도록 고쳐주었다면, 그 목회자에게는 인간의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 개념이 온전히 자리 잡혀 있는 것이다. 로이드 존스는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베소서 2:6)를 기초로 하여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그리스도인들)의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앉아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있음을 본다고 설교하였다.²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에베소서 4:18)라고 증거하는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는 자들이라고 선포하

23 게할더스 보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은혜와 영광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297.

24 로이드 존스,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 장광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71.

였다. 로이드 존스는 골로새서 3:1-3을 실례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거듭남을 설명하기 위하여, '부활'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관점에서 골로새서 3:1-3에 귀를 기울여 보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었음이니라(골로새서 3:1-3).

2. 육체적 부활

사도 요한은 첫 단락(요한복음 5:24-25)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요한복음 5:26-29)에서는 마지막 심판 날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 심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실 것이며, 그를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그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각각 하게 된다는 것이다. 먼저 두 번째 단락 중에서 전반부, 즉 예수께서 심판 주가 되실 것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들어 보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요한복음 5:26-27)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 받은 자로 마지막 날 심판을 집행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누가 그 심판 날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5:28-29).

심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다름 아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요한복음 5:25)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 날은 곧 최후 심판 날로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구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 곧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과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까? 그 이유는 의도적인 것으로 예수께서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각각의 행위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이다.²⁵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여

25 Ibid. 133.

영생을 얻는 일 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결코 없다. 발 J. 사우어는 요한복음 5:24-29를 다음과 같이 잘 분석하고 있다.

ㄱ) 하나는 현재이고(5:25 “이 때”), 또 하나는 미래이다(5:28-29 “... 때가 오나니”)

ㄴ) 하나는 영적이고(5:24-25), 또 하나는 육체적이다(2:28-29).

ㄷ) 하나는 신자들에게만 제한되고(5:24-25),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5:28-29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²⁶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나는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²⁷ 왜냐하면, 예수께서 신자들의 생명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심판의 부활을 동시적 사건으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신자들은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지만, 불신자들은 단 한번의 부활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신자들이 첫 번째 경험하게 되는 부활을 영적 부활, 또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두 번째 경험하는 육체적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일컫는다. 그 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몸의 부활, 곧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요한복음 5장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다(예컨대, 욥기 19:25-27; 시편 16:9. 요한복음

26 발 J. 사우어 『평신도를 위한 종말론』, 정홍렬 역 (서울: 나눔서원, 1994), 124.

27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 사이에 천년의 간격이 있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장에 대해서는 18-20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룬다.

6:39,40-44,54, 로마서 8:11,22,23; 빌립보서 3:20-21, 고린도전서 15:22, 고린도후서 5:1-4 등). 우리는 성경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도 신경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몸의 부활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고 또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이 땅에서 첫째 부활 곧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렇지만 즉 불신자들은 심판 날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게 된다.

B. 계시록 20:5-6의 첫째 부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자는 사도 요한이다(요한계시록 20:5,6).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다(요한계시록 20:4-6).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곧 보좌에 앉아 왕 노릇 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같다. 그 질문에 대한 두 가지 답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그 보좌를 지상 보좌로 이해한 가운데, 그 부활을 육체적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답이다. 또 하나는 앞에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그 보좌를 하늘의 보좌라고 이해한 가운데, 그 부활을 영적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답이다. 그 두 가지 견해를 각각 살펴보자.

1. 육체적 부활이라는 견해

첫째 부활을 육체적 부활로 주장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보좌들이 지상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상 보좌가 설치될 곳은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이라고 한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그 보좌들에 앉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지상에서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첫째 부활도 육체적 부활이요, 보좌도 지상 보좌요, 천년이라는 기간도 문자적인 천년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그와 함께 보좌에 앉은 자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왕국이 천년에 걸쳐 진행된다는 뜻에 천년왕국이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재림하신다는 뜻에서 전천년설(Premillennialis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²⁸

전천년설에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냐에 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먼저 우리는 그 답을 요한계시록 20:4에서 찾아보자.

²⁸ 번 포이쓰레스,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2), 200.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요한계시록 20:4중, 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요한계시록 20:4)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크게 두 그룹이 있다. 하나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 즉 순교자들의 영혼들이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그런데, 두 그룹이 누구냐에 대한 두 가지의 주장이 있다. 하나는 두 그룹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답이다. 또 하나는 두 그룹이 유다왕국의 혈통적인 후손들, 즉 유대인들이라는 답이다. 전자를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하고, 후자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한다.²⁹

a. 역사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보좌들에 앉아 그 왕국의 통치에 함께 참여할 두 그룹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순교자들이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그룹은 순교를 당하지 않았지만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었던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자

29 Ibid. 198.

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모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의 주인공들이 된다. 여기서 첫째 부활이라 함은 육체적 부활을 의미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즉 최후 심판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계시록 20:6). 그러나 그 최후 심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이다. 불신자들의 육체적 부활이 곧 둘째 부활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진다(계시록 20:15).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천년이라는 긴 기간의 차이를 두고 이루어진다.³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모두 다 육체적 부활이며,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되고, 둘째 부활은 비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천년이라는 기간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설명, 즉 신자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천년 동안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다는 설명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신약성경은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을 동시적 사건으로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다(예컨대, 사도행전 17:32; 23:6; 24:15; 고린도전서 15:12; 히브리서 6:2).

역사적 전천년설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를 크게 약화시킨다는 데 있다. 왜냐하면 천년동안 결박되어 무저갱이라는 옥에 갇혀있던 사단이 옥에서 풀려 나와(계시록 20:1-3),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

30 Ibid, 198.

된 이른바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계시록 20:7-10). 리덜보스는 “천년간의 간주곡”에 관한 이 개념을 성경적 종말론을 가로막는 주요한 걸림돌로 여겼다. 왜냐하면 신약의 구속사적 관점에서는 “재림이 단지 아직 임하지 않은 임시적 목적일 뿐이라는 생각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¹ 역사적 전천년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최후 심판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 계속 함께 살아간다는 셈이 된다. 그 점에 대하여 후크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받은 백성들이 다스릴 것이며... 그때까지 지구상에 있을 믿지 않는 나라들은 그리스도 아래서 그의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³²

그러나 이렇게 이해되는 것에 대하여 후크마는 “신학적 변질”이며, “이것은 완전히 현 시대도 아니고 완전히 다가 올 시대도 아니다”고 지적했다.³³ 버카우어는 신약의 전체적인 증거로 볼 때, 전천년설 종말론은 그 안에 커다란 모호성을 함께 세워간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31 Herman N Ridderbos,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5), 559.

32 Anthony Hoekma,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6), 180-181.

33 Ibid. 180-181, 186.

(역사적 전천년설은) 우선 한편으로 강한 자를 결박하는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말하고, 다른 한 편으로 악마의 현재적 존재와 함께 지속되는 활동을 말한다.³⁴

b.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세대주의’라는 말은 그 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세대주의라는 신학체계를 따르는데서 비롯되었다.³⁵ 그 체계는 역사를 일곱 세대, 또는 시대로 나눈다.³⁶ 지금은 교회 시대이고,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가 있게 될 것이라고

34 G. C. Berkouwer, *The Return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306.

35 세대주의는 벨슨 다비(John Nelson Darby, 1800-1882)에 의해서 확립되었다. 그는 19세기 분리 주의 운동의 하나인 플리머스 형제단 소속으로 스코필드 주석성경의 서문을 쓴 사람이다. 그전에 세대주의 체계를 제시한 인물은 다음과 같다. 노리의 존 테일러(John Talor of Norwich, 1694-1751), 존 플레치어(John Flechiere, 1729-1785), 데이비드 보그(David Bogue, 1750-1825), 아담 클라크(Adam Clarke, 1762-1832), 존 프리스틀리(John Preistly, 1733-1804) 등. 오늘 날은 클라렌스 라킨(Claence Larkin)과 스코필드(C.I. Scofield)로 대표되는 고전적 세대주의 외에도 수정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대중적 세대주의 등이 등장했다.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¹라 할 때, ‘세대’의 헬라어 원어는 “오이코노미아”이다. 이 단어는 영어로는 “dispensation”으로 번역되는데, 라틴어의 “dispensatio”에서 온 것이다. 이 라틴어는 “나누어주는 행위”, “행정”, “관리”등을 의미한다.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의 다양한 형태가 신약에 17번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로는 누가복음 16:2에 단 한번 사용되었고, 명사의 형태로는 16번 사용된다. 이 단어들은 각각 “청지기”(눅12:42; 16:1,2,8, 고전4:1,2, 갈4:2, 딤후1:7, 벧전4:10), “재무”(롬16:23), “청지기직”(눅16:2,3,4) “경륜”(고전9:17,엡1:10; 3:2 골1:25) 등으로 사용된다. 이들 성경구절에 따르면, “오이코노미아”는 “집 안 일이나 도시의 재정을 맡아 경영하는 것” “재산을 관리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가 일정한 “기간”, 혹은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다. 세대주의의가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세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는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다. 둘째는 구약 예언의 성취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후손들, 곧 다윗 왕으로 시작된 유다 왕국의 후손들이다.³⁷ 셋째는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뚜렷한 구별이다. 찰스 라이리의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듣고 나면, 왜 세대주의가 위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들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으려면, 그것들이 성취될 수 있는 천년이라는 미래의 기간이 존재해야 한다(계20:1-10). 교회는 현재 그 예언들을 성취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성취를 위해 남겨진 유일한 시간은 천년 왕국 기간이다.³⁸

세대주의주의자들에 따르면,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왕국의 후손들과 더불어 유다왕국을 회복하고자 하였는데 그 후손들이 그를 거역하여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예언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과 더불어 자신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접어두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의 첫발걸음을 내디딘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그에 대한 다양한 답이 있다. 그런데 가장

36 스코필드가 그의 주석 성경에서 세대에 대하여 다음과 정의를 내렸다. “세대란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계시에 대한 순종과 관련하여 시험을 받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성경에는 일곱 개의 세대가 나타나 있다” 그리고 C.I. 스코필드는(1843-1921)는 역사를 1) 무죄(창조), 2) 양심(홍수이전), 3) 인간통치(홍수이후), 4) 약속(아브라함), 5) 율법(모세에서 선지자들), 6) 은혜(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사이), 7) 왕국(예수님 재림이후 1,000년) 시대로 나누었다.

37 발 J. 사우어, 41-42.

38 찰스 라이리,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정병은 역 (서울: 진도출판사,1966), 174.

보편적인 답은 예수님께서 귀신들려 눈멀고 병어리 된 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을 때였다는 것이다(마태복음 12:22-37).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 쫓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자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방인들을 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이방인들과 더불어 그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재림하신 다음에는 그가 초림 때 이루지 못한 일을 꼭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뉘우치며 잘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게 된 유대인들 중 어떤 이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순교를 당하지는 않지만 살아서 잘 믿게 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른바 칠년 대 환란의 기간을 잘 통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그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이 모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다 왕국의 혈통적 후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됨으로 유다 왕국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왕국이 곧 천년왕국이라는 것이다. 그 왕국은 지극히 가나안 땅 중심적이고 유대인 중심적이 된다.

로이드 존스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한 번도 언급이 없는 땅, 그것도 특별히 가나안 땅, 즉 팔레스타인 땅과 그 땅에 재건될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방인들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를 지닌 유대인들을 참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³⁹ 첫째 부활에 참여한

39 로이드 존스,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 장광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 땅위에 살아있게 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게 될 자들뿐이다.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들이 되었던 로마제국의 핍박 속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왔던 그리스도인들과 이 시대의 주님을 위하여 순교적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가 되고 만다.⁴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유대인들 중심의 천년왕국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기 직전에 이른 칠년 동안의 대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환란 직전에 휴거되어 하늘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대주의자들은 환란 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신자들에게 임할 축복이 “부활이 아니라 승천”이라고 강조한다.⁴¹ 여기서 우리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회시대가 곧 괄호시대라는 말을 실감할 수가 있다. 구약에

2000), 257.

40 세대주의자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하여 모두 다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도 않고 함부로 침을 흘리며 입맛을 다시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세대주의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디모데후서 2:15)이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을 시대별로 나누어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고 강조한다. 또한 그들은 또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고린도전서 1:32)을 중요하게 다룬다. 그들은 그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께서 인류를 유대인, 헬라인, 교회,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성경 말씀을 시대적으로 옳게 구분하여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방인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해당되는 것은 교회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을 교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41 John F. Walvoord, *The Return of the Lor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149.

언의 성취의 주인공은 오직 유대인들인데, 그들에 대한 예언 성취가 중단된 기간이 곧 교회 시대라는 것이다. 교회 시대는 곧 구약예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주인공이 된 시대라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감되고, 유대인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재개될 터인데, 바로 그 시대가 천년왕국이라는 것이다.⁴²

세대주의자들은 1948년 5월 14일에 세워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1967년 이른바 6일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동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됨에 따라, 이른바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게 되었음을 강조는 세대주의자들도 적지 않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세대주의자들이 적지 않다. 물론, 그렇게 믿지 않는 세대주의자들도 더러 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전 산,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나안 땅 등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세대주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42 키이스 인트레이트(Keith Intrater)라는 유대인 목사가 있다. 그는 은누리교회(담임 하용조 목사) 파송 선교사로 유대인들을 위한 선교사이다. 그는 한국에도 자주 방문하여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대부분의 믿는 자들은 휴거되고, 특별히 선택받은 무리는 휴거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 곧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일을 돕게 된다고 한다. 그는 누가 휴거되고, 누가 휴거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휴거될 자들은 이방인 중심으로 구성된 교회이고,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자들은 곧 유다 왕국의 혈통적 후손들이라는 라는 점은 세대주의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리고 키이스 인트레이트 목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휴거된 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계시록 21:6)라는 말씀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즉 둘째 사망, 즉 지옥에 떨어지게 된 자들을 염두에 두고,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선포되었던 말씀이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키이스 인트레이트 목사는 그 말씀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보다 유다 왕국의 혈통적 후손들이 더 복이 있다는 식으로 억지 해석하고 있다: 월간 살롬 예루살렘, 한.이성경연구소(www.kibi.or.kr) 2005년 4월호(40호). p 6.

미국의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이 통치하는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으로 인하여 이슬람권의 반발이 매우 심각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다.⁴³

2. 영적 부활이라는 견해

이제 첫째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 부활이라고 주장하는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자.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이해하는 자들은 그 보좌를 하늘의 보좌로 이해한다. 그런데 그 견해도 두 가지 설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이고, 또 하나는 무천년설(Amillennialism)이다. 그들의 공통점은 첫째 부활이 영적 부활이며, 그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라는 것이다. 그리고 차이점은 이른바 천년왕국의 시작점이 언제인가의 차이점이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43 필자는 중동선교회(www.met.or.kr)가 2개월에 한번씩 발행하는 중동선교회 소식지를 통해서 전천년적 세대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미국 부시 대통령의 친 이스라엘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왔다. 대표적인 글들은 다음과 같다: “부시의 중동 리모델링 꿈과 우리의 꿈”, “9.11. 테러의 뿌리”, “이라크 전쟁과 이슬람권 선교”, “때리는 시어머니 보다 알미운 시누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는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미사일”, “누가 참 이스라엘인가?” “이스라엘의 건국은 성경 예언의 성취적 사건인가?” “예루살렘 행진 2004의 문제점”, “이스라엘 회복운동, 성경적인가?” “예루살렘 사랑 운동을 하는 자들(JPT)은 이사 간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하는 사람들과 같다” 등.

a.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

이른바 천년왕국이 먼저 세워지고 그 왕국이 끝난 후,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뜻에서 후천년설(Postmillennialism)이라고 한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의 전개가 이 시대의 장래에 최대한으로 발달할 것을 기대한다.”⁴⁴ 이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불러 올 이른바 “복음의 황금시대”가 도래할 것을 믿는다.⁴⁵ 후천년설주의자인 로레인 보트너(Loraine Boettn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시대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세계 인구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천년 왕국 시대로 점점 들어가는 것이다.... 천년왕국의 도래는 여름이 오는 것과 같은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매우 장엄한 스케일로 임할 것이다.⁴⁶

후천년설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적인 원리들이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기독교화 된 세상이 펼쳐질 것을 믿고 있다. 무천년주의자 안토니 후크마는 이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낭만적인 단순화로서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다. 확실히 그리스도

44 Hendrikus Berkhof, *Christ the Meaning of History*, (Richmond: John Knox Pres, 1966), 166.

45 고든 J. 스파이크만, 631.

46 Robert G. Clouse, *The Meaning of Millennialism* (Downers Grove, Ill.: Inter Varsity Press, 1977), 129,133.

는 죄와 사탄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다. 따라서 싸움의 최종 결과는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의 적들과의 대립은 마지막까지 계속될 것이다.⁴⁷

고든 J 스파이크만은 “사회복음”을 외치는 현대 자유주의가 성경적 후천년설적 천년왕국 사상의 급진적인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⁴⁸ 자유주의자들은 “진화가 점점 천년 왕국을 가져 올 것이다”고 주장했다.⁴⁹ 세계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난 이 후,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어떤 신학자는 “후천년설은 죽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⁵⁰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20장을 기초로 한 이른바 천년 왕국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견해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나는 전천년설이었고,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었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주인공들,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체적인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보좌도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도 천상이 아니라 지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편만이 증거됨에 따라 세상이 기독교화 되고, 자연스럽게 뒤따라 천년왕국이 도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이다(계시록 21).

47 Anthony Hoekma, 180.

48 고든 J. 스파이크만, 630.

49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7), 717.

50 Ibid. 631.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서로 정반대이며, 심지어는 서로 배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연대기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둘은 비록 다른 시간 표에 근거하지만, 모두 천년 왕국을 “천년”의 기간이라는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황금시대”의 기간으로 본다.⁵¹ 후천년설은 현재의 창조 세계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가운데, 그 천년의 황금시대를 기대한다. 그렇지만, 전천년설은 현 세대에 대하여 아주 비관적이다. 전천년설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오직 지속되는 환난과 시험만이 있으며, 결국 사탄의 세력에 의한 극한 대 환난의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한다.⁵²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성경이 증거하는 올바른 대안이 없는가? 이른바 무천년설이 올바른 대안이다. 무천년설은 후천년설의 문화적 낙관주의와도 구별되며, 전천년설의 문화적 비관주의와 구별된다.⁵³

b. 무천년설(Amillennialism)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무천년설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루이스 벨코프는 무천년설이 “기독교 교리만큼이나 오래된 신학”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무천년설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관점으로서... 교회의 위대한 역사적 신앙고백 안에 표현되거나 내포된 유일한 관점이다”라고 했다.⁵⁴ 무천년설

51 고든 J. 스파이크만, 634.

52 Ibid.

53 Ibid. 635.

54 Ibid. 708.

관점이 곧 개혁주의적 관점이다.⁵⁵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서 ‘무천년’이라는 단어 자체에 만족하지 않는 자들이 많다. ‘무’(영어로, "a")라는 의미가 마치 천년 왕국 자체를 부인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이다. 제이 아담스는 무천년설이 “천년왕국의 ‘설명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설명하는 것인데”⁵⁶, 무천년설이라는 용어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든 J. 스파이크만은 무천년설이라는 용어 대신에, 천천년설 (Promillennial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⁵⁷

이제 보다 나은 천년기의 이해를 위해서 부정 접두사를 가진 무천년설로부터 천천년설(Promillennialism)로 전환함이 필요하다. 여기서 접두사 “pro”는 “을 위한”이라는 의미이다.

요한 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들, 즉 천년, 보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 보자.

1) 천 년의 의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보좌에 앉아 왕 노릇 하는 기간이 천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보자. 사도 요한은 왜 천년이라는 용어를

55 Ibid. 638.

56 Jay Adam, *The Time Is at Hand*, Nutley,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0), 107.

57 고든 J. 스파이크만, 637.

사용하였겠는가? 천년의 의미가 무엇인지 관심을 갖고 다음 증거를 들어 보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은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놓이리라(요한계시록 20:1-3).

사도 요한은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그 손에는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이 있음을 보았다. 무저갱은 최후 심판 때까지의 지옥을 말한다(누가복음 8:31, 요한계시록 20:1-3). 심판 후에 이 지옥은 ‘불못’이라고 불리어진다(요한계시록 2-:14,15).⁵⁸ 그 무저갱은 깊은 동굴인데⁵⁹, 손잡이와 문이 있다(요한계시록 9:1). 그 문은 열 수 있고(요한계시록 9:2), 잠글 수도 있다(요한계시록 9:3). 그리고 그 천사에게는 쇠사슬이 있다. 그 천사는 그 쇠사슬로 용을 잡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 천사에 의해서 붙잡혀 무저갱에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용은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다. 사단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만국을 미혹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사단은 천년의 기간이 끝남과 더불어, 잠깐 놓이게 되어 다시 만국을 미혹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자들은 위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왜냐하면, 용, 곧 사단이 영적인 존재이므로 그가 쇠사슬로 결박당

58 윌리엄 헨드릭슨, 『요한계시록』, 김영익. 문영탁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3), 144.

59 Ibid. 229.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⁶⁰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짐승이 곧 로마제국의 황제를 상징한다고 해석하였다. 짐승도 상징적으로 해석되고, 용이 쇠사슬에 결박되었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해석된다면⁶¹, 그 용이 붙잡혀 있는 천년 동안이라는 기간 역시 상징적인 기간이 아닐 수 없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숫자들은 모두 다 상징적이다. 1,000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데 언제나 상징적이다.⁶²

그렇다면, 천년이라는 기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기간, 즉 전체 기간을 나타낸다. 그 숫자는 10을 세제곱한 수로 오랜 기간을 암시하며 무엇보다도 완전한 기간을 가리킨다. 개혁주의는 천년의 기간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라고 해석한다. 천년의 기간이 곧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이라 하면, 그 기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시대가 되겠다.⁶³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천년으로 상징되는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최후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처음에는 삼년 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삼년 반이라는 기간은 1260일(계12:6), 한 때 두 때 반 때(계

60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자들도 사단이 하나의 영이기 때문에,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천년만큼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를 고집한다. 그들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는 “이론의 편리함에 맞추기 위해 골라 선택하는 것은 진정한 해석법이 아니다. 이 장이 상징주의로 시작된다면 왜 동일한 방식을 계속 사용하면 안되는가”라고 반문하였다: 로이드 존스,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257.

61 용의 결박에 대한 이해를 돕는 성경 말씀들(마태복음 12:29, 누가복음10:18, 요한복음 12:31-33 등): 자세한 내용은 로이드 존스,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 정광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266-268을 참조하라.

62 윌리엄 핸드릭슨, 『요한계시록』, 257.

63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2), 220.

12:14), 마흔 두 달(계13:5)로 각각 소개된다. 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처음에는 삼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밝혔는가? 그것은 메시아 나라의 백성들이 대적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왜 나중에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1,000년이라는 긴 기간으로 밝혔을까? 천년이라는 오랜 기간으로 상징되는 기간 동안 메시아의 다스림이 있게 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⁶⁴

삼년 반이나, 천년이라는 숫자가 단지 물리적인 개념을 띄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개념을 띄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성이 파악되지 못하게 되면 너무나 어이없는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별히 천년이라는 개념은 요한계시록 20:1-6에서만 소개되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B.B, 워필드의 남긴 말 - “분명한데서부터 시작하여 다소 모호한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통상적인 연구순서이다” - 을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⁶⁵

2)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곧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보좌”라는 단어가 47번 등장하며, 매번 그 단어는 사단의 보좌나 짐승의 보좌(계2:13;13:2;16:10)를 제외하고는 하늘에 있는 보좌를 언급하고 있다.⁶⁶

64 Richard Bauckham,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 T Clark, 1999), 151.

65 W.J. 그리어, 『재림과 천년왕국』,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7). 138.

단 한번의 예외 없이 그 보좌들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⁶⁷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 앉아 있는 보좌들도 하늘에 있다. 로이드 존스는 요한이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몸은 지상에 있고, 그들의 영혼들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⁶⁸ 우리는 요한계시록 20:4에서 ‘영혼’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앉아 있는 보좌가 지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더욱 실감할 수가 있다. 성경에서 ‘영혼’이라는 말이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예컨대, 사도행전 7:14). 그러나 본문의 경우에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목 베임을 받은 ‘영혼들’”이라고 하지 않고,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 베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을 가진 것을 보았다고 말하지 않았다. 사도 요한은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을 첫째 부활, 곧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로 소개하는 가운데, 언젠가 그들이 둘째 부활, 곧 육체적인 부활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암시하여 주었다. 개혁주의자들은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은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나타낸다고 주장한다.⁶⁹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즉 주후 1세기 경의 상황이 어

66 Leon Morris, *The Revelation of St.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1), 236.

67 로이드 존스, 256.

68 Ibid. 258.

69 로이드 존스, 258.

떠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 당시의 상황을 헨드릭슨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머리를 사형집행관들의 칼날 아래 고요히 누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순교하였고 야고보도 또한 죽임을 당했다. 성도들은 '황제는 우리의 신(神)이다'라고 하거나 이교도의 제단에 향을 뿌려 황제를 경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타오르는 불 속에서 또는 로마의 투기장에서 사나운 사자들에게 던져지면서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였다.⁷⁰

사도 요한과 그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거나, 핍박을 당하며 살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과 더불어 이 땅에 아직도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하였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점을 잘 아시고 그의 종 요한을 통해서 그들의 근황을 알려주고 계셨던 것이다.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여 그들의 몸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메시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이 여러 핍박 가운데 살다가 죽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의 영혼만큼은 산 자들이 되어 하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겠는가!

사도요한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먼저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그들의

70 윌리엄 헨드릭슨, 『요한계시록』, 101.

몸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다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하여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목 베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가운데, 둘째 부활의 때 곧 몸들의 부활의 때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거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처음 사용된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이라고 해석한 가운데 둘째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다.

사도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지만, 그들의 영혼들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구체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부여 받아 왕 노릇하고 있음을 증거하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들의 육체적 부활, 곧 둘째 부활을 전제하고 지금의 상황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더불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이 또 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하리니(요한
계시록 20:4중, 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
지도 아니한 자들도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처럼 “살아서”, 즉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는 것이다(요한
계시록 20:4하). 여기서 우리는 “살아서”(헬라어, 자오)라는 동사에 대하여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살아서”라는 말이 “목 베임을 당한 자들”처럼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죽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목 베임을 당한 자들과 달리 아직 죽지 않고 “그들이 이 땅 위에서 계속 살아 있다”라는 뜻인지 궁금하기 때문이다.

윌리엄 J. 덤브렐은 그 “살아서”라는 단어의 주어, 즉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을 아직 죽지 않고 여전히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석한 가운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살아서 왕이요 제사장으로 메시야와 함께 왕 노릇한다. 이것은 첫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요한계시록 20:5)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왕과 제사장으로써 왕 노릇함을 뜻하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경험을 의미한다(요한계시록 1:6; 5:10). 그렇다면 첫째 부활은 특별히 순교에 참여함을 뜻하기 보다는, 회심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참여함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천년의 통치는 마지막, 천상의 안전을 상징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사단의 결박,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천년의 통치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상황을 보여주는 그림언어이다.⁷¹

우리는 앞에서 로이드 존스나 핸드릭슨 등의 설명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런데, 덤브렐에 따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아니라 땅에 여전히 살아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

71 윌리엄 J. 덤브렐, 『언약신학과 종말론』, 정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440.

이다. 헨드릭슨은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앉아 있는 보좌가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라는 사실을 크게 강조하면서 그 보좌의 주인공들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곧 천상에 있는 영혼들임을 크게 강조하였다.⁷²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던 헨드릭슨의 요한복음 5:25의 주석을 한 번 더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는 요한복음 5:25의 영적 부활이 곧 요한계시록 20:5-6의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데, 요한복음 5장은 첫째 부활의 앞 단계, 즉 거듭난 자의 지상에서 삶을, 요한계시록 20장은 첫째 부활의 뒤 단계, 즉 거듭난 자의 천상에서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해석했다.⁷³ 그리고 우리는 덤브렐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을 이 땅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이해한 가운데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해석하였던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헨드릭슨, 로이드 존스, 덤브렐 등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가 순교자들의 첫째 부활의 시점, 곧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순교한 후부터가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시부터라는 것이다.

사도 요한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 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여전히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다. 다름 아닌 사도 요한이 바로 그들 중의 하나였다. 그들이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 짐승은 다름 아닌 로마제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말이다(다니엘 7:17 참

72 윌럼 헨드릭슨, 『요한계시록』, 237.

73 윌리엄 헨드릭슨, 『요한복음(상)』, 268.

조). 그렇기 때문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다는 표현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 표현은 사도 요한 당시 황제에게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들도 순교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곧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인가?

이필찬은 요한계시록은 유대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묵시문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중요한 것은 공간적, 시간적 초월성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공간적 초월과 시간적 초월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두 측면의 초월성, 다시 말해서 공간적 초월로서의 하늘과 시간적 초월로서의 종말을 근간으로 하여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그것은 교회가 현재 전투하는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 동시에 승리한 교회로서 하늘에 존재하며 그 하늘에서 교회는 종말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이다... 가장 먼저 계시록 2-3 장에서 일곱 교회는 당연히 땅에 존재하는 지역교회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가 놀랍게도 바로 이어지는 교회는 4-5장에서는 하늘에 앉아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것은 24 장로들을 통해 알려진다.⁷⁴

이필찬은 ‘목 베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 전체, 곧 교회를 포함한다고 주장한다.⁷⁵ 그들은 ‘하늘에 거한 자

74 Ibid. 260.

75 이필찬, 217.

들'이다(계시록 12:11-12, 13:6). 그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과 대조가 된다(계시록 11:10; 13:8; 17:8). 여기서 우리는 '거하다'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자, 즉 '하늘에 거한 자들'의 '거하다'라는 동사는 '카토케이오'이고, 후자, 즉 '땅에 거하는 자들'의 '거하다'는 '스케노오'이다. 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다(요한복음 1:14; 히브리서 8:2-3, 9:11). 이처럼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두 무리를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구분은 지정학적 구분이 아니고 종교적인 구분이라는 것이다.⁷⁶ 그렇기 때문에, '목 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이 땅에 여전히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 속에 함께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 점에 대하여 이필찬의 다음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자.

요한계시록은 언제나 일관성 있게 사람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이러한 구분은 지정학적 구분이 아니고 종교적인 구분이다. 전자는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로서 언제나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경배하며... 그러나 반대로 후자, 즉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장막이며(13:6),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며(3:12),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배임을 당한 자들이며,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다(20:4)⁷⁷

우리는 앞서서 사도 요한으로부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증거(요한계시록 20:6)와 그 둘째 사망은 곧 불못이

⁷⁶ Ibid. 265.

⁷⁷ Ibid. 265.

라는 증거(요한계시록 20:14)를 들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 못, 곧 둘째 사망에 던져질 것이라고 증거하였다(요한계시록 20:15).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할 수가 있겠다. 그리스도인이 언제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또는 한 사람이 언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죽는 순간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또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죽는 순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가? 그 답을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다녀 온 후 기뻐 돌아 와 보고하는 그의 이른바 70인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누가복음 10:21)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 될 것으로'가 아니라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이다. 윌리엄 J. 덤브렐도 첫째 부활은 회심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참여함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단의 결박,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천년의 통치는 그리스도인의 현재적 상황

을 보여주는 그림언어라고 설명하였다.⁷⁸ 우리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 점에 대하여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인가? ... 그것은 바로 거듭남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그 '영혼들'은 육체를 입지 않은 영혼 상태에서 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살아 있다. 그들은 죽음을 통과한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면에서 거듭남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0:5에서 이 단어들을 그와 같이 해석할 때 억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⁷⁹

로이드 존스에 따르면, 이 땅에서 여전히 몸을 갖고 살아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죽음을 통과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요, 앞으로 육체적 부활을 경험할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필찬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 대한 정의에 귀를 기울여 보자.

첫째 부활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넓은 의미로서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을 의미하고, 좁은 의미로서는 성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건을 지칭한다.⁸⁰

78 윌리엄 J. 덤브렐, 『언약신학과 종말론』, 정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440.

79 번 S. 포이쓰레 200.

80 이필찬, 220.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자들로 설명하고 있음에 대하여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이 좋겠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먼저 보좌의 주인공들로 소개된 분은 성부 하나님(요한계시록 1:4)이시다. 그리고 보좌의 주인공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다(요한계시록 3:21). 그 점에 대하여 요한의 증거를 들어 보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요한계시록 3:21).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보좌를 부여 받아 앉았던 것처럼, 그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각의 보좌를 부여하겠다는 뜻이다. 우리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좌를 부여 받은 자들의 수가 구체적으로 24 명임을 보게 된다(요한계시록 4:4). 24 보좌에 앉게 된 자들은 24 장로들이라고 한다. 24 장로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개혁주의 학자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해석한다.⁸¹ 24 장로라 함은 구약의 12 지파의 12와 신약의 12 사도의 12를 합친 것이다. 다시 말해서, 24 장로들로 대표되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 보좌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곧 첫

81 윌리엄 핸드릭슨, 『요한계시록』, 101.

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대표한다.

3)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곧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이며(계시록 13:8), 언제나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경배하며, 짐승의 사역을 경이롭게 생각하며 (계시록 17:8; 13:8,12),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계시록 6:10),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며(계시록 11:10), 짐승에게 미혹을 당하여 짐승의 우상을 만들며(계시록 13:14), 바벨론의 음행의 잔으로부터 취하는 자들이다(계시록 17:2).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곧 본질적으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다.⁸² 그들은 기록하지 못하고 복되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천년의 기간이 다 차고 나면, 즉 교회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심판 날에 어떻게 되는가? 그에 대한 답을 다음 구절에서 찾아보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기록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요한계시록 20:5,6상)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요한계시록 20:14).

82 이필찬, 264-265.

마침내,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짐을 당한다. 그 둘째 사망은 ‘불 못’, 곧 지옥이다. 우리는 앞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둘째 부활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을 암시한다고 이해하였다.⁸³ 그렇다면,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 즉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히브리서 9:27)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곧 첫째 사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⁸⁴ 그리고 둘째 사망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계시록 20:6). 조금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곧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둘째 사망은 둘째 부활과 대조가 된다. 전자에는 불신자들이 참여하고, 후자에는 신자들이 참여한다.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는 용어가 네 번에 걸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계시록 2:11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시록 2:11)

이기는 자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었다는 말은 곧 이기지 못한 자들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이기지 못

83 번 S. 포이쓰레, 200.

84 Ibid. 220.

한 자들이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그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들이 누구인지 살펴보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계시록 21:8)

우리는 계시록이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는 그 “이긴 자”들은 곧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영생을 얻었던 자들이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난 자들임을 알 수가 있겠다(요한복음 5:24-25). 그리고 그들이 곧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며,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다(요한복음 5:29상). 다시 말해서, 이기는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요한복음 5:29). 그리고 그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둘째 부활, 즉 육체적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요한복음 5:29). 왜냐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이미 첫째 부활, 즉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요한복음 5:24-25).

4)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성경에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우리는 계시록 20:5-6에서 처음 등장한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해석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있게 될 육체적 부활을 둘째 부활로 암시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번 S. 포이쓰레(Vern S. Poytheresss)는 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첫째와 둘째(또는 마지막)라는 대칭 구조가 세 번에 걸쳐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 있게 지적한다. 세 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②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③ 첫째 하늘과 첫째 땅, 그리고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다. 물론,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둘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그렇지만, 사실상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며, 결국 마지막 하늘과 마지막 땅이다. 번 S. 포이쓰레이가 첫째와 둘째에 대한 세 번에 걸친 대칭 설명을 통해서 둘째 부활의 의미를 추론하는 것을 직접 들어 보자.

첫째 하늘과 땅 그리고 둘째 하늘과 땅이 있는 것 같이(요한 계시록 21:1), 첫째 사망과 마지막 사망이 있다. 더욱이 저주로서 첫째 사망은 더욱더 무시무시한 둘째 사망의 도래를 표시한다(참고. 창세기 3:19). 이러한 사실들은 첫째와 둘째 부활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첫째 부활은 첫째 죽음과 같이 예비적이다. 둘째 부활은 분명하게 육체적인 부활이다. 그것은 분명히 첫째 죽음, 곧 육체적인 죽음의 치유이다.⁸⁵

첫 하늘과 첫 땅과 대칭되는 둘째 하늘과 둘째 땅에 대하여 ‘둘째’ 대신에 “새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사용되었다. 그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는 바로 앞에서 살펴 본 “둘째”처럼 완성 또는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85 번 S. 포이쓰레, 200.

다.⁸⁶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최후 심판을 거친 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조금 뒤에 차분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첫 하늘과 첫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여 보자. 이를 위하여 사도 요한의 첫(처음) 하늘과 첫(처음) 땅에 대한 증거를 들어 보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시록 21:1).

첫 하늘과 첫 땅은 곧 첫 창조를 의미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를 의미한다. 첫 창조가 옛세 동안에 걸쳐 완성되었고, 제 칠 일째 창조주 하나님은 안식하셨다. 그러나 그 첫 창조의 주인공으로 세움 받은 아담 내외가 타락하게 됨으로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가 없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삼십 팔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 주시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한복음 5:15)라고 말씀하셨던 바를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셨던 일이 바로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곧 새 창조의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창조가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를 그의 종 요한에게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다.

⁸⁶ 사도 바울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첫 사람 아담이라고 일컬음과 동시에, 예수를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이라고 일컬었다(고린도전서 15:45-47).

여기서 우리는 이른바 새 창조가 ‘재창조’로서의 완성될 것인지, ‘갱신’으로 완성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재창조’는 현존하는 우주 만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무(無)의 상태로 돌아 간 후 다시 창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갱신’은 현존하는 우주 만물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⁸⁷ 사도 요한은 새 창조의 완성을 재 창조적으로 이해였다. 그래서 그는 첫 하늘과 첫 땅은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계시록 21:1).⁸⁸ 그가 본 새 하늘과 새 땅은 온전히 새 것이었고, 첫 하늘과 첫 창조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베드로후서 3:10-13).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의 완성을 재창조적 개념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시록 21:5)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갱신적 개념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없애고 다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만물을 새롭게 하셨던 것이다.⁸⁹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되는 새 창조의 완성이 처음에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재창조적 개념으로 증거되었지만(1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갱신적 기념으로 증거되었다(5절). 그렇다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증거가 최종적인 증거가 아니겠는가! 새 창조의 완성이 재창조가 아니라 갱신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크게 부서진 자동차

87 Ibid. 235.

88 특히 사도 요한은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시록 21:1하)라는 증거를 통해서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을 상징하는 바다(계시록 13장, 다니엘 7장 참조)가 더 이상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89 번 S. 포이쓰레, 229.

를 공장에 맡겼다가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가 수리된 자동차를 보고 첫 자동차는 사라지고 새 자동차가 나타났다고 말할 때, 그 수리공이 첫 자동차를 새롭게 하였다고 말한 것과 같은 셈이다.

우리가 새 창조의 완성을 재창조적 개념으로 아니라 갱신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사실은 노아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증명된다. 왜냐하면, 노아언약의 핵심은 우주의 골격을 보존한다는 것인데,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서 성취되며, 그 성취의 결과가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이다.⁹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 상실당한 첫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완전성에 근거한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순간이 바로 종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먼저 이루어졌고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⁹¹

사도 요한은 첫 하늘과 첫 땅이 없어졌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갱신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무대로 삼고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도시는 새 예루살렘을 보고 난후 갖게 된 그의 첫 인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2)

90 Ibid. 236.

91 Ibid. 237.

사도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였다. 신랑을 위하여 예비 된 신부 같더라고 어렴풋이 짐작만 했다.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도시로서의 새 예루살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인격체로 묘사하였던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는 도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가 그에게 아주 아름다운 인격체로 다가왔던 것이다.⁹² 그는 도시의 생명력과 아름다움을 최대로 표현하기 위하여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계시록 21:2하)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의 짐작은 적중했다. 한 천사가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계시록 21:9)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의 짐작이 맞았음을 확증하여 주었기 때문이다.(계시록 21:9-11).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여호와 하나님의 결혼한 바가 될 것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

⁹² 사도 요한은 두 도시를 비교하고 있다.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며,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이다. 물론,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한다. 바벨론과 로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특별히 바벨론과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서 치명적인 피해를 준 국가를 상징하는 도시이다.

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이사야 62:1-5)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은 새 예루살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라는 말씀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직 그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외의 어떤 다른 것도 의미할 수가 없다.⁹³ 안토니 후크마는 그의 책,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새 예루살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 신자만 포용하기에는 너무도 큰 포괄적인 용어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으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 교회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⁹⁴

첫째 부활, 곧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계시록 20:5,6)이 둘째 부활, 곧 육적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둘째 부활은 궁극적으로 둘째 하늘과 둘째 땅,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는 것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새 예루살렘이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음

93 이필찬, 246.

94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종말론』, 유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372.

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상징하고 있는 바를 이해하여 한다.⁹⁵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하나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것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144 규빗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생각하여 보자. 144는 12X12로서, 약속으로서의 구약의 교회와 성취로서의 신약의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요한이 이 성벽을 통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⁹⁶ 우리는 그 사실을 성벽의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참조: 에스겔 48:30-45)과 성벽의 열두 기초석에 열두 사도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여러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통해서 여러 보석들로 이루어졌던 에덴동산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다시 말해서, 에덴의 회복으로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다.

구약적 유대 전통에 의하면 새 에덴은 항상 종말론적 축복으로서 새 예루살렘과 공존한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완성은 첫 창조의 회복이라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그 점에 대하여 스파이크만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5 Ibid. 246.

96 Ibid. 246.

성경적인 관점 안에서 종말론은 시원론(protology)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속에서, 종말에 모든 일들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는 전망은 창조의 시작으로부터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미 타락의 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한 가운데에서 다가올 구속의 승리를 선포하셨다(창세기 3:15). 이스라엘이 남긴 유산의 핵심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이다. “시대의 종말”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복음의 말씀 속에서, 삶, 죽음,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은 현재적 실재로서 나라의 삶을 향하는 문을 열었다. 그것은 이미 이 “마지막 날들”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이다.⁹⁷

계시록 22장은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을 풍성하게 제공한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보석 모티브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생명수 강물을 통해서도 에덴동산의 회복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창세기의 에덴동산에는 동산 꼭대기에서 네 개의 강으로 그 물이 흘러나온다(창세기 2:10-14). 그리고 에스겔 47장에서는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계시록 21:1에서는 그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온다. 왜 강물의 원천의 변화가 생겨났을까? 여기서 우리는 에덴동산과 에스겔의 성전을 통해서 기대했던 바가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에덴동산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그의 백성과 함께 계셔서 생명수 샘물의 원천이 되셨다는 뜻이다.⁹⁸

우리는 또한 생명수 강의 양 옆에 있는 달마다 열두 실과를 맺는 생명 나무를 통해서 에덴의 회복으로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97 고든 J. 스파이크만, 630.

98 Ibid. 254.

가 있다.(계시록 22:2). 첫 창조 때 아담 내외에게 주어졌다가 금지되었던 생명나무가 이제 종말에 교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하였다(계시록 22:2).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저주가 없다고 하였다(계시록 22:3상). 에덴동산에서 아담 내외가 죄를 범함으로써 임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다. 그 저주가 없어졌음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라는 말씀이 선포되었다(계시록 22:3).

아담은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창세기 3:9-11), 그의 후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었다(출애굽기 33:20,23).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그의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할 것이다(계시록 22:5).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는 말씀에 대한 의미를 자세히 음미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이필찬은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가 불신자들을 향한 왕 노릇도 아니요 성도가 성도를 향한 왕 노릇은 더욱 아니다. 그것은 에덴동산에서 아담 내외에게 주어진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탁받았던 궁극적 가치의 회복으로서 새 창조, 곧 새롭게 된 만물에 대한 통치사역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시록 22:1-5은 새 창조의 주인공인 교회가 에덴동산에서 첫 창조의 목적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⁹⁹

우리는 앞에서 첫째 부활, 즉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왕 노릇한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왕 노릇은 천년 동안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마침내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난 다음, 즉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고 난 다음의 왕 노릇은 천년동안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한다. 할렐루야!

C.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첫 열매와 둘째 열매들

고린도서 15장은 보통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그의 열한 제자들을 비롯하여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증거하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뎌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린도전서 15:8)라는 증거를 통해서, 다름 아닌 바로 그 자신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밝혔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는 증거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곧 부활의 둘째 열매들 될 것이라는 증거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바울 그 자신을 포함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사실도 내포되어 있다.

99 Ibid. 255.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던 것은 그가 초림하셨을 때이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들이 부활의 둘째 열매들로서 나타날 때는 언제가 되겠는가? 그에 대한 답을 다음 구절에서 찾아보자.

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요, 그 뒤에 끝이 오리니. 곧 그분께서 모든 치리와 모든 권세와 권능을 폐하시고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고린도전서 15:22-24, 흠정역).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게 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리라(고린도전서 15:51, 흠정역)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 맺히게 될 때는 곧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류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이요, 그 때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인류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부활은 최후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요한복음 5:29에 따르면, 그 심판의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들, 곧 신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 곧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최후 심판의 때,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께 속한 자들은 “부활의 둘째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물론,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라는 표현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는 개념을 통하여 “부활의 둘째 열매들”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추론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둘째 열매들은 곧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5장에서 언급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요한계시록 20-21장에서 암시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소개된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곧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용한 “부활의 첫 열매”라는 용어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사용한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혼동해서는 안 되겠다. 사도 바울이 사용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사용한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을 일컫는 용어이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중심으로 하여, “첫째 부활”은 영적 부활로서 광의적으로는 성도들의 거듭남 또는 중생 등을 일컫는 것이며, 협의적으로는 성도들이 죽은 다음 그 영혼들이 하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을 일컫고 있음에 대하여 앞서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부활의 첫 열매”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게 해당되는 “첫째 부활”의 공통점 하나를 찾아볼 수가 있겠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의 둘째 열매들”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둘째 부활”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겠는가?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물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도 언급되지 않고, 그 문맥 속에 암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둘째”의 개념을 “마지막”, 또는 “새로운”의 개념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둘째 열매”라는 용어도 언급되지 않았고, 암시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둘째”라는 표현을 “새로운”이라는 뜻

보다는 “마지막” 또는 “나중”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의 제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것이며(고린도전서 15:1-34), 둘째 단락은 부활의 몸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고린도전서 15:35-58).¹⁰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활, 즉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둘째 열매들로서의 예수께 속한 자들의 부활은 곧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활의 둘째 열매로서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난다는 것과, 그 재림은 곧 인류의 종말을 가져온다고 설명하는 점에 대하여 귀를 기울 필요가 있겠다(고린도전서 15:24).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곧 최후심판의 날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이른바 전천년설의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¹⁰¹ 왜냐하면,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신자들만이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천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과 함께 최후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결된다고 증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적하던 모든 자들을 최종 심판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의 나라를 하나님 아

100 찰스 하지, 『고린도전서』, 김영배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5), 425.

101 Ibid. 450.

버지게 받치게 되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15:24).

요약컨대, 개혁주의는 사람의 죽음을 두 가지 국면에서 이해한다. 하나는 영적 죽음이고 또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다. 영적 죽음이라 함은 살아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말한다. 개혁주의는 사람의 죽음을 두 가지 국면에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부활을 또한 두 가지 국면에서 이해한다. 하나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영적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일컫고, 최후 심판 날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일컫는다(계시록 20:5-6).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적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 즉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첫째 부활, 즉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최후 심판 날,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부활은 육체적 부활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표현하지 않았고,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요한계시록 21:1,9). 여기서 우리는 “둘째”라는 개념이 “마지막” 또는 “새로운”의 뜻을 지니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둘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요한복음 5:29)이라고도 설명되기도 하였다.

III.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

성경의 사탄은 아담을 죽이기 위하여 유혹하였고,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져 선악과를 먹게 되어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살리기 시작하셨다. 그러나 코란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성경처럼 인정하지 않는다. 코란의 사탄이 아담을 유혹한 것도 그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다. 코란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아담의 죽음과 그 후손들의 죽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코란의 아담에게는 II장 개혁주의 부활론에서 고찰하였던 아담의 영적 죽음이나 영적 부활 개념이 전혀 없고, 오직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개념만 있다.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성경의 아담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일곱 개의 소재목을 잡아 보았다: A. 하나님의 아담 창조, B. 아담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유혹, C.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죽게 된 아담, D.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살리심, E. 아담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함, F. 아담의 에덴으로부터의 추방, G. 아담의 아들들.

A. 하나님의 아담 창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대한 기사가 크게 두 번 소개된다. 하나는 창세기 1장이고, 또 하나는 창세기 2장이다. 창세기 1장의 창조주는 하나님(엘로힘)이고, 창세기 2장의 창조주는 여호와(또는 야훼) 하나님이다. 그리고 창조의 내용을 보아도, 창세기 1장에서 인간 창조는 하나님께서 열세 동안에 걸쳐 이루어진 전체 창조 역사 중에서 여섯째 날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개된다. 그러나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는 그 여섯째 날에 첫 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각각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들이 에덴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창2:4-25).

그러나 코란에는 창세기 1장과 같은 창조기사, 즉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가 자세히 소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담 내외의 창조 사건과 사탄의 유혹사건 등이 함께 섞여져 총 12개장들(2, 4, 5, 7, 15, 17, 18, 19, 20, 36, 38, 39장)에 소개되고 있다.

1. 코란의 아담과 성경의 아담의 공통점

아담에 대한 성경과 코란의 창조 기사 가운데 그 공통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우리는 아담에 대하여 코란과 성경이 조금 엇비슷하게 증거한 것들도 공통점이라는 범주에서 다루고자 한다.

a. 흙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으로 지으시고”(창세기 2:7)라고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흙(“아다마”)으로부터 아담을 빚어 창조하신다. 땅의 흙(“아다마”)과 아담 사이의 언어유희를 통하여 그 둘 사이의 밀접한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¹⁰²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암시되어 있다(욥기10:9; 이사야 29:16; 시편 90:3; 104:29 등).

코란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음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다(코란3:59; 7:12; 15:28, 33; 17:61; 38:76). 그 구절들을 참고하여 보자.

정녕 알라와 함께 하는 예수의 경우도 아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알라가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였으니, 알라가 그에게 “있으라.”하니, 그가 있었노라(코란 3:59, 필자 사역).

.... 당신께서 나(이블리스)를 창조하시매 불에서 창조하셨고 그(아담)를 창조하매 흙에서 창조하셨습니다”(코란 7:12)

보라. 주님이 천사들에게 내가 검고 묽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리라 말씀이 있었노라... 이블리스가 말하길 당신께서 묽고 검은 진흙으로 빚은 인간에게 왜 내가 부복하여야 합니까? 라고 대답하더라(코란15:26,33)

아담이 천사들에게 일러 아담에게 부복하라 하니, 그들 모두가 부복하라 하니, 그들 모두가 부복하였으되, 이블리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흙으로부터 창조한 인간에게 부복하란 말이요 라고 하면서 거역했더라(코란 17:61) 이블리스가 대답하길 제가 그보다 훌륭함이요, 당신께서 저를 만드심에 불에서 창조하였고, 그를 만듦에 흙에서 빚었습니다(코란 38:76)

102 고든 J. 웬햄, 『창세기(상)』, 황수철 역 (서울: 임마누엘, 1992), 164.

이슬람 학자들은 알라가 무함마드에게 코란 3:59를 계시한 것은 기독교가 예수
의 동정녀 탄생을 기초로 하여, 예수를 신격화하는 점을 수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라
고 주장한다.¹⁰³ 아담이 그의 육신의 부친과 모친도 없이 태어났음에도 그가 신이
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가 그의 육신의 부친이 없는 가운데 그의 모친 동정녀 마
리아에게서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신이 될 수 없
다는 것이다.¹⁰⁴ 코란은 아담 창조 사건과 예수의 창조 사건을 함께 언급하는 가운
데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

아담이 흙으로 창조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나머지 코란 구절들(7:12; 15:28,
33; 17:61; 38:76)은 모두 타락한 천사인 이블리스에 의해서 증거되었다. 알라가 천사
들에게 아담을 경배하도록 하자 천사들은 불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
었을 상기시키며 아담이 천사들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그에게 경배할 수 없다고 항
변하는 내용이다.

b. 생기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 그
렇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천지’)을 창조하시고 인간(‘남
자와 여자’)을 그의 형상으로, 땅의 본질적 성분(‘흙’)으로, 그리고 전

103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최영길 역 (사우디 아라비아: 파아드 국왕 꾸란 출판
청) 96.

104 *The Holy Gur-an*, Revised & Edited by the Presidency of Islamic Researches,
IFTA, Call and Guidance (Al-Madinah Al-Munawarah,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
H. 1413) 156.

채 세상과 환경의 한 부분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 받은 존재로 만드셨다.¹⁰⁵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세기 2:7)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지상에서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라는 뜻이다. 사람은 그의 내면에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생명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생명을 대표하는 ‘숨’, ‘생기’는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과는 분가분리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창세기 2:7과 가장 밀접하게 평행하는 구절은 에스겔 37:9이다. 에스겔서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죽었던 몸들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도록 선지자 에스겔에게 명령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바람(영)으로 채워져서 살아나게 된다. 이 단어는 여기와 에스겔 37장에서 둘 다 생명을 부여하는 신적 불어넣음을 뜻하고 있다.¹⁰⁶

그러나 코란에는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그와 거의 같은 의미가 코란 15:29 과 38:72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¹⁰⁵ 존 H. 스택, 『구약신학』,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123.

¹⁰⁶ 고든 J. 웬함, 164.

내가 그를 만들고 난 다음 그에게 나의 영을 불어넣어 줄 때, 너희(천사들)는 그에게 경배하라(필자 번역, 코란15:29 또는 38:72).¹⁰⁷

c. 금단의 열매

성경의 아담에게는 에덴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따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이 구별되어 선포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2:16-17).

코란의 아담도 성경처럼 어떤 특정한 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말라는 알라의 명령을 받았다. 그 점에 대하여 코란의 두 구절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107 코란 15:29과 38:72는 아랍어 원문 상으로 똑 같다. 그런데 최영길은 15:29은 "내가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나의 영혼을 불어넣을 때 너희가 그에 부복하라 하니" 38:72는 "내가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 그 안에 내 영혼을 불러 넣으리니 (너희가) 그를 경배하라."라고 조금 다르게 번역하였다.

그리고 코란 15:29과 38:72에서 등장하는 알라의 '영혼'은 아랍어로 루흐(ruuh)인데, 최영길은 그 루흐('ruuh)를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그녀(마리아)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코란21:91)라고 번역하기도 하였다. 그 점에 대하여 이동주 교수는 최영길의 일관성 없는 번역과 기독교적 신개념인 삼위일체적 성령을 성경에서 가져다가 알라의 영혼과 알라의 혼과 피조물 가브라엘에 뒤범벅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영길은 성꾸란 5:110의 각주에서 '성령'을 가브리엘 천사라고 설명하여 피조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이동주, "꾸란 속에 내재한 기독교 언어, 『기독교와 이슬람』 제 12권 2002, 76. 참조.

하나님¹⁰⁸이 말씀하시, 아담아, 아내와 함께 천국(동산)에 거주하며, 그대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 지은 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코란2:35).¹⁰⁹

아담아, 너와 네 아내가 천국(동산)에서 거하며,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되 허락된 것을 먹으라. 그러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악을 낳으리라(코란7:19).¹¹⁰

d. 옛세 동안의 창조

코란은 창조 역사가 성경처럼(창세기1:1-2:3), 옛세 동안에 걸쳐 이루

108 최영길은 아랍어로 '알라'(Allah)를 우리말로 한결같이 '하나님'이라고 번역하였다. 그 점에 대하여 이동주 교수는 온 세계에 다 알려져 있는 '알라'라는 이슬람 신개념이 있는데, 왜 구태여 기독교의 신개념인 '하나님'의 개념을 사용하여 꾸란을 번역해야 했는지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동주, "꾸란 속에 내재한 기독교 언어", 『기독교와 이슬람』 한국개혁 신학회 논문집 제 12권 2002. 66.

성경의 '하나님'과 코란의 '알라'가 결코 같지 않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영길처럼 대부분의 코란 영어 번역본에서도 코란의 '알라'를 'God'으로 번역하였다. 필자는 코란의 알라를 성경의 하나님과 의도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영길이 번역한 코란 구절이 소개될 때는 그가 번역한 대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것이다.

그리고 코란 구절을 최영길의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에서 인용할 때에는 번역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곧 바로 인용하겠다. 그리고 그 외의 번역에 대하여는 그 번역자를 언급하겠다.

109 "그리고 나는 "오, 아담아, 너와 너의 아내는 동산에서 살며,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곳을 풍부히 먹으라. 그러나 이 나무에는 가까이 하지 말며, 만약 그러할 시에는 네가 죄를 범하게 되니라"하고 일렀느니라.(코란2:36, 이슬람국제출판국 역). 같은 코란의 구절 내용이 한 절 차이가 나는 것은 매 장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가장 자비로운 알라의 이름으로"를 1절로 간주하는 것 여부에 따른 것이다.

110 "그리고 '오, 아담아! 너와 너의 배우자는 동산에서 살며, 그곳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먹으라. 그러나 이 나무에는 접근하지 말라. 네가 죄인 가운데 서리라' 하였노라." (코란7:20), 이슬람국제출판국역)

어졌음을 소개하는 가운데 아담도 그 옛새 동안에 창조되었음을 증거한다
(코란7:54; 32:4; 57:4).

실로 주님께서 옛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밤을 쫓으며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어 그분의 권능 아래 두시었더라. 창조하시고 자비하심이 그분이 아니뇨?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영광이 있으소서!(코란7:54)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옛새 동안에 창조하신 후 권좌에 오르셨으니, 그분이 아니면 너희에게는 어떤 보호자도 중재자도 없느니라. 너희는 이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뇨?(코란32:4)

그분은 하늘과 대지를 옛새 동안에 창조한 후 권좌로 오르셨나니, 대지 속에 들어가는 것과 내려오는 것과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 모두를 알고 계시며 너희가 있는 곳에 항상 함께 하시매, 너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라(코란57:4)

e. 한 명의 아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아내 한 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창2:18-25). 성경의 아담은 그의 아내 이름을 처음에는 여자라고만 일컬어졌지만, 그들이 범죄 한 후에,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새롭게 일컬었다. 코란의 아담도 단 한 명의 부인과 살았다. 코란에서는 그의 아내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다. 코란의 아담의 아내 창조에 대한 증거를 들어 보자.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남녀가 풍성히 번성토록 하였노라. 너희가 권리를 요구하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너희를 낳아 준 태아를 공경하라. 실로 하나님은 너희를 지켜보시고 계시니라(코란4:1).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신 후 너희를 위하여 여덟 마리 자웅의 가축을 두셨노라. 그분께서 어머니 태내에서 너희를 만드사 차례대로 단계를 두시어 어둠으로 가리워진 세 곳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 주님 하나님이니, 왕국이 그분의 것이다. 실로 그분 외에는 신이 없나니 그래도 너희는 등을 돌리느냐?(코란39:6)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담 창조 역사 가운데, 성경과 코란의 공통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 공통점은 둘 다 흙으로 창조되었고, 생기가 불어 넣어졌으며, 금단의 열매가 주어졌으며, 몇새 동안에 창조되었고, 한 명의 아내가 허락되었다는 것이다.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아담에 대한 성경과 코란의 창조 기사 가운데 그 공통점을 크게 14 가지로 정리하여 보자. 그리고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과 관련한 차이점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여 보자.

a.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실 때, 말씀만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그렇게 말씀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이 먼저 의논 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창세기1:26)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누구와 의논하셨다는 말인가? 성경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복수 개념이 엿보인다. 그리고 그 복수 개념은 창세기3:22의 ‘우리 중 하나 같이’에서와 창세기11:7의 ‘자, 우리가 내려가서... 못하게 하자’에서도 선명하게 보인다. 유일신 창조 기사 가운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면 이상한 표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창세기 1:27)라고 강조하기 때문에 창세기 1:26은 그 외의 다른 신들을 연상시키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가운데 의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창세기 1:26의 “우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등장했다. 그 해석들 중 대표적인 것들만 선별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그의 천상의 궁중의 신하, 즉 천사들(참조, 이사야6:8)에게 말을 걸었기 때문에 사용되는 복수형이다. 이 해석은 필로(Philo) 이후 유대인 주석가들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 (2) 그리스도에 대

한 언급으로 본 바나바 서신(the Epistle of Barnabas)과 순교자 Justin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절을 삼위일체를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3) 위엄을 나타내는 복수이다(the plural of majesty). (4)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는 신(창세기1:2)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견해이다 (Keil, Dillmann, Driver). (5)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복수이다 (a plural of self-deliveration).¹¹¹

우리 기독교는 보통 두 번째 해석, 즉 삼위일체를 예시한다는 해석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다. 그 “우리” 속에 창세기 1:2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영이 포함되어 있다.¹¹² 하나님이 영, 곧 성령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직접 참여하였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땅은 부정형이었고 무거주 상태였으며 어두움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the Spirit of God)은 수면 위를 감싸 돌리고 계시니라(창세기1:1-2, 유재원 역)¹¹³

유재원은 창세기1:2의 ‘라하프’(rahaf)라는 동사를 우리말 개역성경이 ‘운행하다’라고 번역함으로써 성령이 A 지점과 B 지점을 왕복하는 듯한 인상을 주어 성령의 편재성을 크게 축소시킨다고 지적하며, ‘감싸고 돌리고 계시다’라고 고쳐 번역하였다. 그리고 그는 ‘라하프’가 성령의 창조사역을 가리키고 있음을 주장하였다.¹¹⁴ ‘라하프’는 어미 새가 새끼를 낳기 위하여 알을

111 고든 J. 웬함, 116. 손석태, 『창세기 강의』, 서울: 성경읽기사, 1993) 28 참고.

112 고든 J. 웬함, 117.

113 유재원, 『모세오경』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25.

114 Ibid 25.

‘품고 굴리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그리고 ‘라하프’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가 날 수 있는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그 새끼를 고통으로 품고 올라간 다음 그 새끼를 아래로 떨어뜨려 놓고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신명기32:11,12참조)¹¹⁵.

구약에 12회 사용된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 26회 사용된 “여호와의 영”과 같은 실체이며, 곧 하나님의 제 3위 되시는 “성령님”(시편 51:11, 이사야 63:10,11)이시다. 김진섭은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역사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실제로 창조를 수행하심이 자명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절에서 하나님(성부)의 우주 설계도에 따른 명제적 창조가 2절에서 “혼돈과 공허”의 비존재적 상황에서 성령님의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임재를 강조하면서 3절 이하의 우주창조의 사역 전체가 성령님에 의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구현되는 한 분 하나님께서 우주 속에 어떻게 삼위일체로 함께 일하시는지를 보여준다.¹¹⁶

김진섭은 우리 말 개역 성경이 “하나님/여호와의 영”을 모두 “하나님/여호와의 신”으로 번역한 것(역대하 18:23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번역됨)이 우리로 하여금 창세기 1:2에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하는 성령 하나님에 바른 이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칼빈도 성령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15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엮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신명기32:11,12)

116 Ibid. 185-186.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주의 아름다움의 깊이와 보전이 성령의 능력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아름다움이 우주에 더해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우주의 창조 이전에도) 성령은 그 혼돈된 것들을 돌보고 계셨다... 우주 어디에나 계셔서 만물을 보전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에 활기를 주고 그의 능력을 모든 것에 주입하며, 모든 것의 본질, 생명, 그리고 운동을 불어 넣어 주는 이가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다.¹¹⁷

지금까지 우리는 창조주의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창세기 자체만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내포되었음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창조주의 “우리” 안에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점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신약성경 말씀들 중에서 몇몇 대표적인 구절들 중의 하나가 요한복음 1:1-3이다. 그 구절은 ‘말씀’으로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주가 되심을 다음과 같이 잘 선포하고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1-3)..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고린도 전서와 골로새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밝히 증거하고 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117 존 칼빈, 『칼빈의 기독교 장요』.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13, 14.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린도전서 8:5-6).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세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셧느니라.(골로새서1:15-17).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고 계신다는 뜻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창세기1:26-28의 하나님의 복수 개념 속에서 처음으로 발견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와 마무리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 주신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막 시작할 때라 함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를 말한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오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하셨다(마태복음3:13-17).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마지막이라 함은 그가 부활하신 후 그의 제자들을 갈릴리의 어느 산에 부르셨을 때를 말한다.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모두 다 부여받았음을 천명하시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을 향하 나아가서 그의 제자들을 삼도록 하시며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명하셨다. 그 밖에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예컨대, 고린도후서 13:13)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삼

위일체 하나님을 이루고 있음이 증거되고 있다.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상호 관련해서 하신 것이다.¹¹⁸ ‘하나님의 상호 협력’이라는 교리는 사도신경을 형성하는 삼위일체의 구조에 잘 반영되고 있다. “전능하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는 신조들과, 종교개혁이 이루어낸 신앙의 기준들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삼위일체적인 신앙고백은 개혁신학 안에 언제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¹⁹

여기서 우리는 코란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즉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코란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복수개념이 담긴 “우리”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우리” 번역이 “We”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된 코란에는 “하나님” 또는 “나”로 되어 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여 ‘우리’가 너희를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였다...”(코란 49:13) 에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코란은 신약 성경에서처럼 그 “우리” 개념을 성부, 성자, 성령 개념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이슬람은 코란의 알라의 복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장엄복수 개념이 동원되어 설명되기도 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에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그 엘로힘이 스스로를 ‘우리’라고 밝힌 것은 장엄 복수 개념 때문이라는 설명에 기초한 것이다. 그런데 쇼카트

118 고든 J. 스파이크만, 183.

119 Ibid. 184.

무케리는 그 복수 개념에 대하여 그와 다른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무함마드의 역할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암송하여 메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그는 메시지 형성에 개입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들은 것을 정확하게 배우고 암송하였다. 그 이유로 코란 본문에는 보통 화자(話者)가 복수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코란의 '우리' 속에 알라,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무함마드 자신이 포함된다는 것이다.¹²⁰

코란에는 삼위일체 개념에 대하여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이 많이 있다 (코란 4:171; 5:76; 3:55 등). 성경의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구체적으로 언급된 구절로 뽑히는 코란 4:171을 주목하여 보자.

성서의 백성들이여, 너희 종교의 한계를 넘지 말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 외에는 말하지 말라. 실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리아에게 말씀이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영혼이었노라.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믿되 삼위일체설을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복이 되리라. 실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을 수 없노라...(코란4:171).

코란에서 '성서의 백성들'은 유대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말인데 코란 4:171에서는 기독교인들을 일컫는 말이다. 코란 4:171의 주 내용은 성서의 백성들, 즉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것은 잘 못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최영길 이 '삼위일체'라고 번역한 아랍어 싄라싸툼(thalathatun)은 '셋'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영어 코란은 최영길이 '삼위일체'라고 번역한 '싄라싸

120 쇼카트 무케리.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이슬람연구소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43. 참조.

툰('thalathatun')을 'three'라고 번역하였다. 그리고 아랍어로 삼위일체는 타슬리쓰('tathlith')이다.

그리고 코란 4:171의 예수에 대하여 네 가지로 설명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알라의 사도라는 것이다.¹²¹ 셋째로는 그(알라)의 말씀으로 마리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최영길은 예수에 대한 세 번째 설명, 곧 예수는 알라의 '말씀'이라는 내용을 명쾌하게 번역하지 못했다. 원문은 예수가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부터 존재하여 온 알라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어 코란에는 그 부분을 "And His Word, Which He bestowed on Mary"라고 명쾌하게 번역하였다. 코란 본문은 요한복음 1:1-3, 14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다. 요한복음 1:1-13,14은 사도 요한이 예수를 '말씀'(Word)이라 소개하는 가운데 태초부터 창조주 되셨음을 증거하는 본문이다. 넷째는 알라로부터 나온 영이라는 것이다.

최영길이 "이(예수)는 주님의 영혼이었느니라"라고 번역하였는데, 그 '영혼'의 원어는 '영'이라는 뜻을 지닌 '루흐'(ruuh)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보다는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¹²² 성경에서 영과 영혼이라는 단어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코란 4:171은 성경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증거된 것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어 코란은 "a Spirit proceeding from Him"라고 명쾌하게 번역

121 최영길은 예수에 대한 두 번째 설명에서 원문에서는 '사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선지자'로 번역하였다.

122 이동주, "이슬람의 영사상" 『민속이슬람』, 한국이슬람연구소 위음 (서울: 에영커뮤니케이션, 2004) 38.

하였다.¹²³

코란 4:171은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별히 예수가 곧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가 마리아의 아들이고, 여러 선지자들 중의 하나로서 결코 성자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대하여 증거하는 코란의 다음 구절에 귀를 기울여 보자.

예수는 마리아 아들로써 선지자일 뿐 이는 이전에 지나간 선지자들과 같음이라. 그의 어머니는 진실하였으며, 그들은 매일 양식을 먹었노라. 하나님(알라)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가를 보고 그들이 어떻게 배반하는가를 보라. 일러 가로되,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 손실도 이익도 없는 것을 경배하느냐? 하나님(알라)은 모든 것을 들으시고 알고 계시니라(코란5:75,76).

무함마드는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가 볼 때 예수는 어느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매일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단순한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를 성자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심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알라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알라께서 그 사실을 자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함마드는 삼위 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히 육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아내를 들 수 있으며, 자녀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코란은 알라에게는 아내도 없고 자손도 없다는 사실을 보다 더 실감나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다.

123 *The Holy Quran, English Translation of the Meanings and Commentary*. Revised & Edited By The Presidency Of Islamic Researches, IFTA, Call and Guidance, 272.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음이라. 그분께는 배우자가 없는데 어떻게 자손이 있느냐?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심이라(코란 6:101, 최영길 역)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주님으로 아내도 그리고 자손도 두지 않으신 분이라 (코란72:3)

이제 코란이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코란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다. 한글 코란에서 ‘성령’으로 번역되고, 영어 코란에서 ‘the Holy Spirit’라고 번역되는 표현이 코란에 등장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첫째 알라가 예수를 성령으로 보호하였다는 증거를 들어 보자._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서를 주었고, 그를 이어 예언자들을 오게 하였으며, 마리아의 아들 예수에게 권능을 주어 성령으로 그를 보호케 하였노라. 너희들이 바라지 않는 한 선지자가 왔을 때, 너희들은 자태를 부리고 일부는 거짓을 일삼고 일부는 살인을 행한다 말이뇨?(코란 2:87)

우리가 위 구절(코란 2:87)만 언뜻 보면 코란의 성령이 성경의 성령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이슬람에는 기독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거룩한 영의 개념이 없다. 최영길은 코란 2:87에 나오는 성령, 곧 예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알라로부터 쓰임 받게 된 성령을 가브리엘 천사, 신약성서인 인질, 또는 살세포와 뼈등 형체가 형성되기 이전 예수의 영혼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¹²⁴ 알

124 『성 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26.

라는 성자와 성령이 없는 신이기 때문에, 성부도 아니고 따라서 인간과 접촉도 없다.¹²⁵ 이슬람의 영들은 모두 가브리엘 천사나 진(Zinn, Demon)과 같은 피조물들이다. 그러나 코란은 성경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성령 개념을 피조물인 영 개념으로 반역함으로써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 사용하였다(코란 2:87, 253; 5:113; 4:171; 21:91; 66:12).¹²⁶

b.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다(창세기1:26). 여기서 “형상”(image)이란 말과 “모양”(likeness)이란 말은 그 차이점이 없다. 히브리어에는 반복법이 흔한데, 이를테면 한 가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두 낱말을 사용한 것이다. 창세기 5:1과 9: 6 등의 인간창조에 대한 설명이 “모양”이라는 표현은 빠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되었다고만 소개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곧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擔持者, image-bearer)로 창조된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자가 된 것이다.¹²⁷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할 수가 없게 되었다. 아

125 이동주, “이슬람의 영사상” 『민속이슬람』, 38.

126 Ibid. 38.

127 존 H. 스택, 『구약신학』,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124.

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후, 그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소개하였다. 오직 사도 바울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 혹은 “모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칭한다(고린도후서 4:4; 골로새서 1:15; 빌립보서 2:6). 김세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독특한 그리스도관, 즉 형상-기독론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한다.¹²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심을 목격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대조하는 가운데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일컬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먼저 바울의 형상-기독론이 그의 아담-기독론의 근원이라는 김세윤의 설명을 들어보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통찰을 가지고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를 아담이라는 견지에서 생각하게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창세기 1:25-26). 하나님에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부활은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렸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종말의 아담, 곧 마지막 아담(고린도전서 15:45)으로 인식하고, 그의 독특한 (첫) 아담-마지막 아담 예표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로마서 5:12-21; 고린도전서 15:21-22; 42:49; 아마도 또한 빌립보서 2:6-11)...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거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아담-기독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단언하며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인성을 확인하는 것이다.¹²⁹

128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219-442.

그리고 김세윤은 바울의 형상-기독론이 그의 아담-기독론의 근원이 되었으며, 아담-기독론은 또한 변화-구원론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한다.¹³⁰ 텀브렐도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와 기능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 1:26에 나오는 인간의 완전한 전형이 되심을 강조한다.¹³¹ 여기서 김세윤이 주장하는 바울의 형상-기독론이 곧 그의 변화-기독론의 기초도 된다는 설명을 들어 보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또한 첫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회복한 마지막 아담이라는 개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바울로 하여금 구원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 받는다” 혹은 그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화한다”는 견지에서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로마서 8:29; 고린도전서 15:49; 고린도 후서 3:18).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서”와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는 말로 그의 독특한 “변화”-구원론을 표현할 때(빌립보서 3:20-21),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나타나시고 높임 받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눈에 그리고 있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는 고린도전서 15:42-54에서도 똑 같이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는 그는 이 “영광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낮은 몸”을 “육의 몸”이라고 부르며, 종말론적 구원을 우리가 첫 아담 곧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육의 몸”을 떠나, 마지막 아담 곧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과 “신령한 몸”을 획득하는(“지니는” 혹은 “입는”)것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한다. 이로부터 어떻게 아담-구원론 혹은 변화-구원론이 “옛사람을 벗고...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골로새서 3:9-10; 참고, 에베소4:22-24) 것이라는 개념으로 발전하는지를 보기란 어렵지 않다.¹³²

129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관점』, 280.

130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관점』, (서울: 두란노, 2002). 309.

131 윌리엄 J. 텀브렐, 『새 언약과 새 창조』,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220.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첫 아담과의 결속에서 벗어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함으로써, 우리가 마지막 아담 곧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다. 물론, 첫 아담이 상실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선택된 자들, 성령의 거듭난 자들에게서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완전한 광채를 발하게 되는 일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에 될 것이다(참조: 고린도전서 13:12).

그러나 코란은 아담 내외가 “알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증거하지 않고 있다. 코란의 아담은 알라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하는 자가 아니었다. 코란의 아담은 알라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도 그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었고, 그 형상과 모양을 다시 회복 할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해서, 코란의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은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코란을 기초로 하는 이슬람교도들 역시 성경의 아담의 후손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교도들 역시 첫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그들도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

132 Ibid. 280-281.

거듭난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도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째 아담이 상실하였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c.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음

모세는 하나님의 매일 매일의 창조 역사를 소개한 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4,18,21,25)”라는 말씀을 소개한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소개하였다(창세기 1:31). 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다른 날과 달리 ‘심히’ 좋다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고, 땅위의 동물들에게도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셨다.

성경은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1:31)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인간이 곧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임을 밝히고 있다. 존 H. 스택은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면류관이요, 머리라고 하였다.¹³³

그러나 코란은 성경처럼(창세기1:1-2:3) 매일 매일의 창조 역사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그리고 코란은 성경과 정 반대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33 존 H. 스택, 126.

실로 천지창조는 인간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것이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코란40:57)

여기서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이란 곧 천지창조 보다 인간의 창조를 더 위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둔 말임을 알 수가 있다.

d. 안식일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 칠일 쯤 안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아담이 안식일을 지켰는지에 관한 언급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내외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바가 성경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또한 아담이 안식일에 안식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안식하셨는데, 아담내외도 안식하였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칼빈의 설명을 들어 보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완성하신 천지창조와 안식에서 우리에게 안식의 원리를 보여주신다. 오직 제 칠 일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쉬셨는데(창세기 2:1-13), 그분의 모범에 의해 우리 또한 우리의 일을 쉬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의 안식을 찾으며 제 칠일의 이 안식을 간절하게 동경하게 하셨다.¹³⁴

존 머레이도 주님이 안식일을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사역 때 하신 패턴을 따라 옛세 동안 일하고 하루는 안식하라는 뜻이라고 한다.¹³⁵ 팔마 로버트슨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속에 있는 세 가지 규례로 안식일, 결혼, 노동을 제시하면서, “안식일을 복 주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창세기 2:3)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의 창조활동과 관련하여 안식을 “복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허공에다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복주셨다 함은 그의 창조에 대해서 특히 인간과 연관되어 있다. 예수님이 지적했듯이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생겨난 것이었다(마가복음 2:27). 그것이 창조 전체와 인간에게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셨다.¹³⁶

누구보다도 신약의 히브리서 저자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창조의 원리임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칠 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칠 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

134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양낙홍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83.

135 John Murray,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206-207.

136 팔마 로버트슨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5), 74.

으니(히브리서 4:3-5)

그러나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규범이 아니고 모세 때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독교 학자들이 있다. 그들에 따르면, 안식일은 모세 때 처음 만들어졌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안식일법도 다른 의식법과 함께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안식일 법은 제사와 의식법과 같이 모세에 의해 처음 재정되어 유대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용된 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폐지되고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신약의 성도들은 안식일법으로부터 자유하며 그것을 지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¹³⁷ 그런데 그러한 주장은 코란의 주장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코란은 안식일이 창조규범으로 재정된 것이 아니라, 모세 때 재정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 때 안식일이 재정되게 된 것은 모세 시절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선 아브라함이 그들과 어떻게 달랐는가에 대한 코란의 진술을 들어보자.

분명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범자였으니,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있지 아니 했노라. 그리하여 그는 그를 선택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은 현세에서 그에게 복을 주었고 또한 그는 선행하는 자 중에 있었나니 내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대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 가운데 있지 아니한 아브라함의 신앙과 올바른 길을 따르라 하였노라(코란 16:120-123).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크게 다른 점 때문에 모세를 통해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137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33.

그 안식일은 그것의 준수에 관하여 다투었던 백성들만을 위해 규정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부활의 날 그들이 달리한 것에 관하여 그들을 심판하시리라(코란 16:124)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다투었던 백성들이라 함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무슬림들은 토요일, 또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압둘라 유수프는 무슬림들이 금요일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유대인의 안식일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¹³⁸ 코란에는 안식일 계명이 모세와 더불어 주어졌음에 대하여 여러 곳에 소개되고 있다. 안식일을 위반한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 원숭이가 될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소개된 적도 있다.

너희 가운데 안식일을 위반한 자들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길 그대들은 원숭이가 되어 저주를 받을 것이라(코란 2:65).

코란에는 모세시절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지를 시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들에게 바다가 가까이 있는 그 고을에 관하여 물으라. 그들은 그들의 안식일 날 물고기가 그들에게로 와 물위에 나타나고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오지 아니하였더라. 이렇듯 하나님은 그들의 죄지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시험하였더라(코란7:163).

138 Ali, Abdallah Yousuf, *The Holy Qur'an/ Translation and Commnentary*, (New York: Tahrike Tarsile Qur'an, Inc. 1977), 689.

그러나 우리는 일부 기독교인들의 주장이나 코란의 주장과 달리 안식일이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일에 대하여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짐은 곧 아담에게 더 이상 안식이 없게 되었음을 의미하게 된다. 그 사탄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종말에 있을 온전한 안식,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완성으로서 새 창조 때에 있을 진정한 안식을 고대하는 의미로 지키도록 축복하셨다.¹³⁹ 본 단락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성경의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안식일이지만, 코란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e. 에덴동산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동방에 에덴동산을 창설하셨음에 대하여 구별하여 설명한다. 에덴이라는 히브리어가 ‘기쁨’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이 전원적인 기쁨과 안식의 모습을 그리기 위하여 의도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¹⁴⁰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

139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98.

140 존 H. 세일해머, 『“서술”로서 모세오경』, 김동진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4), 192.

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시고, 특별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그리고 그 동산에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는 네 강을 두셨다.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월라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부들라라는 향료와 홍옥과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수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¹⁴¹, 앗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창세기2:8-14). 여기서 우리는 존 H. 세일해머의 에덴동산에 대한 설명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이 땅들은 금과 보석이 풍부했고, 그 위치는 나중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더욱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에 대한 언급은 에덴동산과 약속의 땅의 일치성과 연결될 수 있다.... 동산의 모양 및 역할과 출애굽기 25-27에서의 성막의 그것 사이의 밀접한 유사성이다.... 동산에 의해 둘러싸인 땅 전체를 통하여 발견되는 금과 보석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것이다... 학개 선지자는 나중에 새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그 성전의 금과 값진 보화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선포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묘사 또한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는 금과 값진 보석을 강조한다(계시록 21:18-19)¹⁴²

그러나 코란은 에덴동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최영길은 아담이 처음 거주하였던 동산이라는 표현을 천국이라는 말로 번역하면서(코

141 '티그리스'라는 이름이 우리 말 개역 성경에는 '히테겔'이라고 소개되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 원음에 가깝게 옮겨 적은 것이다. 여기서 히테겔에서 첫 자 '히'는 정관사이고, '데겔'이 곧 티그리스가 된다.

142 존 H. 세일해머, 194-195.

란2:35),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아담과 이브가 거주한 에덴동산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아라파트 동산이 아닌가 하는 학자들의 견해로 보아서는 지상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다음 절(코란2:36)에서는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에덴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보아서는 지상이 아닌 다른 곳에 에덴동산이 있었던 곳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다.¹⁴³

그러나 대부분의 영어 코란은 모두 다 동산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이슬람국제출판국에서 번역한 한글 코란에서도 동산이라고 번역하였다. 어쨌든, 코란은 에덴동산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특별히 그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즉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창세기2:9)에 대하여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다. 코란은 생명나무에 대하여 전혀 소개하지 않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서는 왜곡하여 소개하였다.

f. 생명나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에 각종 나무를 두시고,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구별하여 두셨다. 그 점에 대하여 성경의 증거를 들어보자.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

143 『성꾸란 의미의 한국번역』, 13.

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창세기2:9, 표준새번역)

생명나무가 그의 열매 자체에 어떤 신통력을 가지고 있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 생명나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매개체로 하여 아담과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다. 생명은 그 나무를 따 먹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있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나무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키드너가 말한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물리적 매체로”¹⁴⁴ 표현한 것이다. 칼빈은 그 생명나무가 실재 나무였으나 그 효과는 오늘날 교회의 성례전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¹⁴⁵ 물론 세례를 줄 때, 그 물은 평범한 물이고, 성찬 때 떡과 포도주도 평범한 떡과 포도주인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도 평범한 열매일 뿐이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것처럼, 생명나무의 과실을 믿음으로 따 먹게 되므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¹⁴⁶ 생명나무와 오늘날의 성찬의 관련성에 대하여 이한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예로 오늘날 교회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

144 Derek Kidner, *Genesis in Tyndale O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1967), 63.

145 존 칼빈, 『칼빈주석: 창세기 1권』, 존 칼빈성경주석편찬위원회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2), 89.

146 김서택,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습』 (서울: 홍성사, 1997), 376.

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같이 그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원천임을 확인하게 되며 하나님은 인간이 생명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며 그와 교제함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는 것이다. 물론 과일 자체가 생명을 준 것은 아니다. 그 과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생명이 가능성을 상징할 뿐이다.¹⁴⁷

코란의 아담에게는 생명나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코란의 아담의 생명은 유한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g. 금단의 열매

성경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창세기2:17상)는 말씀을 받았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그와 같은 말씀을 받지 않고, 그와 엇비슷한 말씀을 받았다. 그렇다면 코란의 아담은 어떤 말씀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 “아담아 아내와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그대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은 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코란2:35)

코란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this tree)에 가까이 하지 말라(코란2:35; 7:19중)는 명령만을 받았다.¹⁴⁸ 그렇다면 왜

147 이한영, 『구약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 2004), 56.

코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나무'로 바꾸었을까? 코란학자들은 "이 나무"가 창세기 내용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할 때, 그 나무 안에 악의 요소가 있고, 그 악은 사람이 먹으면 죽음을 유발시키는 독이 된다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가운데, 에덴동산에 선악과와 같은 나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¹⁴⁹

우리는 선악과 자체가 유독하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자신의 지각을 신뢰하여 지나친 지체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나아가 선과 악을 스스로 중재하여 판단하는 존재로 자처하는 것을 금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만드시고 금지하셨다고 주장한다.¹⁵⁰ 우리는 선악과와 마찬가지로 생명나무의 열매도(창세기2:9) 불멸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열매의 물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었다고 믿지 않는다.¹⁵¹ 하나님께서는 동산 가운데 있는 두 나무들에게 성례적인 성질과 의의를 부여하셨던 것이다.¹⁵²

우리는 선악과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헤아려야 하겠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는 하나님 자신의 주권 문제이고, 아담이 그 과실을 먹게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을 침범한

148 성경에서는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이 한 번만(창세기 2:17) 소개되지만, 코란에서는 이 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이 코란에서는 두 번(코란 2:35과 코란7:19) 소개된다.

149 최영길, 『이슬람문화』 (서울: 도서출판 엘림, 199). 187.

150 존 칼빈, 『칼빈성경주석: 창세기 1권』, 90.

151 코란에는 '생명나무'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152 C. F. 카일, F. 델리취, 『창세기』,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화출판사, 1984), 92.

문제라는 것이다.¹⁵³ 하나님께 솔로몬이 자신을 스스로 선과 악을 중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로 자처하지 않고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할 때, 그에게 기뻐 응답하여 주셨다(열왕기상3:9). 이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전도서12:14).

그러나 코란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 선악과에 대하여 시비를 건 다음, 그 선악과 자체를 삭제하고 말았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나무’로 대체하였다. 놀랍게도, 코란이 가감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경의 뱀이 가감하였던 말씀과 똑 같다. 그 점에 대하여 뒤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h. 금단의 열매 메시지 최초 수령자

성경에 따르면,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는 아담 혼자였다(창세기 2:17). 그때까지 아담의 아내가 창조되지 않아 아담 혼자만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코란에 따르면,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함께 들었다. 아랍어 동사에는 히브리어 동사와 마찬가지로 수의 구별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알라)께서 그 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을 하였을 때 사용된 동사가 복수 동사가 사용되었다. 코란7:19-23을 복수 명령형을 염두에 두고 번역하

153 이한영, 59.

면 다음과 같다.

아담아, 너와 네 아내가 동산에 거하며, 너희들은 원하는 대로 먹으라. 그러나 너희는 이 나무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죄인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 이 때 사탄이 그 둘에게 속삭여 유혹하였다.... 이렇게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가 우리 영혼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당신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잃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코란7:19-23, 필자 사역).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경고, 즉 이른바 금단의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은 한번만 소개하고 있지만(창세기 2:17), 코란은 두 번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코란 2:35, 7:19). 그리고 코란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그 과실을 함께 따 먹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i. 죽음의 경고

코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 네가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창세기2:17하)는 말씀을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너희는 죄인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코란7:19하)라고 수정했다. 다시 말해서, 코란은 창세기 2:17을 두 가지 면에서 수정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나무’로 수정한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나무를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는 내용을 ‘죄인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로 수정한 것이다.

성경에서 최초로 뱀에 의해서 수정되었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2:17이

다. 그런데 바로 그 같은 말씀이 코란에 의해서 다시 수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죽음에 대하여 경고한 말씀도 창세기 2:17이요, 뱀이 아담 내외로 하여금 무시하도록 하였던 말씀도 창세기 2:17이다. 그런데 코란이 바로 그 창세기 2:17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뱀과 코란의 알라가 창세기 2:17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있어서 일치성을 갖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j. 하나님의 언약

성경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그 과실을 따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에 대한 다양한 대답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 질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 내외를 창조하셨는가라는 질문이다. 우리는 다음 구절을 중심으로 그 답을 찾아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하시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세기 1:26-28).

창세기 1장 26-28의 맥락과 관련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

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우리는 말 “다스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다’(“통치하다”, “다스리다”)가 그 밖의 다른 구약 본문에서 왕적 기능의 수행과 연관되어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cf. 왕상5:24; 이사야14:6; 에스겔34:4; 시편72:8; 110:2). 그러므로 창세기 1장은 분명히 왕으로서의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존엄성과 역할을 제시하는 표현을 통해 인간이 육일 동안의 창조사역의 절정이 됨을 증거한다.¹⁵⁴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여러 목적들 중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다스림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에덴동산의 들짐승들과 새들에게 각각 이름을 구별하여 주는 가운데, 그들의 주인이 되어줌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특별히 식물들 중에서 선악과만큼은 따 먹지 말도록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 나무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제 여기서 앞에서 제기하였던 질문을 생각하여 보자.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그 이유는 에덴동산의 진정한 왕은 아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임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금지하는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는 영역을 하나님 자신의 고유 영역으로 가두어 두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지체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살펴보았다.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언약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성경에서

154 윌리엄 J. 덤브렐, 220.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노릇해주겠다는 약속이다(창세기17:7, 요한계시록21:7 참조).¹⁵⁵ 성경은 그 언약 개념을 때로는 왕과 백성의 그림언어로, 때로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림 언어로, 때로는 목자와 양의 그림언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⁵⁶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은 노아와 더불어 처음 사용되었다.¹⁵⁷ 그런데, 그 언약 개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 곧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하셨던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¹⁵⁸

155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주가 ‘엘로힘’(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창세기 2장(4절부터)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구체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사실 ‘여호와’ 또는 ‘야훼’로 소개되는 히브리어는 네 자음(YHWH)만 기록되어 있고, 그 자음에 어떤 모음부호를 붙여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만으로 구성되고 모음은 부호일 뿐이다.) 유대인들이 그 모음 부호를 모르게 된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말라는 십계명의 제 3계명을 지키다가 발생한 것이다. 팔마 로버트슨(Palmer Rorbertson)은 그 이름을 “언약의 주님”(Covenant Lord, 또는 the Lord of Covenant)라고 일컫기를 제안한다. 그 명칭은 하나님을 가르키는 구체적인 이름의 실제적인 의의를 제시한다고 그는 믿고 있다: 팔마 로버트슨,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스심, 2002), 27. 참조.

156 김세윤,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67.

157 코란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담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코란20:115). 그러나 코란은 그 언약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였을 뿐, 언약 개념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158 개혁주의 신학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일컫는다. Charles Hodge를 비롯하여, Robert L. Dabney, William G.T. Shedd, Geerhardus Vos, Louis Brkhof 등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Meredith Kline과 Palmer Rorbetson이다. Kline과 Rorbertson은 “창조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몇몇 개혁주의자들이 인간타락이전의 행위언약이란 개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한 자들이 있다. G. C. Berkouwer, Herman Hoeksma, John Murray, 그리고 Anthony A. Hoeksma 이다. Anthony A. Hoeksma는 인간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다루신 일을 두고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첫째, 하나님의 아담과의 교제는 아담의 순종에만 기초한 것 보다는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이다. 둘째, 성경이 이 협정(창세기2:17)을 언약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셋째, 언약의 서약이나 언약의 제기의식을 표현하는 어떤 표시도 없다. 넷째, 성경에 나타난 언약이란 언제나 구속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우리는 사탄이 코란을 통해서 첫 번째로 공격했던 성경말씀, 곧 창세기 2:16,17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그의 언약 백성 삼고 계심을 증거하는 책이다. 그러나 코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을 삼는 일에 대하여 방해하는 책이다. 코란의 아담은 언약의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됨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였다.

k. 동물들의 이름

성경의 아담이 동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창세기1:26-28). 그리고 그의 다스림은 동물들의 이름들을 지어줌으로 구체화되었다. 게르라드 반 그로닝겐은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모습 속에서 아담이 자신에게 주어진 왕적 명령을 행하는 한 예가 발견된다(창세기 2:19)고 하였다.¹⁵⁹ 언뜻 보면, 코란의 아담도 성경의 아담처럼 지상에 대리인으로 세움

203-209 참조.

S.G.De Graaf는 그의 책 '약속과 구원'에서 창세기 2장에 언약 개념이 없다는 주장은 심히 잘못된 견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언약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이 발견된다. 더욱이 분명한 것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엘로힘)으로 계시되었지만, 2장에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이 여호와(야훼)로 계시되었는데, 그는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하나님이다." : S .G. De. 그라프, 『약속과 구원 제 1권, 천지창조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박권섭 역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86), 39 참조.

159 게르라드 반 그로닝겐, 『구약의 메시아 사상』, 유재원, 료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122.,

을 받아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보인다(코란2:30-33).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코란의 동물들의 이름은 아담에 의해서 지어졌던 것이 아니라, 알라에 의해서 지어졌다. 다만 코란의 아담은 천사들과 더불어 각 동물의 이름을 알아 맞추는 대결에 참여하여, 그 이름들을 모두 다 알아 맞추었을 뿐이다. 그런데 코란의 아담이 그렇게 그들의 이름을 다 알았었던 것은 알라가 천사들 몰래 각 동물의 이름 하나 하나를 미리 알려 주어, 그 이름들을 모두 다 외웠기 때문이었다(코란2:30-33). 그 점에 대하여 코란의 증거를 직접 들어 보자.

이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실로 나는 너희들(천사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노라. 아담에게 모든 것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후 천사들 앞에 제시하며 말씀하시길 만일 너희(천사들)가 옳다면, 너희가 이것들의 이름을 말해보라 하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는 당신이 가르쳐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나니, 실로 당신은 아심과 지혜로 충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아담아 그들에게 이름들을 일러주라 하시니, 그가 그 이름들을 일러주매..."(코란2:30하-33상).

코란의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다. 알라는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알아 맞추도록 적극 도와주는 가운데, 아담의 천사에 대한 우월성을 적극 드러내고 있다. 그리하여 천사들로 하여금 아담에게 앞드려 경배하도록 한다. 그러자 천사들은 알라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담에게 경배한다(코란2:33, 34상). 그러나 '이블리스'만은 그의 교만으로 그 명령에 거절한다(코란2:34하). 이블리스가 알라와 코란의 아담 사이에 이른바 시험지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감지하였던 것이다.¹⁶⁰ 시험지만 유출된 것이

아니라 답안지까지 유출되었던 것이다.¹⁶¹

성경의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한 분별력과 창의력을 발휘하였다. 만일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닥치는 대로 지어버렸다면 자기 자신이 무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도무지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 많은 동물들을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자신이 그들의 주인임을 입증하게 되었다.¹⁶² 그러나 우리는 코란의 아담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다.

1. 아담의 아내 창조

160 코란은 아담에 대한 복종을 거부한 자를 '이블리스'라고 소개한다. 그리고 아담을 유혹한 자를 '사탄'(앗샤이따안)이라고 구별하여 부른다. 이런 구별은 이 절에서 만이 아니라, 코란 전체를 통해 관련된 모든 절에서 지켜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슬람국제출판국이 출판한 코란 한글번역본 7:23 주석에서는 사탄과 이블리스가 별개의 두 인물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주석을 발전시킨다. "아담을 유혹하여 빗나게 하려 했던 '사탄'(앗샤이따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령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악인으로서 인간 중에 나타나는 악마이며... 이블리스의 대항자이다. 그는 아담... 가족의 일원이었다. 성예언자는 그의 이름을 하리드(타르미드, '타프시르' 장)였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악령이 아니라 인간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이다." 『코란 한글번역본』. (서울: 이슬람국제출판국, 1988), 296.

161 '이블리스'가 아담에게 왜 불순종하였는지 알라로부터 추궁을 받게 되자, 아담은 흠으로 창조되었지만, 자신은 불로 창조되었으니 자신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그는 낙원으로부터 알라의 추방선언을 듣게 된다. '이블리스'는 그의 심판을 마지막 때로 유예하여 줄 것을 간구하여 유예를 얻게 되지만, 낙원으로부터 이 땅으로 추방을 당한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인류의 유혹자로 살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알라는 그와 그를 따르는 이들로 지옥을 채우리라고 답한다(코란38:73-38, 7:12-18; 17:61-65).

162 C. F. 카일, F. 델리취, 95.

성경은 아담의 아내 창조에 대하여 자세하 다루고 있다. 아담이 먼저 창조된 후, 그는 혼자서 그의 다스림을 받게 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해 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가운데 독 처하고 있던 모습을 보고 민망하게 여기셨다. 그리하여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그를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그 점에 대하여 성경의 증거를 직접 들어 보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창세기2:21-22).

카일, 텔리취는 여자가 땅의 흙으로 창조되지 않고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창조된 것은 남자와의 분리할 수 없는 생명의 연합과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¹⁶³ ‘돕는 배필’(히브리어, ‘아자르’)라는 말이 언뜻 보면,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위성을 지지해주는 말인 것 같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돕는 배필’(아자르)로 자주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사야 30:5; 에스겔12:14; 호세아13:9).¹⁶⁴

그러나 코란은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위성을 공공연하게 지지하고 있다. 이정순은 그 점에 대하여 9가지를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사항들을 몇 가지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남자는 여자의 상위(上位)에 있다는 점(코란 2:228), 남녀의 상속액의 차이문제(코란4:11), 일부다처제도(코란4:3), 남자가

163 Ibid. 96.

164 고든 J. 웬함, 176.

여자에 대하여 쉽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코란65:1,2), 여성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옷으로 가려야 하는 문제(코란33:59) 등이다.¹⁶⁵

그러나 코란은 성경과 달리, 아담의 아내 창조에 대한 기사를 성경에 처럼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담의 아내가 그의 남편 아담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두 번에 걸쳐 확실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증거를 들어 보자.

사람들이여, 주님을 공경하라. 한 몸에서 너희를 창조하사, 그로부터 배우자를 두어 그로 하여금 남녀가 풍성히 번성토록 하였노라....(코란4:1)

하나님은 한 인간으로부터 너희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신 후....(코란39:6상)

코란 4: 1의 ‘한 몸’과 코란 39: 6의 ‘한 인간’의 아랍어 원어는 나프스 와히다(nafs waaHida)는 똑 같다. 그 원어를 직역하면, ‘한 영혼’(one soul)이 되는데 문맥적으로 볼 때 아담을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코란 4: 1과 코란 39: 6의 ‘그로부터’의 원어는 ‘민하’(minha)인데, 그 뜻은 ‘그것으로부터’이다. ‘아담’이라는 남성 명사 대신에 ‘한 영혼’이라는 여성 명사가 사용되어 ‘그것(한 영혼)으로부터’가 되었다. 그러나 최영길은 ‘그것으로부터’의 ‘그것’이 ‘한 영혼’을 지시하는 대명사라는 점을 무시한 가운데, ‘그것’은 “성경의 해설에서 말하는 아담의 일부, 즉 갈비뼈로부터” 라고 추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시도했다.¹⁶⁶ 그러나 그 주장

165 이정순, 『무슬림 여성과 베일』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2002), 32-35.

166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130.

은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전혀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코란은 성경처럼 아담의 아내가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되었다는 증거를 하지 않는다.

m. 아담의 사랑 고백

우리는 성경의 아담이 낮잠에서 깨어 난후, 그 앞에 다가 온 자를 향한 그의 고백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 표준 새 번역으로 그의 고백을 들어 보자.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
남자에게 취하여졌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창세기2:23, 표준새번역).

먼저 ‘이제야’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이제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할파암’의 문자적인 뜻은 ‘마침내’(at last)라는 뜻이다.¹⁶⁷ 영어성경 NIV등은 ‘now’라고 번역하였지만, 한글개역성경이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은 것은 심히 아쉬운 일이다. 아담은 에덴동산의 모든 동물들이 암수 짝을 이루어 자기에게 나아와 각각 이름을 부여받아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기의 짝이 없음을 느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때의 아담의 심정이 어떠했었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함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

167 최종태, 『예언자에게 물어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3.

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세기2:18)라는 말씀을 통해서 족히 짐작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의 마음을 대변하셨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성경은 아담이 그의 배우자를 구체적으로 찾고 있었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러나 사람에게서는 자기와 같은 배필을 발견하지 못하였더니(창세기2:20, 유재원 역)¹⁶⁸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짝을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졌던 것 같다. 우리는 그때의 아담의 처지를 부부 초청 파티를 개최해 놓고 정작 본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없는 주인과 같았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마침내 아담이 그의 짝을 발견하고 심히 기뻐하였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 남자에게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칭하리라”라고 고백한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자. 언뜻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뼈와 살은 서로 공유하지만, 이름만큼은 공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이고 여자는 ‘이쉬’이다. 여자 ‘이쉬’는 남자 ‘이쉬’에 여성 접미어 ‘아’가 붙은 것이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각각의 이름을 구별하여 갖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사용하되, 남자와 여자로 그 성만 구별한다는 뜻이다.

창세기2:23을 좀 더 쉽고 짧게 의역하자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

168 유재원, 25.

람! 뼈도 내 뼈, 살도 내 살, 이름도 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아담은 동물들에게 각각 이름을 구비하여 주었을 때, 암컷과 수컷이 각각의 이름을 부여해 주지 않고 공유하도록 했던 것처럼, 그는 그의 아내와 이름을 공유 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 됨을 누리게 되었다. 매튜 헨리는 그 점에 대하여, “이는 내가 바라던 바요, 아무 피조물도 나에게 줄 수 없었던 내 배필이로다.”라고 주석했다.¹⁶⁹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이제야 나타났구나. 뼈도 내 뼈요, 살도 내 살, 이름도 내 이름(남자에게 취하여졌으니, 여자라 칭하리라)”(창세기2:23)라고 고백하지 않았다. 이슬람에 속한 부부들 가운데 아내가 그의 남편으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사례가 심히 많은 것도 그 원인이 바로 코란의 아담에 기초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다.

n. 둘이 하나가 됨

우리는 앞에서 성경의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남긴 유명한 사랑의 고백을 살펴보았다. 이제 그 고백에 기초하여 탄생된 다음과 같은 위대한 결혼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찌로다.

169 매튜 헨리, 『창세기』,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교문사, 1974), 89.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창세기 3:24,25)

위 메시지의 핵심은 떠남과 한 몸 이룸이다. 그렇다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각각 먼저 누구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부모로부터 떠나라는 것이다. 아담은 인류의 첫 조상이기에, 그의 육신의 부모가 없다. 그 점에 있어서는 그의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혼 메시지는 아담의 후손들 까지도 염두에 두고 선포된 메시지이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개체적으로는 분명히 둘이지만, 그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이다.¹⁷⁰ 한 몸을 이루게 된 아담 내외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후, 그의 독처함을 인하여 안타까워하신 후, 그를 위하여 그의 아내를 마련하여 주셨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어 기뻐하는 모습을 인하여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엿 볼 수가 있다. 한 몸을 이루게 된 아담 내외야말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극치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그의 아내와 한 몸이라는 위대한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코란은 일부사처제도를 허락하였고,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12명의 아내까지 가졌던 것이다.

170 김정주는 히브리어 ‘에헤드’와 ‘야히드’를 구별하였다. ‘야히드’는 창세기22:2, 스가랴 12:10에서처럼 ‘독자’를 위한 개념으로써 단일성을 나타내는 ‘하나’이다. 그러나 ‘에헤드’는 에스겔37:17의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될 때, 또는 남자와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때 사용되는 복합적인 ‘하나’임을 잘 구별하여 주었다: 김정주, 『바울의 성령 이해』,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27. 참조.

B. 아담을 죽이기 위한 사탄의 유혹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내외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 먹지 말 것에 대하여 한 차례 증거하고 있다(창세기 2:17). 그런데 코란은 그 점에 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증거하고 있다(코란2: 35; 7:19; 20:115).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성경의 아담이 뱀을 통하여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코란의 아담도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다. 그리고 성경의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넘어졌던 것처럼 코란의 아담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다. 그러나 그 유혹의 내용은 다르다.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유혹에 대한 기사에 있어서 차이점은 크게 8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다.

a. 유혹자의 정체

성경에 따르면, 뱀이 아담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던졌다(창세기 3:1). 그 질문을 받고난 아담의 아내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답한다. 그러자 뱀은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답을 한다. 성경은 아담의 아내가 뱀에게 유혹을 받게 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기에 앞서서 뱀이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하였다고 먼저 설명하고 있다(창세기3:1).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큰 모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에서는 에덴동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제는 그 피조물들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한 들짐승이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교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룸’인데 ‘벌거벗은’, ‘간교한’, ‘지혜로운’ 등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 유재원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하여 “간교한”이라는 말 대신에 “지혜로운”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선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간교하게 지을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이 간교한 자연 본성의 원인이 된다. 둘째, 뱀은 간교한 본성 자체로 인간을 타락시킨 것이 아니고 단지 사탄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LXX의 ‘프로니모스, 곧 ‘지혜로왔다’란 번역과 마태복음 10:16의 예수님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등이다. 본문은 에덴동산의 자연물에 대한 악의적 편견 없는 객관적 해석이며 자연물들의 타락

이전의 본능을 소개한다.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킴에 있어서 들짐승 중 가장 지혜로운 존재를 선택하였다.¹⁷¹

뱀에 대하여 “간교한”이라는 수식어보다는 “영리한”이라는 수식어가 더 적격한 것이 분명하다. 유재원의 지적처럼, 에덴동산의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영리한 뱀이 간교하게 되어 아담의 아내를 유혹하게 된 것은 그의 배후세력 때문이었다. 창세기는 그 배후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배후세력이 곧 마귀라고 밝히셨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증거를 들어보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본성대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됴이니라(요한복음8:31,40,44)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셨던 말씀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그를 인하여 몹시 마음 불편해하며 어떻게든지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끝내는 잡아 죽였다. 예수께서 “저(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바로 아담의 아내에게 찾아 와서 유혹하였던 뱀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부르는 표현 역시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뱀의 거짓말, 즉 “너희

171 유재원, 31.

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를 상기시켜 준다.¹⁷² 예수께서는 뱀을 마귀의 대변자로 보신 것이다.¹⁷³ 사도 요한도 그의 계시록에서 창세기 3장의 뱀과 사탄을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것으로 본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땅을 피는 자라.(요한계시록20:2)
그(천사)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사탄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요한계시록20:2)

뱀 자체가 마귀, 또는 사탄은 아니었지만, 뱀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기에¹⁷⁴, 뱀을 마귀 또는 사탄과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코란에는 그 뱀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코란은 아담 내외를 유혹하는 자를 뱀이라고 하지 않고, ‘사탄’(앗샤이따안)이라고 다음과 같이 세 곳에 걸쳐 직접적으로 일컫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 “아담아, 아내와 함께 천국에 거주하며, 그대들이 원하는 양식을 먹되, 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죄지은 자 가운데 있게 되니라.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코란2:35,36)

이 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여 유혹하고 숨겨진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드러내며 “그대의 주님께서 이 나무를 금기함은 너희가 천사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함이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함이라” 말하며 유혹하였더라.

172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221.

173 FF. 브루스, 『요한복음』, 서문강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0) 356.

174 사단은 짐승이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한다. 사단은 당나귀를 통해서 발람 선지자의 길을 막기도 하였다(민수기 22장). 다윗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역대상 21:1).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여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았다(마태복음 16:23).

(코란7:20)

그러나 사탄이 그에게 악한 제안을 속삭였음이라. 그는 말하기를, “오 아담이여, 내가 너를 영원의 나무와 결코 망하지 않는 왕국으로 인도하리까?”라고 하였노라.(코란20:121,이슬람국제출판국 역)¹⁷⁵

b. 유혹의 시기

성경은 아담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금단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난(창세기 2:17) 다음, 얼마 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에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았는지(창세기 3:6)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일단, 여섯째 날, 즉 아담내외가 창조된 날 곧 바로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모세가 여섯째 날의 창조 기사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일곱째 날에도 아담 내외가 유혹을 받았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만일에 아담 내외가 바로 그날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다더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안식하실 수가 없었음이 자명하다.

우리는 성경의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의 기간을 보낸 후에 그 열매를 따 먹게 하는 유혹을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코란은 그 점에

¹⁷⁵ ‘성꾸란’에 의하면, 코란20:120절이다. 이슬람국제출판국이 번역한 코란과 최영길이 번역한 코란과의 한 절 차이가 나는 것은, 코란 매장 첫 구절, 즉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알라의 이름으로”를 1절로 일컫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이다.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전에¹⁷⁶ 알라는 아담에게 언약을 맺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잊었더라. 그러나 그에게서 고의성은 발견하지 못했더라(코란20:115, 필자 번역).¹⁷⁷

코란의 아담은 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 난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다 보니 그 경고 내용을 잊어먹었다. 그래서 코란은 아담내외가 그 과실을 따 먹는데 있어서 고의성이 없었음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난 후의 코란의 아담과 성경의 아담에게는 어느 정도의 공통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차이점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 점에 대하여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자.

c. 유혹자의 거짓된 질문

성경의 뱀은 아담을 거짓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유혹하기 시작하였다. 거짓된 질문이란 곧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세기 3:1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 내외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적이 없다. 언약을 알게 하는

176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용어는 아담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노아와 함께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란은 알라의 언약이라는 말이 아담과 더불어 사용되고 있다. 코란 20:115에서처럼 금단의 열매를 통하여 알라가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소개되고 있다. 그러나 코란에는 언약 개념이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177 최영길은 ‘전에’(min qabl)를 ‘오래 전에’라고 강조하여 번역하였다.

나무의 과실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한영은 그 거짓된 질문 속에 담긴 마귀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하였다.

“참으로”라는 부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 참으로 먹지 말라 했는가?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세우신 유한적 한계들을 과연 그의 사랑을 반영하는지 의심을 부여한다. 왜 우리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을 먹을 수 없는가... 이러한 존재론적 질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며 그에 대한 불신앙을 조장한다. 그러한 질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이다.¹⁷⁸

그러나 코란의 아담의 아내는 성경의 아담의 아내처럼 거짓된 질문을 받지 않았다. 코란의 아담의 아내가 아담과 함께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의 아담의 아내처럼 사탄으로부터 거짓된 질문을 받지 않았다.

d. 아담의 아내의 하나님 말씀 왜곡

성경의 아담의 아내는 뱀으로부터 거짓된 질문, 곧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세기 3:1하)라는 질문을 받고 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왜곡하기 시작한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

178 이한영, 62.

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창세기 3:2-3).

하나님은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만 하셨다. 그리고 그 과일을 먹으면 정녕 죽을 거라고 경고하셨다(창세기 2:17). 그러나 성경의 아담의 아내는 뱀의 질문을 받고 난 다음,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과장하여 대답하였다.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세기 2:17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약화시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대답하였다.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의 왜곡사건이 아담의 아내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의 아내는 성경의 아담의 아내처럼 사탄으로부터 먼저 유혹을 받지도 않았고, 하나님(알라)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았다.

e.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유혹

성경의 아담의 아내는 뱀의 유혹 작전에 말려들기 시작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유혹 작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시작되었다(창세기 3:1). 그리하여 아담의 아내까지도 그 왜곡 사건에 주범이 되도록 하였다. 마침내, 뱀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세기 2:17)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아담 내외)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왜곡하여 아담을 유혹하였다. 코란의 아담 내외도 그와 엇비슷한 유혹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

이 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여 유혹하고...그대의 주님께서 이 나무를 금기함은 너희가 천사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함이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함이라 말하며 유혹하였더라. 또는 그는 맹세하며 그들에게 그들의 진실한 조언자라 하더라. 이렇게 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코란 7:20-22)?

그러나 사탄이 아담아 내가 너를 영생의 나무와 불멸의 왕국으로 안내하여 주리요 라고 속삭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으매...(코란 20:120-121상)

언뜻 보면, 성경의 아담의 아내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된 것과 코란의 아담내외가 사탄에게 유혹받아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된 내용은 같은 것 같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르다. 성경의 아담 내외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이요, 코란의 아담 내외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어야 천사처럼 영생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아담내외는 처음부터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 먹는 가운데 무한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창조되었고, 코란의 아담내외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부여받지 못한 가운데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의 아담내외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세기 3:4하)라는 유혹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f.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

성경의 아담의 아내는 뱀의 유혹 작전에 말려들다 보니, 그와 그의 남편이 선악과만 따 먹게 되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

다는 유혹을 다음과 같이 받게 되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세기 3: 5).

사단이 인류를 유혹하였던 것은 선악과만 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라는 거짓된 약속이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내외는 사탄으로부터 그 정도의 거짓된 약속까지 제시받지는 않았다. 그 점에 대해서 앞에서 잠시 살펴보았지만, 고작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되면, 천사처럼 되고, 불멸의 왕국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유혹받았다.

이 때 사탄이 그들에게 속삭여 유혹하고...그대의 주님께서 이 나무를 금기함은 너희가 천사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함이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함이라 말하며 유혹하였더라. 또는 그는 맹세하며 그 들에게 그들의 진실한 조인자라 하더라. 이렇게 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코란 7:20-22)?

그러나 사탄이 아담아 내가 너를 영생의 나무와 불멸의 왕국으로 인도하여 주리요 라고 속삭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먹으매...(코란 20:120-121상)

g. 감성과 이성을 통한 유혹

성경의 아담의 아내는 뱀의 유혹 작전에 말려들다 보니, 그 금단의 열매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 열매가 아담의 아내에게 어떻게 보이기

시작하였는지 다음 증거를 들어 보자.

여자가 그 나무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창세기 3: 6).

“여가가 그 나무를... 보암직도 하고”라 번역은 “나무가 여자의 보기에 좋았더라”고 번역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문장은 창세기 1장에 여러 차례 등장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대조가 된다는 것이다.¹⁷⁹ 하나님께 사용되었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표현이 이제 여자에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에덴동산에서 아담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악과를 바라보지 않고, 뱀이 심어준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 과실은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아담의 아내는 뱀의 거짓된 질문과 논리적 설명에 따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순종하기 보다는 뱀의 말에 더욱 신뢰를 하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아담의 아내에게 역사했던 뱀이 지금도 아담내외의 후손 된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요한일서 2:16)

사도 요한에 의하면, 아담의 아내를 유혹했던 뱀의 배후 세력과 지금 이 세상의 배후 세력이 같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먹음직도 하고’를 ‘육신

179 존 H. 세일해머, 202.

의 정욕'으로, '보암직도 하고'를 '안목의 정욕으로', '지혜롭게 하고'를 '이생의 자랑'으로 설명하였다. 우리가 지금도 느끼는 대로, 보이는 대로, 논리적인 대로 살게 되면, 곧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 나의 보는 것, 나의 논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되며 그 말씀으로부터 출발할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의 아내는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되는 과정에서 성경의 아담의 아내처럼 감성과 이성을 통한 유혹을 받았다는 언급이 코란에 없다.

h. 아담의 유한성

성경의 아담내외는 뱀으로부터 금단의 열매를 따 먹어도,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뱀은 아담 내외가 처음부터 무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성경의 아담 내외는 그들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생명나무 과실을 언제나 따 먹을 수 있었고, 그 생명나무와 더불어 영생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그러나 아담 내외가 과연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 먹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과 더불어 추측건대, 아담 내외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않았다.

그러나 코란에는 생명나무가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고, 금단의 열매만

존재한다. 그런데 코란의 사탄은 아담내외에게 그들이 그 금단의 열매를 따 먹지 않고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그들에게 그 열매를 꼭 따 먹어야 한다고 유혹하였다. 다시 말해서, 코란의 사탄의 설명에 근거하여 보면, 코란의 아담은 성경의 아담과 달리 유한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코란의 두 구절을 통하여 그 점을 직접 확인하여 보자.

그대의 주님께서 이 나무를 금기함은 너희가 천사가 되지 아니 하도록 함이거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함이라” 말하며 유혹하였더라(코란7:20).

그러나 사탄이 그에게 악한 제안을 속삭였음이라. 그는 말하기를, “오 아담이여, 내가 너를 영원의 나무와 결코 망하지 않는 왕국으로 인도하리까?”라고 하였노라(코란20:121, 이슬람국제출판국 역).

코란의 사탄에 의하면, 천사는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아담내외는 유한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다. 코란의 사탄은 그 나무를 곧 영원의 나무라고까지 설명하는 가운데 아담내외로 하여금 그 나무의 과실을 따 먹도록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코란이 아담과 그 후손들의 죽음을 선악과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담의 유한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코란이 성경을 왜곡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겠다.

C.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죽게 된 아담

성경의 아담 내외는 하나님께로부터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그 과실을 따 먹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는가? 아니면, 사탄의 말대로 죽지 않았는가? 제 II 장 개혁주의 부활론에 기초하여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는 아담의 죽음과 부활을 각각 두 가지 국면에서 보기 때문이다. 아담의 영적 죽음이라는 국면과 육체적 죽음이라는 국면이다. 그리고 아담의 영적 부활이라는 국면과 육체적 부활이라는 국면이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고 난 즉시로 육체적으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매, 아담은 육체적으로도 죽었다.

그렇다면 코란의 아담은 어떻게 되었는가? 코란의 아담도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 그리고 코란의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경고가 있었다. 그렇지만 그 경고는 죽음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다시 말해서, 코란의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결코 죽지 않았다. 그렇다면, 코란의 아담의 죽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란의 아담의 죽음은 앞 장에서 살펴 본 아담이 창조될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유한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성경의 아담 내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고 난 후,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창세기3:7). 코란의 아담 내외도 그 과실을 먹고 난 다음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자 낙원의 잎으로 몸을 다음과 같이 감쌌다(코란7:22; 20:121).

이렇게 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맛보았더라. 이 때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 그들은 낙원의 나뭇잎으로 몸을 감싸니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금하고 사탄은 너희 적이라 이르지 아니했더뇨?”(코란7:22)

그렇게 하여 그들이 그것을 먹으며, 그들의 벌거벗음이 그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러자 그들은 천국(낙원)의 나무 잎으로 그곳을 가리기 시작했고 아담은 그의 주님의 명령을 배반했으니 그는 방황하게 되었더라(코란20: 121).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난 후의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은 크게 여섯 가지가 있다.

a. 죄의 오염

성경의 아담의 아내는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다음, 그의 남편에게 주어서 먹도록 하였다 -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창세기 3:6하). 죄의 진보적이며 유기적인 성격을 말한다.¹⁸⁰ 사단은 죄를 오염시킨다. 죄는 온 인류를 멸망에 이르게 하기까지 계속 자라고 번져 나간다(야고보서 3:15). 그러나 이슬람은 아담의 아내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 그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도록 하였다는 성경의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코란은 아담 내외가 함께 유혹을 받았고, 함께 따먹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이슬람은 죄의 오염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b.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일

성경의 아담 내외가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다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창세기3:7).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다(창세기3:7).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창세기3:8).

저자가 그들이 숨은 장소인 나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이 장과 그 이전의 장들을 통하여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의 변화된 관계를 묘사

180 Ibid. 65.

함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첫째로, 1장과 2장에서 과실나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비에 대한 표시였다. 그러나 3장의 첫 부분에서 나무는 남자와 여자의 반역을 선동하는 근거와 반역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를 구한 장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남자와 여자가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였을 때에 그들의 길은 생명나무로부터 막혔다(창세기 3:24). 나무에 대한 이러한 초점의 의미는 죽음의 형벌인 장소로서의 나무의 역할의 빛(신명기 21:22-23)과 생명의 선물의 장소로서의 나무의 역할의 빛 안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갈라디아서 3:13).¹⁸¹

그들의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이었다.¹⁸²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고 하나님에 의해 자신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조차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가운데 아담내외를 찾으셨다(창세기3:9). 맥킨토쉬는 그 질문은 인간에 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첫째는 인간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찾아 오셨다는 것이다.¹⁸³ 게르라드 반 그로닝겐은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어난 멀어짐과 분리를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켰다.

코란의 아담내외도 그 과실을 따 먹고 난후, 그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되어 낙원의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을 사실이다. 그렇지만, 코란의 아담내외는 알라의 낫을 피하여 숨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알라로부터

181 존 H. 세일해머, 205.

182 게르라드 반 그로닝겐 구약, 125.

183 C. H. 맥킨토쉬, 『창세기』,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62.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지 않았다.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범하게 된 최악의 심각성에 대한 성경과 요란의 시각 차이가 대단히 크다.

c. 탓하는 문제

성경의 아담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난 다음, 그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음을 인하여 두려워 숨었다고 답하였다(창세기3:10).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고 물었다(창세기3:11). 그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셔서 그와 함께 하게 된 그의 아내에게서 받아먹었다고 답하였다(창세기3:12). 아담은 그의 아내와 심지어 그의 아내를 주신 하나님까지 탓하였다.

그러나 요란은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서 받아먹었다는 점에 대해서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아담이 먼저 따 먹고, 그의 아내에게 주었든지, 아니면 적어도 같이 따 먹었다는 것이다. 물론, 요란에 아담과 그의 아내 중 누가 먼저 따 먹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그 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 혼자서 들었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요란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함께 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요란 2:36, 7:19). 왜 우리는 지금 요란의 아담내외가 그 과실을 함께 따 먹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아

담 내외가 그 나무의 과실을 따 먹은 결과에 대한 성경과 코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기 위함이다. 성경의 아담은 그의 아내를 탓하고 있지만, 코란의 아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 죄의 결과의 심각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코란은 크지 않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d. 용서를 구함

성경의 아담 내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창세기 3:11)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세기 3:12)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창세기 3:13상)고 묻자, 여자는 “뱀이 나를 꾀므로 먹었나이다”(창세기 3:13하)고 답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음에 대하여 변명만 늘어놓았을 뿐이지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성경의 아담과 달리, 알라로부터 “내가 너희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금하고 사탄은 적이라 이르지 아니했더뇨?”(코란7:22,)라고 책망을 받고 난 다음, 그들의 잘 못을 자백하고 알라에게 죄 사함의 용서를 다음과 같이 구했다.

주여 저희가 스스로를 욕되게 하였나이다. 당신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지 아니하면 저희는 잃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코란7:23).

알라는 죄 사함의 용서를 구한 아담내외에게 그들을 유혹한 사탄과 서로의 적이 되어 얼마 동안 지상에 안주하여 살게 될 것이라는 하였다(코란 2:36,38). 그리고 그때 코란의 아담은 그의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선언을 듣게 되었다.

이 때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였으니, 진실로 그분은 관용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코란 2:37).

그러나 주님은 그를 선택하셨고, 그분에게 회개하니 그분은 그를 인도하셨노라(코란20:122).

코란의 아담내외는 범죄 후, 알라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였고, 그들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그리하여, 코란의 아담은 알라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던 것이다. 코란이 인류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점에 대하여 다음 단락에서 보다 더 자세히 다루어 보자.

e. 인류의 원죄

성경은 인류의 조상 아담이 단 한번의 죄를 범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그와 더불어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서는 성경의 아담은 원죄를 지었고, 그 후손들에게 이른바 ‘원죄’를 전가하여 준 것이다. 안토니 A. 후크마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죄의 기원이 인류의 기원의 때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요, 둘째로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그 죄가 우리의 자범죄의 원천이기 때문이다(이것이 비록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을 없게 하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¹⁸⁴

원죄론이 의미하는 바는 아담이 첫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대표자로 행동했기에 우리가 아담의 죄에 관련되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다고 주장한 자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각각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고, 그들을 통해 화와 복이 임했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¹⁸⁵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바울은 아담이 우리의 머리요, 대표자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5:14-18에서도 증거하고 있다.¹⁸⁶ 바울은 로마서 5: 12에서 아담이 전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가 언약을 파기하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증

184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241-242.

185 Ibid. 250.

186 박희석, 118.

거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로마서5:12,14).

14절에서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담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후크마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답하고 있다.

분명히 그가 그의 백성의 구원자로서 행동했다는(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표상인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의미에서가 아니다. 아담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모범이었다는 의미에서도 아니다. 그리스도가 그러하듯이 아담도 우리의 머리로 대표자였다는 의미에서 즉 그가 행하는 바가 모든 인류를 포함하여 그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의미에서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다.¹⁸⁷

김세윤은 바울 사도가 첫 사람 아담을 타락한 인류의 머리로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 구속받을 인류의 머리로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바울은.... 자기의 후손 전체를 자기 자신 안에 통합시켜 조상(Stamvater)의 견지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유대적 사고방식과 함께,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바울은 옛 인류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 그와 결속됨으로 그의 죄와 사망

187 Ibid. 250-251.

을 공유하는 것으로(고린도전서15:22) 인식하고, 각각 타락한 옛 인류의 머리와 새로이 구속된 인류의 머리를 포함하는 "아담-마지막 아담"(로마서 5:12-19; 고린도전서 15:21-22) 간의 대조를 발전시키게 되었다.¹⁸⁸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의 후손들이 공범이 되어 그 자리에 있던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함께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임하게 된 사망이 곧 그의 후손들에게 임하였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아담이 그 후손들을 대표하는 자가 되어, 그 후손들이 그들의 대표자인 아담과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¹⁸⁹

아담의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학설이 있다. 이 이론을 처음 주장한 사람은 펠라기우스(Pelagius)로 알려져 있다. 그는 주후 400년경 로마에서 태어나 회개에 관한 엄격한 설교자로 알려졌고, 북아프리카에서도 사역하였다.¹⁹⁰ 아담의 죄는 그 자신에게만 나쁜 영향을 미쳤을 뿐이지, 그의 후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므로 지은 죄나 우리 친 조부나 부친이 지은 죄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¹⁹¹ 그리고 그는 아담이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중립 상태에서 창조되었으며, 그의 모든 후손들 중립 상태에서 출생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죄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죄의 영향은 아담에게만 미치고 끝났다는 것이다.¹⁹²

188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 관점』, 339.

189 박희석, 126.

190 뱃트 하글루드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81-182.

191 박희석, 126.

펠라기우스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인간을 공평하게 대하시고, 누구든지 행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지도 않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체를 세웠다.¹⁹³ 그래서 원죄라는 것은 없으며,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죄책의 전가나 오염의 어떠한 전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짓고 있으며, 죄의 종이 되고 있는가? 그에 대하여 펠라기우스는 오랜 세월 동안 전 인류가 죄를 짓는 습성 때문이라고 답을 한다.

그런데 바로 코란이 펠라기우스처럼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코란의 아담은 그가 지은 죄에 그가 직접 용서를 구하였고,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코란의 아담은 그의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누구든 타인의 짐을 그가 질 수 없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코란 구절만하여도 무려 5번에 걸쳐 반복하여 나온다. 그 구절을 하나씩 살펴보자.

... 누구나 그가 얻은 것은 그에게로 돌아가거늘 누구든 타인의 짐을 그가 질 수 없노라...(코란 6:164)

정도로 가는 자는 그 자신을 위하여 가는 것이며, 방화하는 자 누구나 스스로를 방황케 할 뿐이라. 짐진자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니,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낼 때까지 벌을 내리지 않노라(코란 17:15)

짐을 짊어진 자가 다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수 없으며 무거운 짐진 자가 다른 사람을 불러 그의 짐을 덜어줄 수 없노라...(코란 35:18)

192 루이스 벨코프, 『조직신학, 상』,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491.

193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293,

짐진자가 타인의 짐을 대신할 수 없으며, 최후에 너희가 돌아갈 곳은 너희 주님으로 그때 그분께서는 너희가 행했던 모든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시니, 그분은 마음 속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코란 39:7)

잠진자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으며, 그가 노력하여 얻은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노라. 그의 노력의 결과는 곧 밝혀지고 그는 완전한 보상을 받게 되니 최후의 목적지가 그대의 주님이라(코란 53:38-42).

코란에서 “누구든 타인의 짐을 그가 질 수 없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첫 사람 아담이 범한 원죄가 그 후손들에게 전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요¹⁹⁴, 또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 죄인이 제물에게 그의 죄를 넘겨주는 전가원리를 부인하기 위함이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음을 부인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코란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가 필요 없음에 대하여 일관성을 갖고 주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한 마디로, 코란은 적 그리스도적이요, 반 기독교적이다.

f. 죽음의 증상들

194 코란이 아담의 원죄를 부인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죄를 대물림하여 주는 것은 강력하게 부인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하디스는 사람이 삶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악한 경향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잘 제시하여 주고 있다. “아담의 후손 가운데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은 자가 없다. 사단이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큰 소리로 우는 것이다. 마리아와 그의 아이만이 사단이 건드리지 않은 존재이다”(Bukahry, *ambhiya* 44: IV, p.426, no 641[3177]. 쇼캣 모케리, 130. 재인용.

성경의 아담 내외는 선악과를 따 먹자마자 즉시로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은 아니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아담에 나타난 죽음의 증상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첫째, 아담 내외는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다(창세기3:7). 둘째,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다(창세기3:8). 셋째는 그가 그의 아내를 탐하는 일이 생겼다(창세기3:12), 그의 아내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겼다(창세기3:16상). 그가 그의 아내의 죄 문제를 다스려야 하는 일이 생겼다(창세기3:17하). 가시덤불과 영경귀가 있는 땅을 땀 흘려 경작하여 먹고 살아가야 하는 일이 생겼다(창세기3:19상). 아담이 위와 같은 죽음의 증상들을 갖고 얼마 동안은 살아 있다고는 하지만, 마침내 그는 흙으로 돌아감으로 죽게 된다는 것이다(창세기3:19하).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이 나무’(코란7:19)의 열매를 따 먹어 죄를 범하기는 하였지만, 그 죄마저도 온전히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코란의 아담에게는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선언도 나타나지 않는다. 코란의 아담의 죽음 이른바 금단의 나무 열매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코란의 아담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유한한 자로 태어났다. 그리고 생명 나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다만, 코란의 사탄의 유혹 내용에 따르면, 알라가 금단의 과실로 지정한 그 과실을 따 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코란의 아담은 그 과실을 따 먹었다. 그렇지만, 아담은 죽고 말았으니, 코란의 사탄의 이야기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코란의 아담은 본래부터 유한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살다가 죽었을 뿐이

다.

그렇다면, 아담의 죽음에 대하여 코란적 이해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그 죽음을 설명해야 할 것인가? 김세윤은 이른바 ‘뿌리 뽑힌 나무의 예’를 통해서 아담에게 나타난 죽음의 증상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생명의 근원인 대지에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 대지로부터 뿌리가 뽑혀서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는 나무는 적어도 한동안은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 있고 잎이 푸르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대지에서 뿌리 뽑힌 순간부터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이며, 그때부터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차차 잎이 시들고 가지가 마른다. 이런 현상들이 바로 그 나무가 죽음에 처해 있다는 증표이다.¹⁹⁵

성경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난 후에, 그가 여전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이른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죽은 자’나 다름이 없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935세가 되어 죽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되었다. 성경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고린도전서 15:22)라고 선포한다. 첫 사람 아담이 죽었고, 그 후손들이 아담 안에서 모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의 증상들을 갖고 태어났다가 그 증상들이 심해짐에 따라 죽게 된다는 것이다.

195 김세윤. 『요한복음 강해』, 95.

D. 하나님이 아담을 다시 살리심

아담 내외가 선악과를 따 먹는 순간 육체적으로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그들은 죽은 자들이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기 시작하셨다. 그리하여 아담 내외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내외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살리기 시작하셨는가?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코란의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결과가 죽음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또한 그 과실을 먹은 아담도 알라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알라가 그를 구원하여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은 전혀 없다.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성경의 아담은 코란의 아담과 달리 금단의 열매를 먹어 죽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기 시작하셨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살리기 시작하셨는지 살펴보자.

a. 여자의 후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내외가 선악과를 따 먹게 되어, 그들에게 죽음의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자마자, 즉시로 그들을 찾아오심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일을 시작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내외를 다시 살리시는 일은 뱀에 대한 저주를 다음과 같이 선포함으로 구체화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찌니라(창세기 3: 14)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 대한 저주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의 뱀의 모습은 저주 받고 난 후의 모습이고,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 대하여 즉각적인 저주보다 더 큰 저주를 내리셨다. 그런데 그 저주는 미래적이었다. 그 저주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세기3: 15).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뱀에 대한 저주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그 저주가 미래적임을 암시하셨다. 뱀에 대한 저주의 선포를 듣게 된 아담 내외는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곧 바로 여자, 곧 아담의 아내가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의 후손이 생겨날 것을 말씀하셨다(창세기 3:16).

아담은 ‘여자의 후손’의 그 ‘여자’는 자기의 아내라고 확신하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그 사실을 그가 그의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담의 아내, 곧 하와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소리쳤다: “여호와여, 내가 남자를 낳았나이다.”(창세기4:1b; 한글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로 번역되었다).¹⁹⁶ 아담의 아내는 자기들의 첫아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인 뱀을 도말할 자, 곧 그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아담 내외는 자기들의 첫 아들이 그 여자 후손이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한 뱀에 대한 저주도 즉각적이지 않고 미래적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에드워드

196 Ibid. 133.

벨의 '여자의 후손'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자.

그들(아담내외)에게 약속된 것은 여자의 씨였다.... 만일 이 후손을 여자의 씨라 일컫는다면 그것 또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고, 뱀을 이길 자에 대한 놀라운 출처를 암시한 것이다. 비록 인간의 이성에는 거침들이 되나, 믿음으로는 잘 이해되는 한 비밀 곧 주의를 환기시키는 비밀이 이 여자의 씨라는 명칭 가운데 있다... 남자를 제쳐 놓고 여자가 이 씨의 어미라면, 이 씨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등장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 탄생에 관한 이 둘째 아담은 첫째 아담 곧 둘째 아담의 표상인(로마서 5:14) 첫째 아담과 비슷하다. 이 둘은 남자의 도움 없이 특별한 인간이 되었다는 점에 비슷하다.¹⁹⁷

우리는 예수께서 두 번에 걸쳐 그의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며, 자신이 곧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¹⁹⁸ 그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면서, 즉 갈릴리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시기 직전에 그의 모친을 '여자'라고 불렀다(요한복음 2:4). 그리고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순간에,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다(요한복음 19:26).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3:15의 '여자의 후손'의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아담의 아내는 동정녀 마리아의 예표적 인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유대교는 그 '여자의 후손'이 아직도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독교는 그 후손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소개한 창세기 3:15을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첫

197 에드워드 벨, 『구약 속의 그리스도』, 권호덕 역 (서울: 그리심, 2003), 40.

198 고든 J. 웬함, 194.

번째 예언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원시 복음(proto evangelium)이라고 부른다. 창세기 3:15절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역사적으로 이레니우스로부터 시작되었다.¹⁹⁹ 사탄에게 내린 여호와 하나님의 저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에서 ‘뱀의 후손’에 대하여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무리가 있다. 뱀이 곧 사단을 상징하는데, 성경에 사단의 후손이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단의 영역 아래 있는, 그래서 그의 윤리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²⁰⁰ 즉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됨을 의미한다.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요한일서 3:8)고 증거하는 가운데, 뱀의 후손, 곧 마귀의 후손이란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는 자들임을 밝혀 주었다.

예수님께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마태복음 13:28)라고 말씀하셨을 때, 좋은 씨가 아닌 가라지로 비유된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곧 뱀의 후손임을 말씀하셨다.²⁰¹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대적을 받으셨을 때,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바로 사단, 곧 마귀의 후손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하셨다.

199 게라르드 반 그로닝겐, 130.

200 이한영, 88.

201 Ibid. 88.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요한복음 8:44)

이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어 펼치는 싸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그 싸움에서 사탄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함은 여자의 후손의 국부적 상처, 곧 죽었다가 삼일 만에 살아나실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을 상하게 함은 사탄의 치명상 곧 사망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각각 예언한 것이다.²⁰² 유재원은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일컬으셨던 것(마태복음23:33)은 그 유대인들이 창세기 3:15절이 언급하는 사탄의 후손들(뱀의 후손들)이며, 반면에 사탄의 후손에 의해 공격을 받는 자신은 여자의 후손임을 가르쳐 주셨던 말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독사의 새끼들아’는 ‘뱀의 후손들아’로 개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²⁰³ 여기서 사도 바울이 원 복음을 그의 서신 로마서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에드워드 벨의 설명을 들어 보자.

우리는 계속 바울을 따라가서 그가 아담과 예수 사이에 평행선을 긋고(로마서 5:12-21), 또 아담의 타락으로 깨어진 균형을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회복시

202 Ibid. 43-44

203 유재원, 32.

킨 사실을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간다... 사도 바울의 눈길은 자기가 살던 그 시대에만 사로잡히지 않고 공간적으로는 세계 전체로, 시간적으로는 수천 년을 훑는다. 하나님의 은혜의 활동은 인간의 타락에 바로 뒤따른다. 아담이 타락한 바로 그 지점에서 그리스도 곧 두 번째 아담(문자적으로는 오실 아담)이 등장한 것이다.... 바울 사도는 마침내 로마서 16:20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로마서 16:20)라고 소원했을 때, 거기서 원복음을 명확하게 시사했다.²⁰⁴

그러나 코란은 성경과 달리, 사탄에 대한 알라의 어떠한 저주도 언급하지 않았다. 코란은 아담 내외를 유혹하여 죄를 범하게 한 사탄에 대하여 아담과 함께 이 세상으로 내려가게 될 것과 아담이 그의 적이 되어 살게 될 것이라고만 소개하고 있다(코란 7:24). 다시 말해서, 코란의 아담내외는 사탄을 저주하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 즉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했다. 코란은 성경의 원시복음이라고 일컬어지는 창세기 3:15를 완전히 삭제하였다. 우리는 코란의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족히 짐작할 수가 있다.

b. 해산의 고통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아담 내외에게 뱀의 최종적인 저주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신 다음, 그 후손을 잉태할 여자, 곧 아담의 아내에게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다음과

204 에드워드 벨, 『구약 속의 그리스도』, 권호덕 역 (서울: 그리심, 2003), 26.

같이 말씀하셨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창세기 3:16상)

아담의 아내가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저주였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 내외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 곧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수고를 통하여 뱀에 대하여 최종적인 저주를 가져 올 그 후손을 잉태하고 출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함께 기억하여야겠다.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는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지만, 그것은 아담 내외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다.²⁰⁵

그러나 코란의 아담의 아내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받지 못하였고, 해산의 고통과 양육의 수고에 대한 말씀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코란의 아담은 그의 아내를 통하여 태어날 그 후손이 뱀을 최종적으로 저주할 것이라는 믿음도 갖지 않았다.

c. 아담이 그의 아내를 다스림

성경의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에게 주셨던 두 번째 말씀은 그가 남편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의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한다는 말씀이었다(창세

205 Ibid. 132.

기3:16하). ‘사모’라는 뜻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여자의 남편에 대한 성적 교제에 대한 열망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²⁰⁶ 그러나 그 해석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성적 열망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그 해석은 문맥에 맞지 않는다. 아담의 아내가 그의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고 난 다음, 그의 남편에게도 따 먹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가 제 2의 선악과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으로 하여금 그의 아내를 다스리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다.²⁰⁷

우리 말 개역 성경 창세기 3:15의 ‘사모’라는 말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 (트슈카)인데, 그 말은 창세기4:7의 ‘죄의 소원’과 정확히 똑 같은 단어이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4:7의 ‘죄의 소원’과 ‘다스릴찌니라’가 대칭인 것처럼, 창세기3:16에서 ‘사모하고’와 ‘다스릴 것이니라’라 대칭이다.²⁰⁸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16의 ‘사모하고’라는 말을 ‘죄의 소원 때문에’라고 새롭게 번역해야 한다.²⁰⁹ 유재원은 ‘죄의 소원 때문에’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지

206 안토니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230.

207 제임스 M. 보이스에 따르면, 수잔 포(Susan T. Foh)가 『웨스트민스터 신학저널』에 “그 여자의 소원이 무엇인가?”라는 글을 기고함으로써 ‘여자의 사모’가 남편에 대한 성적 욕구가 아니라, 남편을 소유하고 조정하려는 욕구, 즉 남편에 대한 제 2의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고자 하는 욕구라는 뜻으로 이해되기 시작되었다고 한다: 제임스 M. 보이스, 『창세기 강해』, 문동학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314-315.

208 Ibid. 196.

209 고든 J. 웬함, 204.

배하려는 소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다.

네 남편을 지배하려는 소욕이 네게 있을 것이나 도리어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세기3:16하, 유재원 역)²¹⁰

남편이 그의 아내를 다스리는 일이 유교적인 관점이나 죄악적인 관점에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아내를 다스리라고 하였을 때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그 말씀 속에는 아담의 아내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귀한 뜻이 담겨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부된 교회의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그 신부된 교회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 그리하여 그의 신부된 교회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셨다. 그렇다면, 아담이 그의 아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스리기 시작하였는가? 그 점에 대하여 E. 아담의 다시 살아나기 시작함의 a. 아담의 다스림과 '하와'라는 새 이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자.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알라로부터 뱀을 최종적으로 저주할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도 듣지 못했다. 또한 그는 그의 아내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씀도 듣지 못했다. 그리하여, 코란의 아담은 그의 신부된 교회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예표하지도 못하였다.

210 유재원, 26.

d. 땅에 대한 저주

성경의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지은 죄의 대가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땅은 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기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아담 내외가 여호와 하나님이 공급해주신 동산의 열매 맺는 나무와 대조되는 야생식물과 재배된 식물을 먹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아담 내외가 동산을 조만간에 떠나 살게 될 것이라는 암시적 말씀이기도 하다.²¹¹

그러나 코란에는 땅이 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e. 흙으로 돌아감

우리는 앞 장에서 성경의 아담이 땅(아다마)의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아담과 땅(아다마)의 언어 유희적 관계가 있음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 마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그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창세기3:17-19).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게 된 결과가 곧 죽음이라고 경고하셨는데, 그 경고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임하게 된 것이다.

²¹¹ 고든 J. 웬함, 197.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성경의 아담처럼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의 아담은 흠이니 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죽음의 경고가 필요가 없었다. 그는 본래 유한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던 것이다.

E. 아담의 다시 살아나기 시작함

성경의 아담은 코란의 아담과 달리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하였다. 그렇다면 성경의 아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였는가? 그는 이른바 원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성경의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성경의 아담처럼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죽은 자가 되지 않았다. 성경의 아담이 다시 살아나는 점에 있어서 코란의 아담과 아무런 공통점이 없다.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코란의 아담은 영적으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 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성경의 아담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하였다. 성경의 아담은 이른바 원시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을 부여 받게 되었다. 하나님께 다시 살려 주심에 대한 아담 내외의 응답은 무엇이며, 그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a. 아담의 다스림과 '하와'라는 새 이름

성경의 아담은 뱀을 저주할 자가 곧 여자의 후손이라 할 때, 그 후손의 모친이 될 '여자'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아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하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창세기3:20).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내를 다스리라고 주신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이다. 우리는 앞에서 아담이 에덴동산의 각종 동물들의 이름을 각각 구별하여 지어 주는 가운데 그들을 구체적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였음을 살펴보았다.

성경의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새 이름을 구비하여 주는 가운데 그를 다스리는 것은 그의 아내가 제 2의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

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남편이 그의 아내를 다스린다고 할 때, 그 다스림의 개념을 유교적이고 세속적이고 죄악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아담이 그의 아내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다스리는 자가 되는 가운데, 그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음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²¹²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된 교회의 죄 문제를 온전히 다스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된 교회의 죄를 어떻게 다스렸는가? 그는 자신이 그의 신부된 교회의 죄를 그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세례 요한은 그를 “하나님의 어린 양”(요한복음 1:29)이라고 선포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의 신부된 교회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하늘보좌에 앉으셔서 그의 신부된 교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생명을 불러일으키시는 가운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서 우리는 왜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모든 산 자의 어미’라는 뜻을 지닌 ‘하와’라는 이름을 주었는가에 대하여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존 H. 세일해머는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사건에 대하여 아주 의미 있는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사람인 아담은 신기하게도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로 불렀다: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 이더라”(창세기3:20). 이것은 아담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부른 두 번째 이름이다(창세기2:23참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름은 그녀의 기원을 지적해주는 반면에(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두 번째 이름은 그녀

212 안토티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199.

의 운명을 지적해준다(모든 산 자의 어머니)²¹³

C. H. 맥킨토쉬도 아담이 그의 아내를 하와라고 부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고귀한 열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문제를 순전히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와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불렸을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판단에 따라 보면 그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였다.²¹⁴

성경의 아담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되었고, 결국 그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알았지만,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다시 '산 자'가 되고, 또한 그의 자녀들도 '산 자들'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아담은 다름 아닌 자기의 아내가 그 뱀을 저주할 그 '후손'을 잉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와 그 모든 자손들도 그 '후손'을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²¹⁵ 아담은 그의 아내를 통하여 태어날 그 후손에 대한 믿음, 즉 그 후손이 죄의 원흉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담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을 궁극적으로 저주할 것과 그

213 존 H. 세일해머, 205.

214 C. H. 맥킨토쉬, 67.

215 매튜 헨리의 『창세기』,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교문사, 1974), 137. 그리고 S. G. DE. 그라프의 『창세기(상)』 박권섭 역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85), 55. 그러나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가 곧 그의 신앙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학자들도 적지 않다(Keil, Delitzsch, Von Rad, Steck등): 고든 J. 웬함, 199. 참조.

의 유혹을 받아 죽게 된 아담 그 자신과 그 후손들을 다시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신 바에 대한 귀한 믿음의 응답이었다. 게르라드 반 그로닝겐은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구비하여 준 사건은 아담의 신앙의 표현으로 가장 잘 해석될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담은 그의 아내를 위한 모성의 계속과 그 모성이 가져다 줄 회복된 삶의 수단에 대한 약속을 요구함으로써 희망의 선포를 받아들였다. 아담은 타락한 왕적 종들로서의 자신들의 삶이 타락한 왕적 부모로서 그들이 낳을 씨를 통하여 계속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다.²¹⁶

게르라드 반 그로닝겐은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하와도 하나님께 대하여 아담과 같이 믿음의 응답을 하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하와의 응답도 아담의 응답과 똑 같다. 그녀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소리쳤다: “여호와여, 내가 남자를 낳았나이다.”(창세기4:1b; 한글개역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로 번역되었다).²¹⁷

이 환호의 내용의 중심 내용은 명확하다. 여호와께서 그녀가 아들을 낳는데 관여하셨다는 것이다. 하와는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음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을 지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주지도 않았다. 사실 코란에는 ‘하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하와라는 이름 속에 귀히 담긴 아담의 신앙고백도 모

216 게라르드 반 그로닝겐, 133.

217 Ibid. 133.

르고 있다. 다만 무슬림들이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성경에 근거하여 하와라고 무심코 부르고 있을 뿐이다. 이슬람은 성경이 왜곡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필요할 때 마다, 코란이 성경을 인용하였음을 직접 간접으로 시인하고 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성경의 도움을 받아 코란을 해석하고 있다.

b.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 옷

성경의 아담이 그의 아내를 ‘모든 산 자의 어미’의 뜻을 지닌 ‘하와’라는 새 이름으로 그를 부르게 되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중요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 선물은 다름 아닌 ‘가죽 옷’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 내외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이다. 성경의 아담 내외는 이른바 선악과를 따 먹고 난 후부터,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 주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경의 아담 내외에게 그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입게 하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가죽 옷을 여러 옷들 중의 하나의 옷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된다. 아담이 가죽 옷을 입게 된 것은 그 가죽의 주인공인 짐승의 죽음을 믿음으로 덧입은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짐승이 단지 아담에게 옷을 제공하기 위하여 죽게 되었다고 이해하면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짐승으로 하여금 그 자신을 대신하여 죽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믿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²¹⁸ 아담은 그 짐승이 자신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죽옷에 대한 손석태의 설명을 들어보자.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들의 몸을 가렸다.... 그러나 나뭇잎으로 만든 그 치마는 사람의 허물과 수치를 가리기에는 미흡하다.... 만일에 미흡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죄지은 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는가를 보여 주신 것이다. 즉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가릴 수 있는 것이며, 죄를 가리는 그 옷은 동물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얻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약성경은 일찍이 죄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신의 죄를 가리는 속죄제물이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규례를 강조하고 있다.²¹⁹

성경은 성경의 아담 내외를 위하여 준비된 가죽 옷의 주인공의 죽음 속에 담긴 메시지, 곧 가죽 옷의 비밀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사건으로 죽은 자나 다름이 없었던 아담 내외를 살리기 위하여 가죽옷의 주인 되는 동물을 죽게 하셨던 것이다. 그 동물은 아담 내외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것이다. 아담 내외가 가죽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동물의 죽음을 덧입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동물은 아담 내외를 위한 대체 제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아담과 그 후손들을 위한 궁극적이고 유일한 대체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라디아서3:27)라는 말씀을 통해서 가죽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218 매튜 헨리, 139

219 손석태, 50.

예표하였음을 밝히 증거하였다.²²⁰

그러나 코란의 아담 내외는 알라로부터 가죽옷을 부여 받지 않았다. 알라가 아담 내외에게 어떤 의상을 주었다고는 하는데, 그 의상이 가죽으로 만들어졌다고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서 그 옷에 대한 코란의 증거를 들어 보자.

아담의 자손들이여, 너희들에게 의상을 주었으니, 너희의 부끄러운 곳을 감추고 아름답게 꾸미라.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상이 제일이니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증표이거늘 그들은 기억하리라(코란 7:25).

코란의 아담내외가 성경의 아담 내외처럼, 동산의 나뭇잎으로 만들어 입은 옷 대신에 다른 옷을 부여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새롭게 부여 받은 그 옷이 가죽옷은 아니었던 것이다. 성경은 아담 내외가 부여받은 가죽옷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코란은 아담 내외와 그 후손들이 알라로부터 부여 받게 된 에게 옷을 아름답게 꾸미며 입어야 한다는 사실 강조하였다. 코란이 그 옷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상징적인 뜻으로 해석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코란은 그 옷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하여 포착하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아담의 가죽 옷이 코란에 등장하지 않는다.

220 E. J. 영, 『창세기 제 3장 연구』, 정정숙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3), 146.

F. 아담의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아담 내외를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시키셨다. 코란의 아담 내외도 금단의 열매 사건으로 인하여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이슬람은 추방개념보다는 에덴에서 이 땅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개념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성경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 에덴동산에서 내어 쫓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창세기3: 23).

코란의 아담도 본래의 고향은 에덴동산이었는데, 이 세상으로 자리를 옮겨 살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으니,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라. 그곳이 너희의 거주지가 될 것이며, 너희가 얼마 동안 사는 수단이 되리라. 또 말씀이 계셨으니, 그곳에서 너희가 살고 그곳에서 너희가 임종할 것이며, 그곳으

로부터 너희가 부활되리라(코란7:24,25,)²²¹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이것이 바로 너와 네 아내의 적이라. 그가 너희를 유혹하여 천국²²²에서 쫓아내 너희를 불행하게 하려 하노라(코란 20:117)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아담 내외가 금단의 열매 사건 이후에 에덴을 떠난 사건에 대하여 성경과 코란이 크게 다르게 증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a.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일

코란의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은 선악과를 따 먹고 난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성경은 아담 내외가 선악과를 따 먹었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다.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 결과가 부정적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아주 긍정

²²¹ 최영길이 '부활되리라'라고 번역한 아랍어 원어의 뜻은 "나오리라"이다. 최영길은 죽은 자의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응용 번역한 것이다.

²²² '천국'이라고 번역된 본래의 단어는 아랍어 '잔나'로 동산, 즉 에덴동산을 염두에 두고 사용된 것이다. 그런데, 최영길은 '잔나'를 한결같이 천국으로 번역하였다.

적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창세기 3:22 상).

언뜻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다음, 그 지식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과 거의 대등하게 된 것 같다. 여기서 ‘우리 중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담 내외가 지식이 증가됨을 인하여 경쟁의식을 느끼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모습은 바로 성경의 뱀이 아담의 아내에게 던졌던 유혹의 내용과 맞아 떨어진 것 같다. 여기서 뱀이 그녀를 유혹하였던 내용을 다시금 들어보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 선악을 알 줄을 하아님이 아심이니라(창세기3:4,5).

그렇다면, 도대체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 아담과 그 후손된 인간의 지성에 가져 온 변화는 무엇이며, 우리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점에 대하여 김서택은 그의 책 하나님 형상, 사람의 모습에서 다음과 같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지능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단 하나가 밖에 없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을 했다. 이 일을 하려면 대단한 분별력이 필요하다. 우선 동물의 이름을 지

으려면 특징에 따라 동물들을 분류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타락하기 전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질서나 논리를 깨닫고 거기에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지혜였다.²²³

만일에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닥치는 대로 지어버렸다면 자기 자신이 무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도무지 기억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김서택은 우리 인간에게는 또 다른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축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문명이 발달한 것이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다...²²⁴

우리 인간은 선진들의 지혜를 덧입고 살고 있다. 예컨대, 우리 모두가 과학자가 아니고 기술자가 아니어도 현대의 발달된 통신 및 교통설비들을 마음껏 활용하게 된 것도 그렇다. 그리고 김서택은 다음과 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지혜를 제시한다.

또한(둘째로), 우리는 지성으로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예측할 수가 있다....²²⁵

비록 갓난아이들임에도 뜨거운 것을 한번만 만지고 나면 벌써 논리적

223 김서택,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습』 (서울: 홍성사, 1997), 368.

224 Ibid, 368, 369.

225 Ibid, 370

인 유추를 한다. ‘저것은 뜨겁다. 만지면 고통스럽다. 그러므로 나는 만지지 않는다.’라고 추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인간이 갖고 있는 세 번째 지혜를 다음과 제시한다.

셋째로 사람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다. 사람과 컴퓨터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컴퓨터는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판단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²²⁶

그렇다면, 아담에게 지식을 축적하고, 논리적인 추론을 하고, 선악의 가치 판단을 하는 능력은 그가 죄를 짓기 전, 즉 그가 선악과를 따 먹기 전에는 없었다는 말인가?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부터 주신 잠재능력이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고 난 다음에야 그런 능력을 새롭게 구비한 것처럼 말씀하셨는가? 그에 대한 이유를 김서택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설 때는 그런 능력들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았기 때문에 경험을 축적할 필요가 없었다.²²⁷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그 자신을 의존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독립선언을 한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다. 성경의

226 Ibid. 371.

227 Ibid. 371, 372.

뱀이 아담의 아내에게 찾아 와 했던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게 하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도록 하게 하였던 것이다.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도록 한 행위이다. 그 점에 대하여 김세윤은 그의 책 “구원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 그의 무안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영원 등 - 을 공급받아 - 곧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에 의존하여 - 살 수 있는 존재의 활로를 끊어버리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욱되게 닫아버리는 것이다. 그 결과는 인간이 자기 속에 내재해 있는 극도로 제한된 자원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²²⁸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성경의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아담처럼 그 과실을 따 먹게 되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을 받은 적도 없다. 다시 말해서, 코란은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범하는 죄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지만, 이슬람은 행위의 종교이다. 기독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인간 스스로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어느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스스로의 행위와 업적으로 구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228 김세윤,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5). 16.

b. 생명나무 접근 금지

코란의 아담은 생명나무를 소개 받은 적이 없다. 성경의 아담만 생명 나무를 소개 받았다. 성경의 아담에게 생명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 되고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창세기 2:8-9).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생명 나무 실과 포함됨)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세기 2:17-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 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키게 하시니라(창세기 3:22-14)

우리는 앞에서 생명나무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았다. 생명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나무에 불과하다. 선악과에 사람의 죽음을 유발시키는 독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에도 어떤 신통력이 있어 그 나무가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 생명나무가 중요한 것은 그 열매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생명은 그

나무를 따 먹는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있다는 말이다. 그 생명나무가 실제 나무였으나 그 효과는 오늘날 교회의 성례전과 같은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칼빈의 말에 귀를 보았다.²²⁹

그런데 아담 내외는 생명나무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창세기3:22).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에게 내려진 죽음의 선고가 생명나무를 따 먹을 수 없게 됨으로 더욱 구체화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내외에게 이른바 생명나무 성례에 참여하는 기회를 박탈하셨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에 이른 길을 지키도록 하여 아담 내외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을 바로 옆에서 섬기는 천사이다. 특히 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은 천사이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의 법궤 뚜껑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마주 대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이다. ‘두루 도는 화염검’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다. 이 화염검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그룹들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존전에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룹들이 수 놓여 있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혼자 다 마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신다.²³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229 존 칼빈, 『칼빈주석: 창세기 1권』, 89.

자신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며, ‘하늘로서 내려 온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는 가운데, 그가 곧 ‘생명나무의 과실’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셨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위하여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요한복음6:26,27).

나는 하늘로서 내려 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요한복음6:51).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참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없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생명나무의 대형이심을 밝히고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생명 자체이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음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요한복음1:4)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요한복음 5:26)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10)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230 Ibid. 385.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림을 받아 새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본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은 그의 신부인 교회가 생명나무의 풍성한 과실을 제공받고 있음을 목격한 다음 아래와 같이 증거하고 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밋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시 저주가 없으며...(요한계시록22:1-3)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신약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찌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브리서4:14-16).

그러나 코란의 아담은 생명나무를 따 먹지 말라는 경고를 받지 않았다. 그 앞에 그룹들과 화염검이 놓여져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동산에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지도 않았다. 코란은 성경의 아담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표, 예언들을 철저히 없애버렸다.

c. 추방설과 파송설

성경의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을 당하였다. 그리고 코란의 아담도 그 나무 과실 사건을 인하여 에덴동산²³¹으로부터 분명히 추방을 당하였다. 그 점에 대하여 코란의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직접 들어 보자(코란2:36; 7:22-24; 20:117)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여 그곳으로부터 나가게 하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서로가 서로의 적이 되어 지상에서 얼마동안 안주하여 살리라” 했노라(코란 2:36).

이렇게 하여 그들을 유혹하니, 그들은 열매를 맛보았더라...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 “내가 너희에게 이 열매를 금하고 사탄은 너희 적이라 이르지 아니했느냐?” ... 그러자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들(아담과 하와)은 스스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지 아니하면, 우리들은 잃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는 적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가라. 그곳은 너희 거주지가 될 것이며, 때가 될 때까지 너희의 삶의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코란7:24, 필자 사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이것이 바로 너와 네 아내의 적이라. 그가 너희를 유혹하여 천국에서 쫓아내 너희를 불행하게 하려 하노라’”(코란20:117)

231 최영길은 『성 꾸란, 한국어 의미의 번역』에서 에덴동산을 ‘천국’이라고 번역하였다. 그리고 최영길은 코란 2:34를 주석하면서, 에덴동산의 위치가 지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는 코란 구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에덴동산이라는 단어 자체를 ‘천국’이라고 일관성 있게 번역한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창세기의 설명과 다르다. 에덴동산이 하나님께서 아담 내외와 항상 함께 계신 곳이었음이 분명하지만, 그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내외가 다시 접근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그 접근 막았던 것으로 보아 그 동산은 지구상에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우리는 앞 단락에서 언급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여 볼 필요가 있겠다. 코란의 아담은 그 나무의 과실을 딱 먹는 죄를 범하였지만, 그 죄는 고의성이 없었고, 특별히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알라에게 용서를 구하였기에, 그가 온전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에게 죄를 대물림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코란의 아담이 에덴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해야 하는가? 여기에 코란의 큰 모순이 있다. 그 모순에 대하여 최영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가운데, 이른바 아담의 추방설을 부인하고 있다.

아담과 하와가 땅으로 내려오게 된 이유는 원죄가 그 원인이 되어 추방된 것이 아니고 신의 예정설(豫定設)에 의하여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이 코란의 보편적 견해이다. 아담과 하와가 신이 접근하지 말라는 나무에 접근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망각에 의한 실수이지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이다.²³²

코란의 아담이 에덴으로부터 이 땅으로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파송 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결정적인 코란 한 구절이 하나가 있다. 바로 코란2:30이다. 최영길은 아담의 파송설이 코란의 보편적 견해라고 하였던 것은 바로 그 구절에 근거한 것이다.

보라. 그대의(your)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내가 이 세상(지상)에 대리인을 두리라” 하셨다. 그러자 그 천사들이 “이 세상에 불행이 들어오게 하고, 피를 흘리도록 하렵니까? 우리들은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을 경배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 바를 알고 있노라.”라고 말했다(코란2:30, 필자 사역).

232 최영길, 『이슬람문화』 (서울: 도서출판 알림, 1999). 187.

위 구절은 코란의 문맥상으로 볼 때, 아담이 그 나무의 과실을 따 먹기 전에 주어졌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담이 설령 그 나무의 과실을 따 먹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게 된 것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담의 추방설을 지지해 주는 코란의 구절들(코란2:36; 7:22-24; 20:117)이 아주 많고, 아담의 파송설을 지지해주는 구절(코란2:30)이 하나밖에 없음에도, 파송설이 보편적 견해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슬람은 아담의 원죄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속의 역사를 부인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일관성을 갖고 있다.

이슬람은 아담이 에덴동산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덴의 회복의 비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에덴의 회복의 개념으로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의 메시지가 자리 잡을 틈이 없다.²³³

G. 아담의 아들들

아담 내외를 통하여 먼저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자, 셋이 태어났다. 성경과 코란이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²³³ 에덴의 회복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이라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팔마 로버트슨은 창세기의 처음 몇 장이 불순종의 결과 발생한 땅의 상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땅을 얻는 자로 그려지고 있음을 잘 설명하고 있다: 팔마 로버트슨,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12.

1.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공통점

성경과 코란이 공히 두 아들 중의 한 아들과 그 제사는 하나님께 열납되었고, 한 아들과 그의 제사는 열납되지 않았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2.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성경과 코란의 차이점이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a. 가인과 아벨

우리는 앞에서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이름으로 불렀고, 그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새 이름으로 그의 남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다. 그리고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과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아담내외에게 가죽옷을 부여하여 준 의미의 중요성을 생각하여 보았다. 아담이 그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새 이름을 구비

하여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이루실 일, 곧 그의 내외에게 죄를 짓도록 종용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을 때, “여호와여, 내가 남자를 낳았나이다.”(창세기4:1b)라고 소리쳤던 것도 하와의 신앙 고백적 사건이었다.

그런데 아담 내외에게서 첫 아들로 태어난 가인은 그의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둘째로 태어난 아벨은 그의 형과 가인과 달리, 그의 부모의 믿음을 이어 받았다. 아담 내외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의 믿음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던지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 하신지라(창세기 4:1-4).

아벨은 가인과 달리 아담내외 다음으로 그 가족의 비밀, 즉 대체제물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납하는 제사를 드렸던 것이다. 성경 히브리서는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달리 믿음의 제사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히브리서11:4).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사실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구약 속에서 수많은 제물들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과 함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히브리서9:22하). 그리고 성경은 그 메시지와 함께 궁극적으로

예수께서 단 한번의 피를 흘리심으로 더 이상의 피 흘림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였다(히브리서9-10장). 다시 말해서 아벨의 제물도 아담에게 가죽 옷을 제공하기 위하여 죽임당한 동물처럼 대체제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제물의 실체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임당한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²³⁴

그러나 가인은 부모의 믿음과 그 아우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았다(히브리서 11:4). 가인은 그의 제물은 여호와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고, 그의 아우 아벨의 제물은 열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창세기 4:5-8).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창세기 3:22은

234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열납되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열납되었는가? 아벨은 단지 그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은 최상의 예물과 함께 순수한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라는 답이 제시되고 있다. 가인은 첫 열매가 아닌, 땅에서 난 열매의 한 부분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벨은 양떼 중에서 가장 살찐 첫 새끼를 제물로 드렸다. 가인이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이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각각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이 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다: 카일과 델리취, 『창세기 I』, 고영민 역 (서울: 기독교문화출판사, 1984) 1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제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부모를 통하여 전해 듣게 된 믿음의 진리를 그가 귀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다.

영생과 관련된 생명나무를 선악과와 함께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나무로 간주함으로써 생명의 영역이 하나님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²³⁵ 다시 말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역인 그 생명의 영역까지 침범하여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존재로 변질 된 것을 보여준 첫 실례가 되는 사건이 된 것이다. 가인과 아벨이 육신적 관점으로 볼 때, 둘 다 ‘여자의 후손’(창세기 3:16)이었음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가인은 영적으로 볼 때,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뱀의 후손’인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가인을 마귀의 자녀로 지적인 말씀을 들어보자.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이렇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찌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어떤 연고로 죽었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요한일서 3:9-12).

우리는 앞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던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일컬으셨던 것(마태복음23:33)은 그 유대인들이 창세기 3:1이 언급하는 사탄의 후손들(뱀의 후손들)이며, 반면에 사탄의 후손에 의해 공격을 받는 자신은 여자의 후손임을 가르쳐 주셨던 말씀으로 해석하는 가운데, ‘독사의 새끼들아’라는 번역을 ‘뱀의 후손들아’로 개역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²³⁶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자신을 죽이

235 이한영, 24.

236 유재원, 1998

려고 하였던 유대인들을 가리켜 “뱀의 후손들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의 아들인 아벨의 피를 흘리게 하였던 가인이 바로 유로 뱀의 후손이었음을 밝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뱀이 후손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이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마태복음 23:33-35).

히브리서 기자는 뱀, 곧 사탄의 후손인 가인에 의해서 죽음 당한 아벨이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임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는 “새 언약의 증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히브리서 12:24)라고 선포하는 가운데 아벨이 흘린 피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상기시켜 준다는 메시지를 증거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비록 분노와 시기심에 가득 찬 가인의 후손들에게 살해되셨지만, 급작스러운 증오의 무력한 피해자였던 아벨과 같지 않으셨다. 그분이 전적으로 자원해서 드리신 제사는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인정받았다.²³⁷

물론, 코란은 아담의 두 아들의 제사 중 한 아들의 제사는 열납되지

237 레이먼드 브라운, 『히브리서 강해』, 김현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0) 247-248.

않았고, 다른 아들의 제사만 열납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슬람학자들은 성경에 근거하여, 그들을 가인과 아벨로 각각 일컫고 있다.²³⁸ 여기서 코란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그들에게 아담의 자손인 두 아들의 이야기를 진실 되게 일러주라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매 그들 가운데 한 자손의 것을 수락지 아니했으니, 한 자손이 꼭 내가 너를 살해하리라 하니, 다른 자손이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의 것은 받아 주시니라 하더라. 내가 나에 대항하여 나를 살해하기 위해 나의 손은 내밀지 아니하니라. 이는 내가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나에 대한 죄악과 너의 죄악으로 내가 벌을 받게 되리니, 너는 지옥의 주인이 되리라. 이는 죄인들에 대한 보상이라. 타인에게 오만함이 그로 하여금 그의 형제를 살해했으니, 그는 손실자 무리 중의 일원이 되었더라. 이때 하나님께서 한 마리의 까마귀를 보내니 이 까마귀는 땅을 파고 형제의 시체를 묻는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더라. 이때 그가 오 슬프도다 내가 이 까마귀처럼 내 형제 시체를 매장한단 말이뇨 라고 말하며 후회로 가득차더라(코란 5:27-31).

코란은 왜 한 아들의 제사는 열납되고 다른 아들의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코란은 알라가 그의 동생을 죽인 형에게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 까마귀로 하여금 그의 부리와 발톱으로 땅을 파 살인자 가인으로 하여금 그의 아우 아벨의 시체를 매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다. 코란은 성경의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자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코란5:31).

²³⁸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슬람학자들이 코란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b. 아담의 셋째 아들 셋

성경은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후, 셋이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다. 하와가 첫 아들 가인을 낳았을 때, “여호와여, 내가 남자를 낳았나이다.”(창세기4:1b)²³⁹라고 외쳤는데, 셋을 낳았을 때에는 그렇게 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다.

아담²⁴⁰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창세기 4:25).

하와가 그의 첫 아들을 낳았을 때에는 “남자”를 낳았다고 외쳤는데, 셋을 낳았을 때에는 “씨”를 주셨다고 고백했다. 그것은 하와가 창세기의 나머지 부분이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셋에서 난 자식들의 가계를 소망했다는 것을 암시한다.²⁴¹ 뱀에 대한 저주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지만, 그 저주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239 Ibid. 133. 한글개역성경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로 번역되었다.

240 창세기 4:25, 26절에 ‘아담’에 처음으로 정관사나 전치사 없이 홀로 나타난다. 이것이 그것을 총칭적인 ‘그’ 사람’이 아니라 고유명사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된다. 이 무관사 용법은 ‘사람’이 아니라, 아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5:1-6을 예상한다: 고든 J. 웬함 『WBC 창세기(상)』, 황수철 역(서울: 주 임마누엘, 1987), 246.

241 고든 J. 웬함, 246.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우리는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아벨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로, 셋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자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 셋은 “주셨다”라는 뜻으로, 죽임당한 그의 형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기 때문이다(창세기 4:25).²⁴² 이제 셋에 대한 성경의 다음 이야기를 들어 보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세기 4:26).

아담이 일백 삼십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에 셋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 삼십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일백 오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는 구십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렐은... 아렛을 낳았고... 아렛은...에녹을... 에녹은.... 므두셀라를.... 므두셀라는.... 라멕을... 라멕은.... 노아를.... 노아가 오백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창세기 5:3-32).

성경은 셋의 계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그 계보에서 뱀, 곧 사단을 최종적으로 저주할 자, 곧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이다. 여기서 에드워드 벨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육신에 따른 그리스도의 열조들은, 그들로부터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이미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그들 안에서 그가 자기 백성을 위로하며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긴긴 어두운 밤 시대를 견디게 만드는 형체를 얻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스룹바벨 등이 모든 인물들은 분명히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의 믿는 자들

242 팔마 로버트슨, 42.

로 이루어진 역사의 연출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여러 계보들이 가리키듯이 위의 연출은.... 그러니까 마지막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끊어지지 않았다.²⁴³

그러나 코란은 셋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런데 이슬람의 하디스, 곧 무함마드의 언행록에 아담의 아들 셋에 대한 기사가 나와 있다. 하디스에는 아담의 아들 셋이 알라로부터 50권의 시편을 받았는데, 그것이 모두 분실되었다고 한다.²⁴⁴

요약컨대, 성경의 아담 내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정녕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창세기 2:17)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실을 따 먹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아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창세기 3:4)라는 성경의 뱀의 말에 유혹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코란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결코 죽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코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지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성경의 뱀과 코란의 알라가 금단의 열매를 따 먹고 난 아담에 대하여 죽지 아니 한 자라고 주장하는 점에 있어서 큰 일치성을 보여 주고 있음을 찾아 볼 수가 있다.

코란은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아담이 결코 죽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이

243 에드워드 윌, 56.

244 잭 버드,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중동선교회 역 (서울: 예루살렘, 11992), 47.

설득력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악과에 대한 메시지를 교묘하게 두 가지 면에서 고쳤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성경의 나무를 “이 나무”로 고쳤고, 또 하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은 결과를 “정녕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고쳤다. 그리고 코란은 아담이 그 과실을 따 먹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아주 교묘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아담이 그 금단의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던 것이 오래 전의 일이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코란의 아담의 죽음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것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지닌 유한성 때문이다. 코란은 아담이 영생할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는 사실을 두 가지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하나는 코란에는 생명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성경의 아담은 금단의 열매 대신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만 하였다면 그는 영생할 자였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이 주어지지 않았다. 또 하나는 코란의 사탄이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 한 내용 속에 아담의 유한성이 암시되어 있다. 코란의 사탄은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되면, 천사처럼 될 것이고, 불멸의 왕국으로 인도받게 된다고 유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의 아담은 성경의 아담처럼 흠으로 돌아 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필요도 없다.

코란은 성경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 먹은 결과로서 시작된 죽음을 철저히 부인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선포하였던 “여자의 후손”이 중심이 되는 이른 바 “원시

복음”(창세기 3:15)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아담이 그 복음에 응답하였던 사건, 즉 그의 아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잉태할 자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새 이름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가족 옷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아담의 세 아들 중에서 아벨과 셋을 통하여 옛 볼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와 사는 것도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파송을 받은 것이라고까지 억지를 부리고 있다.

IV. 무슬림 복음화 전략

이제 본 장에서는 무슬림 복음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개발하여 온 세계에 보급한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의 활용하려고 한다.²⁴⁵ 전도폭발이 이슬람권 복음화에 귀히 쓰임 받게 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전도폭발의 질문 내용에 “알라의 심판 날과 온 인류의 부활의 날”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알라의 최후 심판 날과 온 인류의 부활의 날”은 기독교의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

먼저 코란의 최후 심판 날과 온 인류의 부활의 날을 살펴 본 후, 전도폭발의 두 질문을 이슬람권에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최후 심판 날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란의 최후 심판과 부활의 날과 성경의 최후 심판과 부활의 날을 각각 살펴는데 있어서 본 논문의 II장 개혁주의 부활론과 III 장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연구가 귀히 적용될 것이다.

245 <http://www.eekorea.org/koreacenter/history.htm>

A. 코란의 최후 심판 날과 부활의 날

코란의 알라는 성경의 하나님과 전혀 다르다. 그런데, 아랍어 성경과 아랍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알라로 칭하고 있다. 또한 코란 속에 등장하는 알라의 심판과 그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부활하는 날도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 날, 곧 그 심판을 받기 위하여 사람들이 부활하는 날과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란과 아랍어 성경이 ‘알라’와 ‘알라의 심판 날’, 그리고 ‘부활의 날’이라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다. 코란과 아랍어 성경이 ‘알라’와 ‘알라의 심판 날’, 곧 ‘모든 인류의 부활의 날’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이 아랍어권과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1. 알라의 심판 날

알라의 심판 날에 대한 신앙은 이른바 이슬람 6(信) 중의 하나로 다섯 번째 항목에 속한다. 이슬람의 6 신(信)이라 함은 1) 알라(Allah) 2) 알라의 천사들 3) 알라의 책들(①모세 오경(토라) ②다윗의 시편(자부르) ③예수의 복음서(인질) ④무함마드의 코란) 4) 알라의 선지자들(사도들) 5) 알라의 심판 날 6) 알라의 인간에게 운명지어줌이다.²⁴⁶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알라의 심판 날”에 대한 믿음을 믿고

246 이슬람의 6신(神) 중에서 1) 알라(Allah) 2) 알라의 천사들 3) 알라의 책들(①모세

매일같이 고백해야 한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의 첫 장인 제 1장을 펼치자마자, "(알라는) 심판의 날을 주관한다."(코란1:3)라는 내용이 나온다. 코란 제 1장은 코란의 진수로 표현되기도 하며, 이슬람 신앙을 여는 장이라는 뜻에서 개경장이라고 한다. 무함마드가 생존 중에 제 1 장을 가장 중요시했다고 한다. 예배 때 이 개경 장을 빠뜨리면 그 예배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 모든 무슬림은 하루 다섯 번의 예배생활 중에 개경 장을 최소한 17회 이상 암송해야 하기 때문에, "알라의 심판 날"에 대한 믿음을 매일같이 17회 이상 고백하는 셈이 된다.²⁴⁷ 코란에 알라의 심판 날에 대한 증거가 아주 많다. 알라의 심판 날에 대한 코란의 증거들을 최영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날은 보상을 받는 날(3:185), 지구가 변하고 인간들이 모이는 날(18:47-49), 인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18:99-101), 나팔이 울리고 죄인들은 공포에 떠는 날(20:102-104),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아 올려지는 날(21:104), 거짓 신앙이 폭로되는 날(25:17-19), 하늘이 갈라지고 천사

오경(토라) ②다윗의 시편(자부르) ③예수의 복음서(인질) ④무함마드의 코란) 4) 알라의 선지자들(사도들) 5) 알라의 심판 날은 코란 4:136에 근거한다. "믿는 자들이여, 알라와 그의 선지자에게 계신된 성서와 너희 이전에 계시된 성서를 믿어라 했거늘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최후의 날을 부정하는 자 있다면 그는 크게 방황하리라(코란4:136). 그리고 여섯 번째 항목인 알라의 운명지어줌은 코란 전체 속에 흐르는 내용을 근거로 하는데, 우리는 제 III장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 비교 연구에서 특별히 코란의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알아 맞추는 과정에서 알라의 운명지어줌을 살펴보았다.

247 17회라 함은 모든 무슬림은 하루에 다섯 번씩 예배해야 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매 예배는 나름대로의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랍어로 '루크야'라고 한다. 한 '루크야' 안에 개경장 한번 암송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예배에 2번, 두 번째 예배에 4번, 세 번째 예배에 4번, 네 번째 예배에 4번, 그리고 다섯 번째 예배에서 3번, 이렇게 하루 다섯 번의 예배를 통해 적어도 17회의 '루크야'가 반복된다. 다시 말해서 무슬림은 '알라의 심판 날'을 하루에 적어도 17회 이상 암송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실한 무슬림은 보통 그 횟수를 17회 이상으로 올린다.

들이 하강하는 날(25:25-26; 82:1), 정의가 실현되는 날(36:51-54), 서로가 이별하는 날(30:14), 중재가 필요 없는 날(40:18), 하늘이 용해되어 구리처럼 되는 날(70:8), 친구의 안부를 물을 수 없는 날(70:9), 태양이 빛을 상실하는 날(81:1), 별들이 떨어지는 날(81:2), 산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날(82:4; 100:9-11), 대지가 산산 조각이 나는 날(89:21), 지옥이 보이는 날(89:23), 천국이 보이는 날(89:30)²⁴⁸

2. 모든 인류의 부활의 날

코란은 최후 심판 날 모든 인류가 알라의 최후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6:12; 45:26 ;17:13; 19:95; 21:47; 22:17; 29:25; 32:25; 45:17; 60:3; 75:6).²⁴⁹ 알라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여러 구절 들 중,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살펴보자.

그런 후, 너희 모두가 임종케 하니, 심판의 날 너희 모두가 부활하노라.(코란 23:14-15)

B. "전도폭발"의 두 가지 질문

248 최영길.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국장성 꾸란 출판청, A.H 1417), 1317-1318.

249 Ibid. 1305.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 목사가 "전도폭발"(Evangelism Explosion)을 개발하여 온 세계에 보급하고 있다. 현재 "전도폭발"은 유엔(UN) 가입국보다 훨씬 더 많은 210개 국가에 보급되어 있다.²⁵⁰ 필자는 아랍권에서 "전도폭발"을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온 분들이 결코 적지 않음을 목격하였다. 왜 "전도폭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전도폭발"의 두 가지 질문에 "알라의 최후 심판 날", 곧 "온 인류의 부활의 날" 개념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첫 번째 질문

"전도폭발"에서 전도자와 피전도자 간에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간 다음, 서로의 인격적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전도자가 피전도자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도달하셨습니까?("전도폭발"의 첫 번째 질문)

그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 상대방의 안녕, 행복, 번영, 출세를 묻는 내용이 아니라, 죽음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먼 훗날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당장 맞이하게 될 죽음에 관한 질문이지 않는가! 그래서 최근에는 피 전도자를 당혹스럽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질문이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250 <http://www.eekorea.org/koreacenter/history.htm>

당신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실 것을 확신하십니까?(Do you know for sure that you are going to be with God in heaven?)²⁵¹

피전도자의 즉각적인 죽음의 가능성을 논하는 가운데 제시하는 질문을 미래적 천국 입국의 가능성을 논하는 가운데 제시한 질문으로 바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질문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지만, 피전도자의 구원의 확실문제를 제기하는 강도 면에 있어서 조금 약화되었다. 그런데 아랍권에서는 그 본래의 질문을 처음 번역할 때부터 약간 수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래의 의미가 전혀 약화되지 않았다.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해서, 아랍권에서는 피전도자의 죽음이라는 이슈를 꺼내어 그를 당혹스럽게 하지 않는 가운데, 전도폭발의 그 첫 번째 질문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다는 말이다.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아랍어 번역을 다시 한글로 번역하면 아래와 같기 때문이다.

당신은 오늘이 바로 ‘알라(Allah)의 심판 날’, 곧 ‘온 인류의 부활의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도달하셨습니까?²⁵²

“전도폭발”의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이라는 내용의 아랍어 번역판은 “당신은 바로 오늘이 “알라의 심판 날’, 곧

251 <http://www.eekorea.org/koreacenter>

252 전도폭발 첫 번째 질문의 아랍어 번역을 필자가 한글로 다시 옮긴 것이다. 아랍권에서는 ‘Evangelism Explosion’이라는 표현을 한국에서처럼 문자적으로 ‘전도폭발’이라고 ‘영적 성장’이라고 번역했다. 세계의 화약고로까지 일컬어지는 중동에서 ‘폭발’이라는 단어가 오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온 인류의 부활의 날’이라고 한다면...”라고 되어 있다. 개인의 종말의 이슈를 우주의 종말의 이슈로 대치한 것이다.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바로 그 심판 날, 부활의 날이라면...”라는 말은 “당신은 ...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이라는 표현 이상으로 실감 나가는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무슬림들은 “알라의 심판 날”, 곧 부활의 날에 대한 신앙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하루에 17번 이상씩이나 고백할 정도로 최후 심판 날에 대하여 친숙하게 지내고 있기 때문이다.²⁵³

그러나 아무리 신실한 무슬림들이라 하더라도 최후 심판 날, 곧 부활의 날에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자신을 가질 수가 없다. 이슬람에서는 이른바 구원의 확신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구원’이라는 용어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용어 자체에 익숙하지도 않고, 그 의미를 선명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오늘이 바로 최후 심판 날, 곧 부활의 날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 어쨌든, “전도폭발” 아랍어 번역 첫 번째 질문은 무슬림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질문임에 틀림이 없다. 필자는 그 질문을 무수히 많은 무슬림들에게 여쭙어 보았다. 그들 중, 상당수는 전혀 자신이 없다고 답을 한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다 솔직한 자들이었다. 문제는 솔직하지 않는 무슬림들도 적지 않다. 그들을 위하여 전도폭발 두 번째 질문이 준비되어 있다.

²⁵³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사도 신경을 통하여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고백을 매주일 예배 때 드리고 있다.

2. 두 번째 질문

“오늘이 심판 날, 곧 부활의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는가?” 놀랍게도, 당당하게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자신이 있다”고 답을 하는 무슬림들이 있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답을 하는 것이다.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전도폭발”의 두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만일에 당신이 알라의 심판 날, 부활하여 심판대에서 지옥행이 아니라, 천국행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 다음, 천국에 무사히 들어가게 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때 알라께서, 만일에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도록 하였는데, 내가 너를 무슨 근거로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한 줄 아느냐?”라고 묻는다면, 그 때 당신은 뭐라고 답하겠는가?

위와 같은 질문을 받아 본 자들 가운데 당황하며 정확한 답을 못하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자기 공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더러는 알라께서 원하면 (인샬라)이라고 답하기도 하고, 알라의 자비 등으로 답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알라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에게 임하였기에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를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끝까지 장담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언제부터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따져 들어가 보면, 그들이 답을 하는데 있어서 진실성이 없었음이 드러나게 된다.

종교학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신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함께 있어

야 한다. 그런데, 이슬람의 신, 곧 알라에게는 초월성만 있지, 내재성이 없다. 코란을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보아도, 알라가 그들에게 찾아 와서 뭔가를 해 준 적이 없다. 무함마드 역시 그를 따르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알라의 심판 날’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였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 가운데 이른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C. 성경의 최후 심판 날과 부활의 날

성경의 “인류 최후 심판 날”, 곧 “인류 부활의 날”을 요한복음 5:24-29와 요한계시록 20:11-15을 중심으로 다루려고 한다. 우리는 II장에서 그 두 개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여 개혁주의 부활론을 이미 정립하였다. 본 장에서 그 내용을 무슬림 복음화 전략 수립에 적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요한복음 5:24-29의 증거

무슬림들은 “전도폭발” 두 가지 질문을 접하는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폭발”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개요를 계속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는 알라의 심판 날, 곧 온 인류의 부활의 날을 중심으로 복음의 개요를 증거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가 있겠다. 알라의 심판 날, 곧 온 인류의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 그 심판 대 앞에 당당히 설 자신이 없는 무슬림들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5:24-29절이다. 우리는 II장 개혁주의 부활론에서 요한복음 5:24-25를 중심으로 영적 부활이라는 제목과 요한복음 5:25-29를 중심으로 육체적 부활이라는 제목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을 전도폭발 두 가지 질문에 적용하여 보자.

a. 영적 부활

한 사람이 알라의 심판 날에 그 심판을 받기 위하여 육체적 부활을 하게 된 다음,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무슬림은 그 심판 날에 대한 신앙을 매일 같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 심판 날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은 심판 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 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5:24-25).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최후 심판 날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심판은 곧 최후 심판이다. 예수께서는 무슨 근거로 그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아담의 후손된 자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현장이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을 “죽은 자들”로 일컬으셨다. 예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서 여전히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일컬으셨다. 왜 예수께서는 여전히 살아 있는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일컬으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III장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 비교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성경의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되었다. 우리는 그 죽음을 영적 죽음과 육체적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예수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을 영적인 관점에서 “죽은 자들”이라고 일컬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한복음 5:25하)고 말씀 하셨다. 우리는 앞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자들(요한복

음 5:21)을 향하여 생명을 수여하는 음성으로 부르시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²⁵⁴ 그리고 영생이란 영적인 부활의 결과로 주어지는 현재적 생명을 일컫는다고 이해하였다.²⁵⁵ 그리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중생을 체험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영적 부활, 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b. 육체적 부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 자들이 모두 육체적 부활을 하여 알라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될 것이라는 믿음은 철저하다. 그 점에 대하여 성경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한복음5:28-29).

최후 심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자들은 다름 아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요한복음 5:25)과 구별하기 위하여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무덤 속에

254 Ibid. 132.

255 Ibid. 131.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 날은 곧 최후 심판 날로 아직 실현되지 않는 미래적인 사건이다. 이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이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 곧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다. 코란의 아담의 후손들로 자처한 자들은 자신들이 곧 영적으로 죽은 자들임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영적 부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곧 성경의 아담의 후손임을 깨닫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영적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들은 심판 날에 육체적 부활을 생명으로 부활로 경험하여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2. 요한 계시록 20:11-15의 증거

코란의 '알라의 심판 날'(코란 1:3) 개념은 성경의 최후 심판 날(계시록 20: 장 등)의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에서 최후 심판을 증거하는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계시록 20:11-15도 대표적인 구절로 뽑힌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시록 20:11-15).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는 엄위하시고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다(20:11). 그 심판이 진행될 때에는 하늘과 땅이 사라지고 없다는 말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다.²⁵⁶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하여 “죽은 자들”이 서 있다. 그 심판은 그 죽은 자들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에 근거한다. 그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를 따라 낱낱이 기록하고 있고, 각 사람은 그가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심판의 결과는 모두 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다(계시록 20:13-15). 그런데 사도 요한은 최후 심판 날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을 모두 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계시록 20:15). 다시 말해서, 최후 심판 날 아주 중요한 두 종류의 책이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질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다. 그런데 코란에는 생명책은 나타나지 않고, 인간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만 있다. 코란에 이른바 행위록이 다음과 같이 잘 소개되고 있다.

²⁵⁶ 코란에도 새 창조 개념이 소개되기는 한다. 코란 50:15에 새 창조라는 용어가 분명히 등장한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새로운 창조에 관하여 혼돈하여 의심하고 있노라”(코란 50:15). 알라의 최초 창조에 결함이 없었듯이 죽은 다시 살리는 일, 곧 새 창조는 더 쉬운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 인간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인간의 목에 있는 혈관보다 내가 더 인간에게 가까이 있노라. 두 명이 임명되어 우측과 좌측에 앉아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노라. 인간이 말할 때마다 함께 있던 천사에 의하여 감시되고 기록되며 진리에 따라 죽음에 이르니 그것이 바로 너희가 피하여 노력했던 것이라 말하여지며 나팔이 울리니 그것이 바로 경고 받은 경고의 날이라. 그때 모든 인간은 그를 인도할 천사의 증언할 천사가 그와 함께 오니 너희가 오늘을 무관심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 베일을 거두어 주리라. 그리하여 오늘을 보리라. 그의 동반자가 여기에 준비된 그의 기록이 저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말하노라. 하나님을 거역했던 오만한 모든 자들을 지옥으로 던지라(코란50:17-24).

무슬림들은 알라로부터 인간의 행위를 관찰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두 명은 곧 두 천사를 의미한 것으로 믿고 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우편에 있는 천사는 인간의 선한 행위를 좌편에 있는 천사는 인간의 악한 행위를 기록한다고 믿고 있다.²⁵⁷ 성경은 그들의 행위가 행위록들에 기록된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는 인간의 행위들이 기록된 책들이 아닌 또 하나의 책이 있다.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든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계시록 2:5-6).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II. 개혁주의 부활론에서 충분히 다루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죽은 자들의 범주 속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계시록 :12-13).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들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

257 최영길, 50.

그들은 언제나 살아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기 때문이다(계시록 20:6). 여기서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제 II 장 개혁주의 부활론”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곧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약의 12 지파로 대표되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12 사도로 대표되는 신약의 사도들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은 개념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하늘 보좌에 앉아 왕 노릇하고 있는 24 장로들, 새 예루살렘의 석과의 높이기 144라는 점, 새 예루살렘의 12문들 위에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고, 새 예루살렘의 12 성곽의 12 기초석 위에 12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점 등.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녹명되기 시작한 시점을 “창세 이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볼 필요가 있겠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시록 13:8)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들...(계시록 18:8 참조)

우리는 사도 요한이 “창세 이후”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강조한 것을 통해서 볼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 중에 다름 아닌 아담, 하와, 아벨, 셋, 에녹, 노아, 아브라함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론하여 볼 수가 있겠다. 성경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열납

되었다고 반복하여 증거하고 있고(창세기 4:4; 히브리서 11:4 등),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벨을 의인이라 일컬으시고, 그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을 예표한 것으로까지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생명책에 녹명된 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대신한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불렀더라.”(창세기 4:26)는 증거를 통해서, 셋 역시 생명책에 기록된 자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에녹과 아브라함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임에 대하여는 제 III장에서 충분히 설명했다.

앞에서 밝혔듯이, 코란의 아담은 이슬람의 육대 선지자들 중의 하나이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에 비하여 코란의 아담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밝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구원문제를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아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담이 구원받았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특별히 우리는 아담의 구원문제를 제 III장에서 명쾌하게 밝혔다.

이제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내어준다고 하였는데, 사망, 음부, 바다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겠다. 그 셋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동일한 장소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20:13상).²⁵⁸ 그리고 앞에서 밝혔듯이, 죽은 자들은(20:12상) 짐승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음부”(눅16:23), “옥”(벧전 3:19; 계 20:7), “무저갱”(계 20:3)은 최후 심판 전의 불신자들의 멸망의 처소를 말한

258. Ibid. 221.

다. 그리고 “지옥”(약4:4; 마 5:22)과 “불못”(계 19:20; 20:10,14,15; 21:8)은 최후 심판 후의 멸망의 처소를 말한다.²⁵⁹ 다시 말해서, 첫째 부활, 즉 영적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 “음부”에 머물다가 최후 심판 날 “불못”에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다. 지옥과 불못을 동일시하는 이유는, 지옥은 음부와 달리 영혼과 몸이 함께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다(마10:28).²⁶⁰

그리고 짐승은 곧 사탄을 상징한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추상명사를 불신자들, 곧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처하는 처소인 음부라는 장소 명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바다가 곧 음부와 같은 뜻으로 사용된 점도 성경에서 줄곧 바다가 짐승의 출현 장소로 소개되는 가운데(다니엘 7장 등)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처할 처소를 뜻하는 상징명사가 되었다.²⁶¹ 사도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을 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이다(계시록 21:1). 짐승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을 최후의 심판 때까지 모아 놓고 있었던 장소인 사망 곧 음부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사탄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은 죽으면 하늘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사망과 음부에서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다가 최후의 심판 때에 불과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²⁶²

259 박윤선, 『성경주석 요한계시록』, (서울: 영음사, 1980), 339.

260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태복음 10: 28).

261 이필찬, 221

그러나 첫째 부활, 즉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불뭇에 던져짐을 당하지 않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II장에서 계시록 20:5-6에서 처음 등장한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로 해석한 가운데, 사도 요한이 앞으로 있게 될 육체적 부활을 둘째 부활로 암시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록 20장과 21장에서 첫째와 둘째(또는 마지막)라는 대칭 구조가 다음과 같이 세 번에 걸쳐 제시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①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②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③ 첫째 하늘과 첫째 땅, 그리고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과 땅에 대해서는 ‘둘째’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새로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살펴본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은 곧 둘째 하늘과 둘째 땅이며, 결국 마지막 하늘과 마지막 땅이라는 점을 살펴보았다.²⁶³ “새로운”이라는 수식어는 “둘째”, 곧 완성 또는 마지막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음도 살펴보았다.²⁶⁴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던 자들이 최후 심판을 거친 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것은 곧 새 하늘과 새 땅,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새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다름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그의 보혈로 구속받은 교회 하나 뿐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외의 어떤

262 Ibid. 222.

263 번 S. 포이쓰레 200.

264 사도 바울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첫 사람 아담이라고 일컬음과 동시에, 예수를 마지막 아담, 또는 둘째 사람이라고 일컬었다(고린도전서 15:45-47).

다른 것도 의미할 수가 없다.²⁶⁵

매일같이 알라를 믿고, 알라의 심판 날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그 심판 날 구원받을 확신이 없는 이슬람권의 영혼들에게, “오늘이 바로 알라의 심판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도달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은 아주 적절한 질문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당황하는 무슬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개혁주의 부활론의 관점에서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에 대한 비교 연구와 그 연구를 통하여 수립된 무슬림 복음화 전략은 아주 유용함이 틀림이 없다.

265 이필찬, 246.

V. 결론

우리는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을 비교하는데 있어서 개혁주의 부활론을 기초로 하였다. 개혁주의 부활론에 따르면, 사람의 부활은 두 가지 국면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영적 부활이요, 또 하나는 최후 심판 날에 경험하게 될 육체적 부활이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영적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영적 죽음의 상태에 처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어 첫째 부활, 즉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

개혁주의는 영적 부활을 첫째 부활로, 육체적 부활을 둘째 부활로 각각 일컫는다(계시록 20:5-6). 그리고 첫째 부활, 즉 영적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최후 심판 날에 둘째 부활 즉 육체적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암시되어 있을 뿐이다. 둘째 부활 대신에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이 소개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이 밝혀진다(계시록 21:1,19). 그리고 성경에서 첫째와 대조되는 “둘째”라는 개념은 “마지막” 또는 “새로운”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첫째 부활로서 영적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최후 심판 날 둘째 부활로서 경험할 육체적 부활을 생명의 부활(요한복음 5:29상)이라고 일컫는다. 반면에 첫째 부활로서 영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불신자들이 최후 심판 날 경험할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일컫는다(요한복음 5:29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이 둘째 부활, 즉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지는 것으로 설명한다(계시록 20:14,15).

개혁주의 부활론을 기초로 하여 볼 때 코란의 아담은 성경의 아담과 달리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고, 오직 육체적 죽음과 육체적 부활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아담은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을 각각 먼저 경험한다. 우리가 성경의 아담의 영적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이른바 선악과 사건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한다.

성경의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죽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성경의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코란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도 성경의 뱀의 말처럼 결코 죽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코란은 그 주장이 설득력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나무”로 고쳤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동산에 사람의 죽음을 유발시키는 악이나 독이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아담에게 내려지는 죽음의 경고는 잘 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란은 그 죽음의 경고를 “죄인들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약화시켰다.

코란의 아담도 성경의 아담처럼 금단의 열매를 따 먹었다. 그러나 코란은 그 일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아주 교묘하게 설명

하고 있다. 코란의 아담은 그 금단의 열매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난후, 적지 않은 시간들이 지났기 때문에 잊어먹고 지내었다는 것이다. 코란은 아담이 그 과실을 따 먹는데 있어서 고의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아담의 죽음과 선악과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뱀과 코란의 알라의 공통된 주장이다.

사도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그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가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였다 (계시록 22:18,19).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가감한 자가 바로 성경의 뱀이다. 그리고 그 가감의 시작점이 이른바 아담 언약이라 일컬어지는 창세기 2:16,17이다. 그런데 코란의 알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시작점과 그 내용 면에 있어서도, 성경의 뱀과 코란의 알라가 완전히 그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다.

성경의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증상이 임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죽었다. 그렇다면, 코란의 아담은 어떻게 되었는가? 코란의 아담도 죽었다. 그렇다면, 코란의 아담의 죽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코란의 아담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다. 코란은 아담이 영생할 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생명의 한계를 갖고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다. 첫째 코란의 사탄이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 한 내용 속에 아담의 유한성이 암시되어 있다. 코란의 사탄이 아담에게 금단의 열매를 따 먹게 되면, 영생하는 천사처럼 될 것이고, 불멸의 왕국으로 인도받게 된다고 유혹하였다. 둘째 코란에는 생명나무가 없다. 성경의 아담은 금단의 열매 대신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기만 하였다면 그는 영생할 자였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하게 됨으

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코란의 아담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이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았다.

성경의 아담은 죄를 범하여 기록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처하여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 죽어가고 있는 자였다고 말할 수가 있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 내외를 찾아오셔서 그 내외를 유혹에 빠트린 뱀을 저주하셨다. 그 저주의 메시지 속에서 이른바 원시복음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원시복음의 주인공은 여자의 후손이었다. 아담은 그 복음에 올바르게 응답하여 다시 살아났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에 바르게 응답하여 하나님과 다시 교제를 갖기 시작한 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일컬을 수가 있겠다.

코란은 성경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선포하였던 “여자의 후손”이 중심이 되는 이른 바 “원시 복음”(창세기 3:15)을 증거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코란은 아담이 그 원시복음에 응답하였던 사건, 즉 그의 아내가 그 여자의 후손을 잉태할 자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산 자의 어미라는 뜻의 하와라는 새 이름으로 일컫는 가운데 그녀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전혀 소개하지 않았다. 또한 그 응답의 결과로서 주어진 하나님의 가족 옷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성경의 아담의 세 아들 중에서 아벨과 셋을 통하여 엿 볼 수 있는 구속의 역사를 전혀 소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이 세상으로 옮겨와 사는 것도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파송을 받은 것이라고까지 역지를 부

리고 있다.

코란은 성경과 달리 아담과 그 후손들의 영적 죽음과 영적 부활에 대하여 전혀 증거하고 있지 않고, 아담과 그 후손들의 육체적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과 같이 잘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육체적 부활이 이른바 최후 심판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과 코란의 공통적 증거이다. 우리는 성경과 코란이 함께 증거하고 있는 최후 심판 날, 곧 인류의 육체적 부활의 날을 접촉점으로 하여 무슬림 복음화 전략을 다루었다. 우리는 그 전략을 다루는데 있어서, 미국의 제임스 케네디가 개발한 전도폭발의 두 가지 질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개혁주의 부활론을 다루면서 강해하였던 요한복음 5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을 적용하였다.

전도폭발의 첫 번째 질문의 아랍어 번역문은 “당신은 오늘이 바로 ‘알라의 심판 날’, 곧 ‘인류의 부활의 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는 단계에 도달하셨습니까?”이다. 신실한 무슬림들이라면 “알라의 심판 날, 곧 온 인류의 부활의 날”에 대한 신앙을 하루에 17번 이상씩이나 고백해야 한다. 그런데, 수많은 무슬림들이 매일 같이 알라의 심판 날이 도래할 것을 고백하며 나름대로 열심히 그 심판 날을 신실하게 준비하지만,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낙관적인 답을 하는 자들이 없다.

우리는 요한복음 5:24-29절과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필자는 무슬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입게 되어 성경의 아담과 코란의 아담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여 본다. 그리고 그들이 그 차이점이 생기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될 것을 소망하여 본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유가 코란이 성경을 의도적으로 왜곡 인용하였기 때문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여 본다. 코란의 아담은 성경의 아담과 달리 관념 속에 있을 뿐이지 실재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슬람권의 영혼들도 코란의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성경의 아담의 후손들이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과 대조하는 가운데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일컫는다. 그러나 코란은 성경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나 마지막 아담으로 소개하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이슬람권의 영혼들이 자신들도 코란의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성경의 아담의 후손들이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주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 문헌 목록

1. 국내서적

- 김서택. 『하나님의 형상, 사람의 모습』. 서울:홍성사, 1997.
- 김세윤. 『바울복음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4..
- _____. 『예수와 바울』.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4.
- _____. 『바울신학의 새 관점』. 서울: 두란노, 2002.
- _____. 『구원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제자, 1997.
- _____. 『하나님이 만드신 여성』. 서울: 두란노, 2004.
- _____. 『요한복음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 _____. 『주기도문 강해』, 서울: 두란노 2001.
- 김정주. 『바울의 성령 이해』.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박영선. 『성령론』. 서울: 새순출판사, 1985.
- 박희석. 『안식일과 주일』.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 손석태. 『창세기 강의』. 서울: 성경읽기, 1993.
- 유재원, 『모세오경』.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 이정순. 『무슬림 여성과 베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2

- 유병조. 『중동분쟁사』. 서울: 서원, 1994.
- 유상섭 『설교를 돕는 분석 요한복음』. 서울: 규장문화사, 1999.
- 이필찬.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2000.
- 이희수. 이원삼. 『이슬람』. 서울: 청아출판사. 2003.
- 전재욱. 『기독교와 이슬람』.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정수일. 『이슬람문명』.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3.
- 차준희. 『창세기 다시 보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 최영길. 『이슬람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신지평, 1999.
- _____. 『이슬람문화』. 서울: 도서출판 알림, 1999.
- 최종태. 『예언자에게 물어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한기문. 『유대인과 아랍인의 전략』. 서울: 도서출판 한글, 2004.
- 한철하. 『고대 기독교 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2. 번역서적

- 그라아프, S.G.DE. 『약속 그리고 구원 제 1권』. 박권섭 역. 서울: 크리스찬 서적, 1986.
- 그로닝겐, 게라르드 반. 『구약의 메시아 사상』.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그리어, W.J. 『재림과 천년왕국』, 명종남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87.
- 김, H.A.R. 『이슬람 그 역사적 고찰』. 최준식, 이희수 공역, 서울: 문덕사,

1993.

벌코프, 루이스. 『조직신학, 상』. 권수경, 이상원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2.

보이스, 제임스 M. 『창세기 강해』. 문동학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벨. 에드워드, 『구약 속의 그리스도』. 권호덕 역. 서울: 그리심, 2003.

브루스, FF. 『요한복음』. 서문강 역.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2000.

던, 제임스 D.G. 『바울신학』.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덤브렐, 윌리엄 J. 『언약신학과 종말론』. 정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_____. 『새 언약과 새 창조』. 장세훈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3.

라이리, 찰스. 『세대주의의 바른 이해』. 정병은 역. 서울: 진도출판사, 1966.

로버트슨, O. 팔마. 『언약이란 무엇인가?』.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_____. 『하나님의 이스라엘』. 오광만 역. 서울: 그리심, 2002.

_____. 『계신학과 그리스도』.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마시흐, 압둘. 『무슬림과 대화』. 이동주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1.

매킨토시, C.H. 『창세기』.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9.

모우캐리, 쇼캣.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화』. 이슬람연구소 역.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버드, 잭. 『이슬람이란 무엇인가?』. 중동선교회 역. 서울: 예루살렘, 1992.

- 보스, 게할더스. 『하나님 나라와 교회』, 원광연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8
- 브라운, 레이먼드. 『히브리서 강해』. 김현희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00.
- 사우어, 발 J. 『평신도를 위한 종말론』, 정홍렬 역. 서울: 나눔서원, 1994.
- 세일해머, 존 H. 『“서술”로서 모세오경』. 김동진 역. 서울: 새순출판사, 1994
- 스택, 존 H. 『구약신학』. 류호준 편역. 서울: 솔로몬, 2000.
- 스파크만, 고든 J. 『개혁주의 신학』, 류호준, 심재승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 웬함, 고든 J. 『창세기(상)』. 황수철 역. 서울: 임마누엘, 1992.
- 영, 에드워드 J. 『창세기 제3장 연구』. 정정숙 역. 서울: 정음출판사, 1983.
- 존스, 로이드. 『교회와 종말에 일어난 일들』, 장광수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지아드, 무함마드 아흐마드. 『성경과 대비해서 읽는 코란』. 김화숙, 박기봉 역. 서울: 비봉출판사, 2001.
- 카일, C.F.와 F. 델리취. 『창세기』. 서울: 기독교문화사, 1994.
- 칼빈,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88.
- _____. 『칼빈주석: 창세기 1권』. 존 칼빈성경주석편찬위원회. 서울: 성서교제간행사, 1992.
- 클라우니, 에드먼드.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조성동 역. 서울: 네비게이토출판사.1991.

포이쓰레스, 번. 『요한계시록 맥잡기』, 유상섭 역. 서울: 크리스찬 출판사, 2000.

핑크, 아더. 『하나님의 언약』. 김의원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9.

하글루드, 벵트. 『신학사』. 박희석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9.

하지, 찰스. 『고린도전서』, 김영배 역. 서울: 아가페 출판사, 1985.

헨드릭슨, 윌리엄. 『요한계시록』. 김영익, 문영탁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3.

_____. 『요한복음(상)』, 문창수 역. 서울: 아가페출판사, 1983.

헨리, 매튜. 『창세기』. 박근용 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7.

후크마, 안토니 A.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0.

_____. 『개혁주의 종말론』. 류호준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휴스, 필립 E. 『히브리서 (상) (하)』. 이남종 역, 서울: 크리스찬서적, 1993.

3. 영문서적

Adams, Jay. *The Time Is at Hand*. Nutley, N.J. :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mpany, 1970.

Barth, Karl. *Church Dogmatics*, III/2. Edinburgh: T. and Clark, 1960.

- Bauckham, Richard. *The Climax of Prophecy*. Edinburgh: T& T Clark, 1999.
- Beasley-Murray, George R. *Genesis*, W .B. C. Nashville: Thomas Nelson Publishers, 1988.
- Berkhof, Hendrikus. *Christ the Meaning of History*, Richmond: John Knox Pres, 1966.
-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7.
- Berkouwer, G. C.. *The Return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72.
- Brown, Raymond E. *The Gospel according to John(I-XII)*. The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1970
- Clouse, Robert G. *The Meaning of Millennialism*.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1977.
- Durham, John I. *Exodus*. WBC, Texas: World Books, 1987.
- Gordon, Wenham. *Genesis 1-15*. WBC. Texas: World Books, 1994.
Genesis 16-50. WBC. Texas: World Books, 1994.
- Falakim Salam. *Old Testament Stories in the Quran*. Villach. Austria: Light of Life. 1995.
- Hoekma, Anthony. *the Bible and the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76.
- Jadeed, Iskander. *How to Share the Gospel with Our Muslim Brothers?* Villach. Austria: Light of Life. 1989.
- Kherie, Altaf Ahmad *Islam*, Saddar Karachi: Roayl Book Company, 1993.

Kidner, Derek. *Genesis in Tyndale OT Commentaries* (Downers Grove, IL: Inter Varsity, 1967

Morris, Leo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Grand Rapids: Edmans, 1971.

_____. *The Revelation of St.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1

Morris, Henry M. *The Genesis Record*. Michigan: Baker House. 1976.

Murray, John. *Collected Writings of John Murray*, vol. 1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7

Ridderbos, Herman N. *Paul: An Outline of His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75.

Sydney Nettleton Fisher. *The Middel East*. New York: William Oshenwald. 1990.

Tisdall, W.ST. *Christian Reply to Muslim Objections*. Villach. Austria: Light of Life. 1980.

Walvoord, John F. *The Return of the Lord*.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60.

4. 학회지 및 논문

김진섭, “구약에 나타난 성령님의 우주창조에 관한 소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근삼 박사 50주년 기념 논집』 1

이동주. “이슬람의 영사상” 『민속이슬람』, 한국이슬람연구소 김아영 엮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_____ . “꾸란 속에 내재한 기독교 언어”, 『기독교와 이슬람』 한국개혁신학
회 논문집 제 12권. 서울: 불과 구름, 2002.

5. 기타자료들.

최영길. 『성꾸란 의미의 한국어 번역』. 메디나: 파하드국장성 꾸란 출판청,
A.H. 1417.

중동선교회: www.met.or.kr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For Missions): www.krim.org.

The Holy Gur-an, Revised & Edited by the Presidency of Islamic
Researches, IFTA, Call and Guidance (Al-Madinah
Al-Munawarah, The Kingdom of Saudi Arabia, A. H. 1413)

Yousuf, Ali, Abdallah. *The Holy Qur'an*. New York: Tahrike Tarsile
Qur'an, Inc. 1977.

Amjad, Moiz. *Understanding Islam*, Answers on the Web.

[Http://www.uderstanding-islam.com](http://www.uderstanding-islam.com)

ABSTRACT

A STRATEGY OF EVANGELIZING MUSLIMS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OF THE BIBLICAL ADAM AND THE KORANIC ADAM IN LIGHT OF THE RESURRECTION DOCTRINE OF REFORMATION THEOLOGY

This dissertation deals with a strategy of evangelizing Muslims through the comparative and contrastive studies of the Biblical Adam and Koranic Adam in light of the resurrection doctrine of reformation theology.

Chapter two deals with the resurrection doctrine of Reformation theology. We study it from two scriptures (John 5:19–29 and Revelation 20). This doctrine has two different aspects. One is the spiritual resurrection that men begin to experience in this earth, and the other is the physical resurrection that men are to experience on the Last Judgment Day. This doctrine explains that the first resurrection of Revelation 20:5–6 is the spiritual resurrection and that the physical resurrection is the second resurrection. However, the term 'the second resurrection' is not directly mentioned in the Bible, but is only reasoned. The meaning 'the second' in the Bible is 'the last' or 'new'. The participating in the second resurrection directly becomes participating in the New Jerusalem. The New Jerusalem is the Church of our Lord Jesus Christ. On the contrary, the unbelievers who do not experience the first resurrection experience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John 5:29). And the resurrection of judgment is to be thrown into the fiery pits of hell (Revelation 20:14, 15).

Chapter three compares and contrasts the Biblical Adam and the Koranic Adam based on the resurrection doctrine of reformational theology. The Koranic Adam did not experience the spiritual death and resurrection, but only experienced the physical death and resurrection. However, the Biblical Adam experienced both the spiritual death and resurrection first before he experienced the physical death.

In the Bible, God warns Adam that he will surely die if he eats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However, the serpent says he will surely not die. But the Koran change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o 'this tree' Its argument about the Forbidden Tree is that the Garden of Eden, which is created by God who is good cannot have any evil or poison that will bring death to man. Thus it argues against God who gives Adam a death warning. Just like the Biblical Adam, the Koranic Adam also ate from the Forbidden Tree. However, the Koranic Allah explains that it was not a matter of Adam's death because the Koranic Adam forgot about the warning given to him about the forbidden tree. We see here the similarity of the Koranic Allah and the Biblical serpent in the fact that Adam's death has no relation with his eating of the fruit of the Forbidden Tree.

Chapter three has seven titles: A. God's Creation Of Adam, B. Satan's Temptation To Kill Adam, C. Adam To Die By Satan's Temptation, D. God's Making Adam Alive, E. Adam's Living again. F. Adam's Being Expelled From Eden, G. Adam's Children. Chapter four presents a strategy of evangelizing Muslims. We make use of the first question of "evangelism explosion" made by Dr. James Kennedy and Allah's Last Judgment Day and the Resurrection Day of men as we apply the comparative and contrastive studies of the Biblical Adam and Koranic Adam based on the resurrection doctrine of reformation theology.